금주의 법구-〈법구경〉
타인의 허물을 보지말라
오로지 나 자신의 행동을 살펴
선한지 악한지를 분명히 판단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0호 2016년 6월 8일 수요일

강압 명령 · 교육 부재 출가 행자는 하산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硏, 행자 퇴사 원인 분석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화두 중 하나는 출가자 확대에 있다. 하지만, 정작 일반인이 출가하더라도 행자 생활을 마치기 전 중도 포기자가 많아 행자 교육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사자 통계보다 많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5월 31일 출가지도법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와 행자 퇴사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76명이 행자 등록을 했고, 410명이 퇴사했다. 이는 전체 2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257명이 등록해 70명(27%)이 퇴사했다.

본사별로는 직할교구, 마곡사, 수덕사, 은해사, 고운사, 대흥사가 퇴사율 30%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나머지 본사들도 대부분 20%대의 퇴사율이 집계됐다.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현재 인원은 행자등록을 했다가 퇴사한 사람을 집계한 것"이라며 "등록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집계가 안된다. 실제 중도 퇴사자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계자 83% "돌아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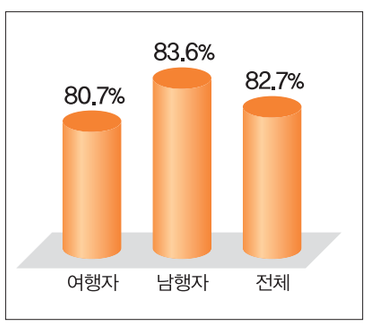
이렇게 높은 퇴사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학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 50기 수계교육을 받은 행자 8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81명 중 67명(82.7%)이 중도 포기를 생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행자는 55명 중 46명(83.6%)이, 여행자는 26명 중 21명(80.7%)가 중도 포기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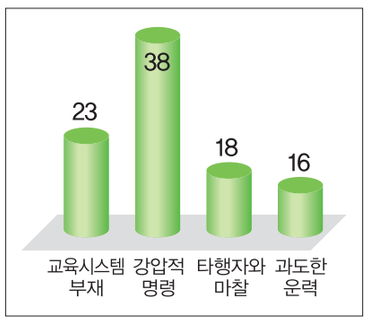
중도 퇴사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압적 명령 · 분위기(38건 · 중복응답)'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스템 부재(23건), 타행자와의 마찰(18건), 과도한 운력(16건)이 중도 퇴사를 생각한 이유로 나타났다.

중도 퇴사 원인에 대해서는 남 · 여행자가 상이하게 조사됐다. 남행자의 경우 교육시스템 부재(19건) · 강압적 명령(18건)이 높게 나타났고, 여행자는 강압적 명령(20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포기 유혹



중도포기를 생각한 이유 (중복 응답)



50기 수계교육 받은 행자 설문
81명 중 67명 "중도포기 생각"
男행자 교육 · 명령 등 원인 꼽아
女행자 '강압적 명령'이 압도적
민주적 사회서 살아오던 행자들
수직적 위계 관행에 많은 불만
"중앙 '상설 행자교육원' 필요"

또한, 수계교육을 받은 사람 중 71%가 누구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 현재 행자 지도프로그램이 부재함을 보여줬다.

과도한 운력 시간도 문제다. 2015년 교육원 연수팀이 작성한 '행자주요통계'에 따르면 행자들의 평균 교육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지만, 운력 시간은 평균 4시간에 달한다. 행자들에게서 "'사찰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불학연구소는 "대화와 설명을 통한 교육보다는 여전히 수직적 위계로 행자 관리와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입문 교육 이후부터 수계 교육 이전까지 사중 행자 교육과 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돼야

행자들의 중도 퇴사를 막기위해 조계종이 내놓은 방침은 '출가지도법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되는 교구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 스님 1인, 비구니 스님 1인으로 위촉 · 구성된다. 현재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제외하고 모두 위촉됐다. 이들 스님들은 자신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 · 상담의 역할을 맡는다.

행자 지도를 전담하는 출가지도법사들은 5월 31일 열린 워크숍에서 중도퇴사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상설 행자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8교구 직지사 출가지도법사 희봉 스님(직지사 포교국장)은 "미얀마에서는 신입 출가자나 재가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불교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심이 생겨 일을 한다"며 "우선적으로 불교의 바른 이해와 기본 습의를 익힐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상설 행자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7교구 금산사 출가지도법사 응묵 스님(실상사 주지)도 "상설 행자교육원 건립은 이전에도 많이 주장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면서 "종단 100년 대계인 출가와 승가교육 진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단기출가학교와 더불어 상설 행자교육원이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운력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아닌 상담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 출가지도법사 능견 스님(운문사 교무)은 "운문사에서는 행자들에게 '왜 운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행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다. 수계 전까지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스님들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서울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불사 착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전통사찰 강남 봉은사에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선다. 봉은사는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지장전 옆에서 전통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대표 스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시삽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선출제 '염화미소법'으로 추진

조계종 종회 특위, 7차 회의 결의… 추천인단 706명 확대

총무원장 임기 '6년 단임' 변경
본사 25명 구성 및 재가자 포함
대중공사 직선제 여론 반영 안돼

조계종 중앙종회가 조계종 6월 임시종회에 '염화미소법'을 차기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상정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총무원장선출특위)는 6월 2일 7차회의를 열고 6월 임시종회에 차기 총무원장 선출제로 종정 스님이 추천하는 '염화미소법'을 부의한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종회의원들은 대중공사서 나온 '직선제' 선호 여론에 대해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와 함께 대중공사서 결의된 참종권 확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장시간 회의 끝에 당초 500인 내외였던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인단을 706명으로 확대했다. 특위가 마련한 염화미소법은 총무원장 추천인단이 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갈마위원회를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첨하게 된다.

추천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교구본사에서 25명씩을 추천인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비구니 스님이 교구당 5명씩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또 재가자를 대표해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교구본사 신도회장 25명을 추천인단으로 포함시켰다.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갈마위원회는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선원, 율원, 강원, 중앙신도회 추천 재가자 등 각 1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율원 위원을 1명 더 늘리고, 재가법률위원을 1명 더 추가해 1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선출특위는 총무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할 경우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6년 단임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총무원장 임기는 4년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대해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한 일부 불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체 승단의 50%를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불교계 단체들은 참종권 확대를 위한 직선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비구니 선거인단은 전체 311명 중 23명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천인단 구성에서도 총 703명 중 130명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배움 씨앗' 움튼 아프리카, 부처님 나투다

아름다운동행, 6월 8~15일 부처님 진신사리 전시

조계종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에 모셔질 부처님 진신사리 및 불상을 대중에 공개한다.

6월 8~15일 8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열리는 전시회에선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 탄생불 및 진신사리 3과(골사리 1과 · 육사리 1과 · 발사리 1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학교건립 스토리 사진전도 진행된다.

"배움의 씨앗이 싹트는 아프리카에 부처님이 함께한다면, 그보다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상 및 진신사리를 기증한 광제사 주지 경원 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모셔질 부처님이 더 큰 세상을 비추어 아이들의 꿈도 더 크게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인도서 태어난 부처님이 한국인들에게 불법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처님 전신을 아프리카에 모시고 가서 전법의 길을 열 것"이라며 "뜻 깊은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전시회 개막식은 6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서 열리며, 부처님 점안식은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서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53見 평온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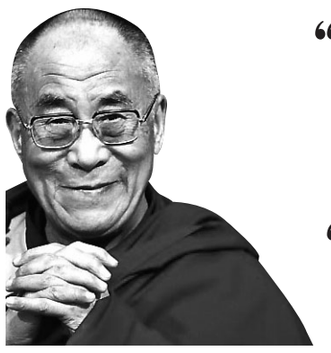
평온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축복이며 축제이다
평온은 반야심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오온(색수상행식)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음경계이며
무생법인으로 나아가게 하며
평온은 마음의 갈등과 분별망상을 여읜 평상심이라
도(道)의 문(門)이 되며
평온은 업(제50見참조)이 자재하고 지혜광명의
마음 자리로 화엄경 십주의 초발보리심을
하게하는 원동력이 되며
평온은 석가세존께서
80세에 열반(당시 평균수명은30세
미만이었음)하신 수명을 현대(2016년)
평균수명으로 환산하면 약200세를 사셨듯이
무병장수의근원이 되며
평온은 업의 파도가 고요한 선정삼매로
업의 자재해탈로 나아가게 하며
만병이 저절로 물러가며
재액이 저절로 물러가며
마구니도 저절로 물러간다
평온은 자식인연, 형제인연, 도반인연, 부부인연,
부모인연 등을 화평하게 화합시키는
근원이 되며
평온은 마음이 평화롭고 온화하며 고요하여 매사에
집중이 자연스레 되어 학생은 우등생이며,
사업가는 억만장자가 되며, 수행자는
깨친 선지식으로 거듭나게 되며
평온은 지역갈등, 단체갈등, 정당갈등, 종교갈등,
국가갈등, 민족갈등, 자연환경과의 갈등 등등을
해소키 위해 가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한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이다

이를 진귀가 품어보면.....

평온은
석가세존의 또 다른 이름이며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며
석가세존께서 말세 중생들에게
던지는 간절한 메시지이며 화두이다.

세계 희망단체-
평온센터
부속시설 화엄경 강원
화엄 명상원





“달라이라마 방한, 종교계가 함께 ‘국민 축제’ 만들어야”



박병기 조성택 김근수

6월 2일 ‘한국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 서

조성택 · 박병기 · 김근수 등 발제
달라이라마 방한 의미 등 의견 개진
“추진회 가톨릭 · 개신교 포함”
제프리 홉킨스 교수 기조강연도

달라이라마는 왜, 어떻게 방한해야만 하는가?

여론이 ‘달라이라마 방한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일까’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불교계는 ‘달라이라마가 왜 한국사회에 필요한지, 또 방한이 성사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다 심화된 고민을 시작했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공동대표 금강, 이하 방한추진회)는 6월 2일 ‘한국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편집인, 이향순 미국 조지아대 교수,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달라이라마 방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성택 교수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며 ‘분명한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사회가 내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된다”며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닌, 세계인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달라이라마의 행보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겠단 주체 의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이웃종교인, 나아가 비종교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달라이라마 방한을 국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편집인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편집인은 “방한추진회에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를 포함시킨다면 불교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달라이라마 방한 시 불교기관이 아닌 곳도 넉넉히 접촉하길 바란다. 이웃종교인들을 명동성당에 불러놓고 교황이 잠시 인사만 건넨 가톨릭의 실수를 불교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편집인은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불교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편집인은 “교황 방한 이후 한국 가톨릭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는가? 아니다”고 단호히 말하며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 불교에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지만, 허탈감과 허무함을 더 깊이 던져줄 수도 있다. 즉 달라이라마가 다녀가도 한국불교는 개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김 편집인은 △달라이라마 방한시 빈민촌, 팽목항 등 고통 받는 현장을 찾을 것 △달라이라마는 불교기관이 아닌 이웃종교와도 접촉할 것 △정치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 등을 조언했다.

또한 박병기 교수는 세계가 직면한 윤리적 위기 속 ‘세계윤리’가 필연적 요청임을 시사하며, 달라이라마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모범인물이라고 꼽았다.

박 교수는 “세계윤리가 살아나기 위해선 누군가 그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달라이라마”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달라이라마는 불교 지도자이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개방성과 관용의 미덕을 보여준다. 또한 명상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고 지혜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모든 윤리의 토대인 존재실상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추구하는 것을 달라이라마는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인물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방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제프리 홉킨스 미국 버니지아대 명예교수는 ‘달라이라마와 함께한 나의 작업’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이밖에도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달라이라마님, 한국 불자들도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주고받기 명상을 해야합니까’, 이향순 미국 조지아대 교수의 ‘달라이라마와 여성불교’ 등의 주제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관련인터뷰 4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 배려 미흡… 성보문화재 인식 개선”

이영훈 國博 관장 30일 기자회견 열고 공식 사과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기획전시회에서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헌다 불허로 불교계와 마찰을 빚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은 5월 30일 열린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불교계 설명회’에서 그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국 국보 반가사유상에 대한 불허 조치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먼저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관장은 “외국 불교계와 교류 행사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일본 주구사(中宮寺) 개안법회에 상응하는 한국불교 행사를 조계종 등 한국불교계와 미리 협의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스님과 불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교 등 종교문화재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 개선과 종교 문화재에 대한 해당 종교계와의 협력 확대 등 후속 대책들도 발표했다.

이 관장은 “성보문화재를 수집, 조사, 연구할 때 대부분 미술사 · 미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졌다. 이후에는 불교사상과 교류, 역사들을 망라해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세월호 아픔 잊지 않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이 광화문에 위치한 세월호 광장을 찾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자승 스님은 6월 1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동행서 모연한 자비나눔 기금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이 세월호 사고 이후 꾸준히 모아온 기금으로, 유가족 지원 총규모는 4억여원에 이른다. 노덕현 기자

‘소통’ 사라지고 남은 대불련 동문 갈등

총동문회 〈대불련 분석리포트〉 발간에
대불련 “비전 無, 자료도용, 현황 왜곡”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가 발간한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연구결과물을 두고 대불련 회원과 동문회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소통.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신만 남았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학생 지표조사와 대불련 분석리포트〉 〈대불련 지회 운영매뉴얼〉 〈대불련 신규콘텐츠〉 등 3종의 연구결과물을 발간했다. 연구결과물에는 대불련 122개 지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지도교수 · 지도법사 현황, 회칙 유무, 업무인수인계, 중앙행사 참여율, 중앙활동 분석 등을 통해 대불련 지회의 열악한 상황과 미미한 행사 참여율 등이 드러났고, 대불련 중앙조직 활동에 대한 감사(監査)성의 평가가 서술돼 있다. 총동문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5일 연구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불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불련은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51년차부터 현 54년차까지의 중앙회장단 입장을 전했다.

회장단에 따르면 총동문회 연구결과물에 담긴 설문조사는 대불련이 직접 실시한 것이고, 운영매뉴얼 일부도 제공했다. 지난해 대불련 중앙회장이던 이채은 법우는 “대불련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했지만 결과는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매뉴얼 도용이었다. 게다가 총동문회의 성과인양 홍보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종합적인 분석이 담기지 못한 결과물이 대불련 조직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54년차 중앙회장은 “총동문회에 문제제기 했지만 ‘대불련 활동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료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며 “연구결과물 배포 금지와 재검토를 요청한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대불련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적도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가득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후배들은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동문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고 역설했다.

반면 총동문회 측은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불련의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종표 사무총장은 “대불련과의 관계 속에서 그나마 약화시켜 기술한 것이다. 동문 입장에서 비난이 아닌 현 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라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논을 통해 문제점을 삭제하면 그건 분석리포트가 아닌 공동으로 책을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불련은 배포 금지를 요청했지만 총동문회는 이미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을 PDF로 제공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후배간의 다툼으로 인해 조직 화합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교인들, 사명감 갖고 성소수자 보듬어야”

사회노동위, 5월 27일 ‘성소수자 부모 초청법회’ 개최

5월 27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주최한 ‘성소수자 부모 초청 법회’서 사회노동위원 효록 스님은 성소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역할이라 역설했다. 이는 최근 일부종교가 성소수자에 대한 폄훼와 차별을 일삼는 데 대한 따끔한 일침인 동시에, 방관시해 온 불교계에 대한 자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호주 · 뉴질랜드 · 네팔 등 국가에선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을 표기하고 있다. 특히 네팔은 ‘제3의 성’을 표기한 주민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2011년 세계 인구센서스 사상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효록 스님은 “세계 최빈국 네팔도 성소수자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변화가 찾아올 거라 믿는다”며 “이를 위해선 나와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 후 중생제도 서원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은 이를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성소수자 부모 및 성소수자 10여 명과 사회노동위원 스님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불교여래종 인왕 대종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

歸依 三寶 하옵고

지난 5월 28일 입적하신 인왕 대종사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6월 1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엄숙히 봉행 하였습니다.

먼 길을 직접 찾아주셔서 인왕 대종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하여주신 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대중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인왕 대종사님의 유훈을 계승하고 받들어 여래종도 모두는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여 불법 홍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불기 2560년 6월 2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 전 종도 합장

추모재 일정

초재	6월 3일	10시	금강 대약사사
2 재	6월 10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3 재	6월 17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4 재	6월 24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5 재	7월 1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6 재	7월 8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49재	7월 15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문의 :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010-3539-4692



寺址서 국보급 통일신라 청동정병 발견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삼척 흥전리 사지서 발굴



삼척의 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정병(靑銅淨甁)이 출토돼 관심을 끈다. 대부분의 국보 · 보물급 정병이 고려시대 문화재임을 감안하면 정병의 기원시기를 한참 상향시키는 유물로 평가된다.

조계종 산하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현재 발굴 중인 '삼척 흥전리 사지'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제작이 추청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높이 약 35㎝)이 출토됐다"고 6월 2일 밝혔다.

흥전리 사지서 출토된 청동정병은 매우 희소한 통일신라 청동정병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으며, 조사를 통해 유적(흥전리 사지)과 유물(청동정병)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청동정병은 스님들이 사용하는 정수(淨水)를 담는 물병으로, 대승불교에서 비구가 반드시 몸에 지니는 십팔물(十八物)중의 하나이다. 또한 부처 · 보살 앞에 정수를 올리는 공양구이기도 하다.

청동정병은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주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신라 청동정병은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시 일부 훼손된 상태로 출토된 2점과 부여 부소산에서 공사 중 수습된 1점 등 총 3점(비지정문화재)에 불과하다.



출토 당시 청동정병의 모습. 전문가들은 "통일신라시대 정병이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고 감탄했다.

군위 인각사지 청동정병 등 기존에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이 8세기 후반경의 작품이라면, 흥전리 사지 출토품은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출토된 흥전리 사지 청동정병 2점은 국보로 지정된 고려 시대 청동정병인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국보 제92호)보다 제작 시기가 앞선다. 청자로 만들어진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연지원앙문 정병'과 보물 제344호 '청자 양각갈대기러기문 정병'도 고려시대에 제작됐다. 사실상 '한국 정병의 원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유물인 것이다.

최응천(동국대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2일 열린 발굴보고회에서 "통일신라시대 정병이 깨진 곳이나 녹슨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면서 "불교미술의 전파 루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통일신라시대 정병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현존유물 중 가장 완전 형태
국보 · 보물 정병 모두 고려代
발굴로 정병 기원 시기 상향

"정병 전래 · 기원 밝힐 문화재"
'國統' 비편도, 사지 역할 주목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발굴조사 중인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는 그간 금당지(金堂址), 탑지(塔址) 등 주요 가람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라 시대에 왕이 임명하는 승단의 최고 통솔자인 '국통(國統)'이 새겨진 비편(碑片)을 비롯하여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의 금동번(깃발) 등 중요 유물이 발굴됐다. 이는 흥전리 사지가 당시 매우 위세가 높았음을 증명한다.

청동정병 2점의 보존처리와 정밀분석은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미술사적 연구를 통해 유물의 가치를 규명하고 청동공예의 양식적 변천 과정 등을 밝혀내는 연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 사지를 포함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 사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수 스님 소신공양 '6년' … "대자비 기억"

조계종 사회부 등, 5월 31일 '6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죽어가는 강과 생명들을 지켜내고자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그 뜻을 널리 기억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사회부와 문수스님선양사업회는 5월 31일 조계사 대웅전서 '문수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 스님 및 불자들이 모여 문수 스님을 추모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군 위천 제방서 4대강 공사 중지를 위한 소신공양을 결행, 세납 49세, 법납 25년으로 입적했다. 이날 범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문수 스님이 보여준 대자비심을 이어 받아, 생명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삼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100일 순례길을 걷고 있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5월 31일 6년 전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위천둑을 찾아 추모재를 봉행했다. 불교환경연대가 하루 전부터 과일과 밥, 탕국 등을 정성으로 마련한 자리에는 상임대표 법일 스님, 운영위원 중현 스님, 공동대표 행법 스님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서 50여 명이 참석해 문수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불교환경연대는 60일째 4대강 살리기 100일 순례길을 진행 중이다. 순례단에는 상임대표 법일 스님, 운영위원 중현 스님, 공동대표 행법 스님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장 수암 스님이 문수 스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콘텐츠 다각화로 세상에 佛法 밝힐 것"

월간 불광, 500호 발간 기념식서 향후 비전 발표

월간 '불광(발행인 지홍)'은 오는 6월 500호 발간을 앞두고, 5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500호 발간 기념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는 발행인 지홍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축사, 불광 비전 선포, 법공양 후원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홍 스님은 "사사로운 이윤이 목적이 아닌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겠단 목표가 있었기에 한 길로 걸어올 수 있었다. '소리 없는 깃발'이 되길 바라며 '불광'을 창간하셨던 광덕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이 미래를 향한 거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축했다.

아울러 이날 월간 '불광'은 500호 기념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콘텐츠 전달의 다각화 △불교와 대중의 연결 강화 △불교 안팎 경계서 생각하고 실천하기 △불교 가치 구현의 허브 역할 등의 다짐이다.

박아름 기자

"이웃과 더불어 행복 누릴 수 있는 길 열어주셨다"

천태종, 6월 2일 상월원각대조사 42주기 추모대재
정관계 인사 등 2만여 대중 참여 추모 열기 '후끈'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리고,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6월 2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42주기 추모법요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의 지극한 가르침과 자애로운 미소는 우리 종도들의 마음 속에 밝게 빛나고 종단의 모든 도량을 장엄하는 밝은 거울로 빛나고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이 복잡한 세상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며 "열반 42주기를 맞아 천태종 종도는 물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민 화합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종규 천태종 중앙신도회장도 "오늘이 추모 법석은 대조사님의 원력을 되새기고 가르침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자리이며, 대조사님의 덕화를 더욱 널리 전하는 발원의 자리"이라며 "천태불자들은 이 가르침을 더욱 경건히 봉대해 중생계가 연화생으로 될 때까지 3대 지표를 삶의 바탕으로 삼고 주경야선의 종풍을 흐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회정 정사,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 김무성 · 이헌승 · 오영훈 · 권석창 · 이철규 국회의원, 류한우 단양군수, 한광수 금강대 총장,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이 동참했다.



6월 2일 단양 구인사서 열린 추모법요식 모습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템플스테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5월 31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템플스테이 발전과 홍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문화사업단에 템플스테이 체험서비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템플스테이 사찰은 백담사 · 심원사 · 영평사로 각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곳이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는 데 있어 학교를 비롯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정양호 청장은 "문화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이용하는 데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제1회
법계문학상 공모

불교문학은
부처님 사상을 세상에 널리 펼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운문승가대학을 세계 최고의 비구니 전문
교육기관으로 키워 오신 명성스님의 원력에 의해
우수한 불교문학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계문학상이 제정되어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장편소설, 장편동화
시상내역 대 상 상금 1천5백만원 및 상패
우수상 상금 5백만원 및 상패
가 작 상금 3백만원 및 상패 (각 1명)
작품마감 매년 10월 31일
응모작품 장편소설(200자 원고지 1천매 내외)
장편동화(200자 원고지 5백매 내외)
응모자격 신인 및 등단 5년 미만
응모방법 1.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 A4 용지에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 (불교문학에 대한 작가의 소신)
3. 작품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1101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모문의 문의 070-8880-8202, soosun1@naver.com, 팩스 0505-361-9565
시상일정 매년 12월 초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법계문학상

일 주 문



만해예술제

법진 (재)선학원 이사장 스님은 6월 1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만해예술제를 개최한다.



법화종 창종 60주년 법회

도성 한국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스님은 6월 14일 오전 11시 통영 안정사에서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佛무형문화재실무위원장에

주경 스님은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제25차 의례위원회 회의에서 불교무형문화재실무위원장에 선임됐다.



설법전 개금불사 점안식

덕일 서울 길상사 주지 스님은 6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올해의 이화인상

강영화 부산 옥련선원 합창단 지휘자는 5월 3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올해의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화촉 현대불교신문 노덕현 기자가 6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더라빌(구 웨딩의전당)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부 문상은 양과 화촉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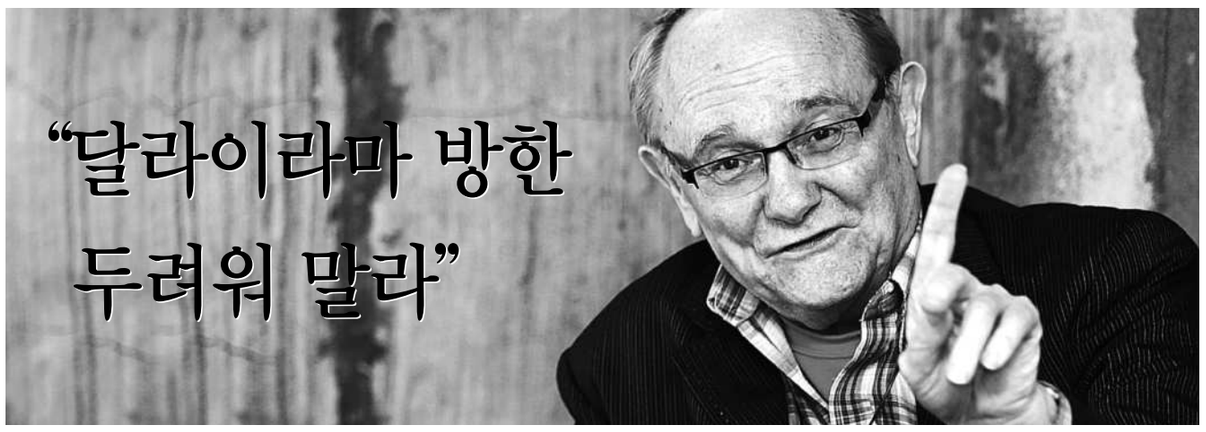


의왕 청계사 제7회 연꽃문화제

사단법인 동련 서울경기지구(회장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는 5월 29일 제7회 연꽃문화제를 청계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 화계사 · 수국사 · 청계사 · 용화사 등 서울 및 수도권 사찰 어린이와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로 마음속의 불심을 표현했다.

성행 스님은 "어린이포교는 그야말로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대작불사"라며 "아이들이 보다 친근감을 갖고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Interview

제프리 홉킨스 美버지니아대 명예교수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 활동 격려
"정치적 사안 아냐, 中 관여 어리석어"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달라이라마는 정치가가 아닌 심오한 학자이자 철학자, 사상가이다. 중국정부가 자신들의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소란 외에는 달라이라마가 중국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국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지식인에게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프리 홉킨스 美버지니아대 명예교수〈사진〉는 6월 1일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며 한국인과 불자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홉킨스 교수는 "달라이라마가 방문하는 나라에 중국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며 "달라이라마가 방문한 나라에서 이야기한 것도 자비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달라이라마 방미 당시 미국 내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달라이라마를 미국정부 초대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의 환생이라고 보는 것처럼 여겼고 정치적 문제도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중국정부의 반대도 있었다. 이에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탈출을 도왔던 미국정부 역시 방문을 제한하고 있었다"면서 "달라이라마 방미 성사를 위해 몇몇 정부 인사들은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지는 등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또 "카터정부의 실세인 버진스키는 달라이라마가 미국에 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6개월 후라고 했다. 즉 중국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개월 동안 우리는 방미 준비를 했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홉킨스 교수는 불교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 활동에도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그는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은 불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세계적인 종교지도자가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방미 추진 경험에 따르면 달라이라마 방한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호적인 이들의 리스트를 확보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홉킨스 교수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있었던 인연담도 소개했다. 그는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16권의 책을 펴냈다.

그는 "1972년 인도 다람살라에 실질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 갔다. 많은 티베트 학자들이 교학체계를 분류해 도와주었다. 그 중 달라이라마는 한 종파나 교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교학체계를 기반으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를 감복시켰다"고 인연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행사로 현충재 지속발전"

14년째 현충재 이어온 능화 스님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현충재를 14년간 이어오는 이가 있다. 바로 범패와 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올해도 6월 6일 인천 수봉산 현충탑 광장에서 현충재를 열었다. 올해 현충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기념우표전시가 함께 진행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동안 공연사진을 우표로 제작했다. 우체국으로부터 소인 받은 것으로 매년 개최해 온 현충재와 함께 보존회가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우표로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앞으로 학생 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도 꿈꾸고 있다. 60종의 엽서를 활용한 전시와 현재 스님이 불사 중인 범패박물관을 활용한 교양 교육이 그것이다. 범패박물관은 스님의 주석처인 구양사 2층에 위치한다. 박물관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어린이를 위한 글짓기대회도 준비 중이다.

스님은 "현충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지역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문화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 기업, 미얀마서 횡포 심각"

미얀마 노동운동가 뚜레인 아웅



"미얀마인들에게 무슬림 신자인 인도인이 건립한 공장에서 일하겠냐, 불자 한 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인도'라고 답합니다. 이유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5월 25일 불교계 국제구호 NGO 하얀 코끼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얀마 노동운동가 뚜레인 아웅〈사진〉 씨는 6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불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오전 8시에 과업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근무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 기업도 있으며, 노조를 만들자 지도부 15명을 모두 해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입니다. 국제 노동기준 체제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형제 나라 미얀마에 한국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뚜레인 씨는 한국 내 노동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불교 단체들에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종단총연합회 신임회장단 임명

회장 회암 스님, 부회장 법장 · 정일 스님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회장 회암)는 5월 30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양 불탑사에서 신임 회장단을 임명하고, 불탑사 천불전 · 박물관 낙성식, 종정 의륜 스님 고희 및 출판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의륜 스님, 총연합회장 회암 스님, 총재 대원 스님, 수석부회장 법장 · 정일 스님, 운영위원장 원각 스님, 실무의장 법천 스님, 사무총장 산수 스님, 의륜문도회장 혜명 스님, 동해사 주지 무일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법천 스님 사회로 시작됐다. 법장 스님의 상축문 낭독과 세계불교조계종 현성 스님 대회사에 이어 신임회장 회암 스님(본조계종 종정)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문화 중흥을 위한 연합회 역할이 막중하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난제들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 총재 대원 스님, 법상종 前 종정 담은 스님의 격려사와 자비종 해광 스님 · 근본해동종 정일 스님의 축사, 사무총장 산수(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답례사, 동해사 주지 무일 스님의 발원문을 끝으로 법회가 마무리됐다. 윤호섭 기자

삼론종, 호국영령천도 수륙대재

5월 28일, 자비쌀 800kg 기부도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지민)은 5월 28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 순직한 유무정의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종단 수륙대재를 서천 금강하구둑서 봉행했다.

종단 수륙대재에는 종정 혜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민 스님, 승정원 혜공 · 향운 · 지운 · 해불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경 스님, 사정원장 명산 스님, 포교원장 명재 스님, 교육원장 남륜 스님, 수선원장 지화 스님, 문화원장 지향 스님, 내빈과 불자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혜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동참한 불자들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했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생활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고 당부했다.

지민 스님은 봉행사에서 "삼론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을 위해 천도재를 마련했으니, 불자들께서는 호국영령 천도와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수륙재 봉행 후 삼론종은 서천군에 자비의 쌀 800kg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오욕의 세월 넘어 '환골탈태' 준비 중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 보수 어떻게 진행되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을 맡고 있는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가 5월 27일 열린 '문화재 보존처리 생생 데이' 에서 복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문화재가 있을까. 일제 강점기 불법 반출돼 조경석으로 떠돌다가 6.25 전쟁 때는 폭격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이야기다. 현재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돼 지난 3월 22일 해체 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이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 보수 현장이 일반에 공개됐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규식)는 5월 27일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생생(生生) 보존처리 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 보수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담당 학예연구사로부터 탑의 역사와 피해 상황 · 향후 보존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피폭' 塔 옥개석, 1만 2천 조각나

지광국사탑이 해체 보수라는 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알려면 문화재에 담긴 애사(哀史)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9세기에 창건된 원주 법천사지에 1085년 세워진 지광국사탑은 빼어난 조형미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자 수난을 겪기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탑을 매입한 주인은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로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된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암으론 2~3기, 와병 중인 塔

지광국사탑의 해체 보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본관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0t에 달하는 탑의 부재가 33개 부분으로 해체돼 하나하나 보존 수리가 준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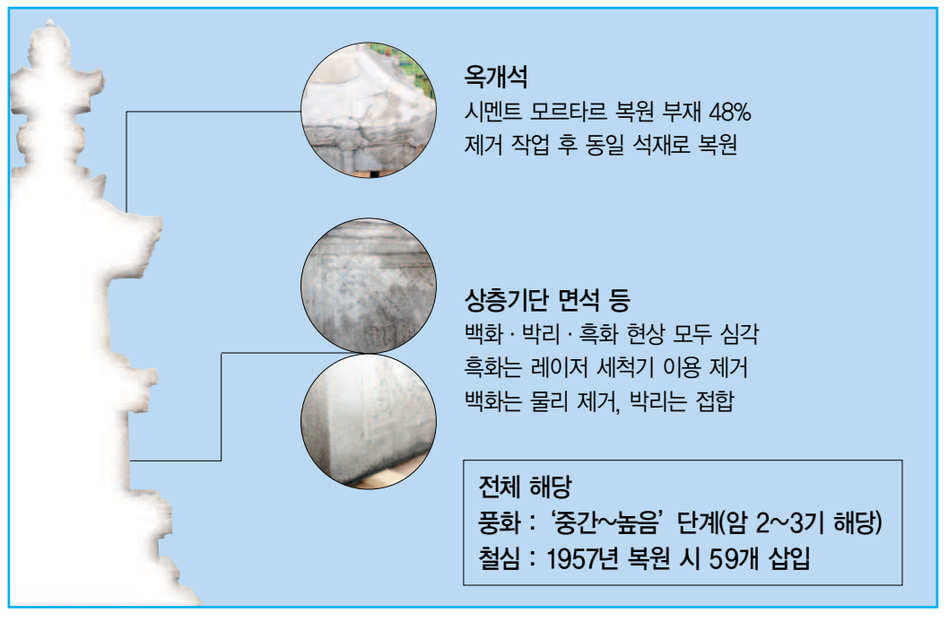
연구소가 밝힌 탑의 피해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는 상황이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 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간으로 따지면 암 2~3기에 해당된다. 또한 육안으로 봐도 백화와 흑화 현상이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 · 박리 · 생물 피해 · 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석탑 복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태종 학예연구사는 "현재 지광국사탑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이유는 폭격 피해를 입었던 것과 이후 복원부재로 시멘트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면서 "1957년 당시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해 복원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지만, 50년 정도가 지나면 시멘트 자체에서 중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했다.

지광국사탑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존처리 생생 데이서 일반 첫 공개

폭파됐던 상륜부 · 옥개석 피해 심각

시멘트 모르타르 전체 점유 10%

복원 위한 철심 58개가 박혀 있어

풍화 · 백화 · 흑화 · 박리 수습 필요

모르타르 · 철심 제거가 주요 관건

시멘트 제거 後 동일 부재로 복원

흑화는 레이저 세척 후 물리 제거

이에 따르면 시멘트가 중성화가 시작되면 백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멘트 중성화로 염(鹽)이 생겨 노출되면 결정화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염의 체적(부피)은 300%가량 높아지고, 암석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를 '박리' 현상이라고 부른다.

백화 현상 뒤에는 흑화 현상도 진행된다. 백화현상을 만들어낸 탄산칼슘은 '다공성(多孔性)' 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오염물의 흡착이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백화 현상이 진행되면 박리와 흑화현상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피해인 것이다.

복원 최고의 난제, 시멘트 제거

지광국사탑 복원은 2019년까지 이뤄지는 장기 사업이다. 현재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세척 작업과 시멘트 모르타르 상태를 진단 중에 있다.

오염물이 흡착된 탑의 부재를 세척하는 데는 레이저가 사용된다. 인간 피부에 나타난 점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사용하는 레이저 세척기는 오로지 검은색에만 반응해 부재의 흑화를 손쉽게 제거한다.

이 학예연구사는 "흑화된 부재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경우 암석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하면 별 다른 손상없이 흑화를 제거할 수 있다"면서 "백화 현상은 상태가 무르기 때문에 붓으로 제거하며, 박리는 접합제를 사용해 붙이는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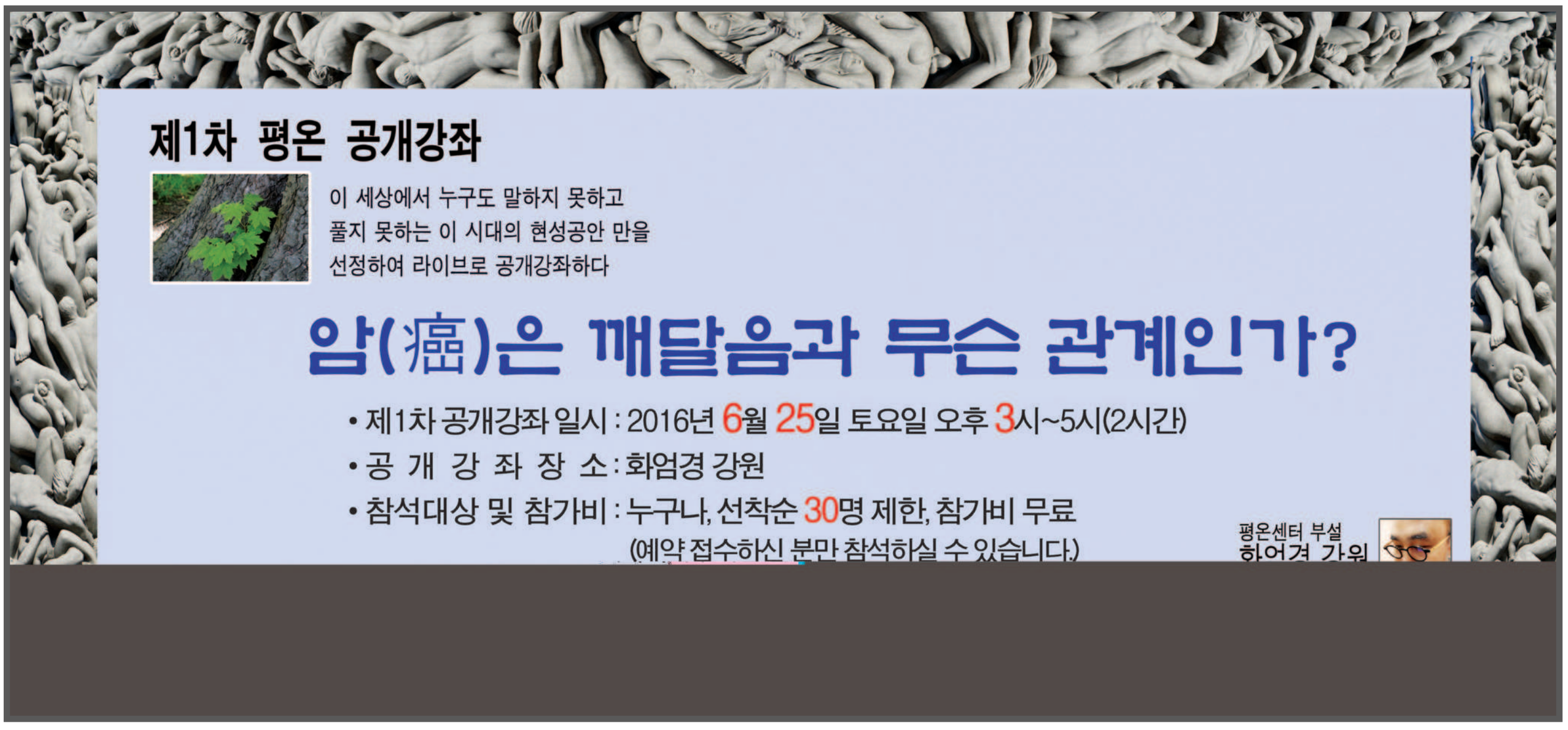
복원 중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탑 복원 부재의 10%, 옥개석에만 48%가 사용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는 부분이다. 모르타르 제거와 복원은 2017~18년에 걸쳐 이뤄진다. 당장 2017년에는 모르타르 제거 부재 선정과 결실부재 모형 제작이 들어가며, 2018년에는 동일 부재를 찾아 복원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 학예연구사는 "폭탄을 맞았을 때 탑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내부 균열이 있을 것"이라면서 "모르타르 제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공법적으로 완전 제거도 가능하나 암석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어디까지 제거하고 동일 부재를 선정해 복원해야 할지는 최대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동일 부재 선정에 대해서는 "화강암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암석"이라며 "감마 스펙트럼 등의 과학 기법을 통해 동일 마그마에서 형성된 암석까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해부터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공개 설명하는 '문화재 보존처리 생생데이' 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여름과 하반기에 걸쳐 추가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성민 기자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도 心 돌아봐요”

불교아동교육연구소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포교원 첫 인증

심화 · 1박2일 단기 구성
알아차림 명상 체험하고
그림 그리며 느낌 나눠
“교육현장에 도움 될 것”

청소년들의 심성계발을 위해 2012년 시작된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인증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소장 이수경)가 개발한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는 5월 31일 열린 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계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명상과 예술놀이를 통한 교사 인성교육’을 부제로 하고 있어 포교원 측은 그간 청소년에 집중됐던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는 심화프로그램(30시간)과 1박2일 단기프로그램(15시간)으로 나뉜다. 마음을 돌아보는 데는 명상과 예술놀이를 활용한다.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에 집중하고, 사람 · 자연과의 관계를 되새겨 소중함을 일깨운다. 또한 각 단계별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 넣으며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사들을 위해서는 갈등 재연하기(역할극) · 교실의 안전장치 만들고 소속감 느끼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수경 불교아동교육연구소장은 “2011년부터 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명상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과 틱낫한 스님의 〈마음정원가꾸기〉를 조화롭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일선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포교원은 앞으로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듬고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경 소장은 “좋은 교사는 아이들 내면의 지혜와 통찰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교사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조화로운 인성을 갖게 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참가자들이 경주 금장대에서 알아차림에 집중하기 위해 요가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포교원은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외에 ‘직장인을 위한 자비선명상(자비선사)’과 ‘자기변형을 위한 그림자통합(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등의 사업도 보완을 거쳐 재심의 할 예정이어서 인증 프로그램 확대 전망이 밝은 편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포교원 인성교육계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청소년 10분 명상(금강선원)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봉인사) △한나무 인성교육(한마음과학원) △청소년 힐링캠프(행불선원) △꿈 사리(백담사) △청소년 활동명상(올리브명상상담센터) △EGG 깨뜨림(자비명상) △부모님 감사합니다(직지사) 등 9개다. 이를 바탕으로 포교원이 실시하는 국고사업 ‘청소년 마음등불’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윤호섭 기자**

“모든 세대 아우르는 문화축제 되길”

혜원정사, 6월 11일 혜원문화축제 개최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6월 11일 경내 앞마당 특설무대서 혜원문화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눈길을 끈다.

먼저 1부 ‘제19회 혜원백일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백일장 주제는 시대 상황 · 계절 등의 내용으로 총 4개 주제가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 초 · 중 · 고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지 원허 스님은 혜원백일장에 대해 “핸드폰과 현대문명으로 사라진 청소년들의 손 편지 문화가 안타까워 처음 시작했다”며 “11회 때부터는 교육부 장관상 등 여러 상을 제정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심사위원의 심도 깊은 평가는 아이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2부 ‘제15회 혜원음악회’는 오후 6시 시작되며, 가수 이은미, 아웃사이더, 홍진영 등 화려한 출연진이 마련돼 있다. 특히 아웃사이더는 성전 스님과 함께 행사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끈다. 이는 일반적인 공연 형식서 벗어나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광개토사물놀이단과 관무용단의 전통문화공연은 세대를 폭 넓게 아우르는 무대로 장식될 예정이다.

주지 원허 스님은 “혜원 정사는 도심 포교 사찰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며 “오늘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은평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실시

6월 24일 오후 2시 관내 1층서… 사전접수 要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경제적 어려움 혹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무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권형운 서울시공익법무사가 맡았으며, 각종등기 · 민형사 · 가압류 · 파산 · 가처분공탁 · 면책 · 경매 · 가사 등 법률 사무 일체 관련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관내 1층 상담실서 진행된다. 문의 (02)385-1351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 제9회 희망걷기대회 개최

6월 11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11일 ‘제9회 생명존중 · 희망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서 시작되는 걷기대회는 남산공원 북측순환로로 이어지며, 각 구간별로 온기 나눔의 길, 포옹하기, 묵언의 길 등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만해광장에는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부스, 만다라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희망부채 만들기, 단주 만들기, 명상,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등 체험 부스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걷기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증정되며, 폐회식서는 문화공연 및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경품은 노트북, 아이패드, 인바디밴드, 자전거 등이다. 문의(02)734-8050 **박아름 기자**

네팔 지진피해 학교 복구사업 ‘순항’

지구촌공생회, 분황초교 준공 및 홍연초교 기공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의 ‘네팔 지진 장기복구 재건사업’이 순항 중이다.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20일 네팔로 출국, 스리나와두르가 분황초교 준공식 및 스리타나반장 홍연초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25일엔 신두팔촉 지역 타나반장 마을서 홍연초교 기공식을 열었다. 홍연초교는 지진 이후 학교가 붕괴돼 4개월 동안 수업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임시 양철 교실서 120여 명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기존 1동을 보수하는 한편, 교실 4칸짜리 1동을 신축해 300여 명 수용 가능한 학교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내년 1월 완공 목표다.

세르바들 따망 지역 국회의원은 “많은 NGO 단체들이 떠났지만 지구촌공생회는 무너진 학교를 세우겠단 약속을 끝까지 지켜줘 감사하다”며 “10년 뒤 이 학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1등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23일엔 룸피니 지역서 분황초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학교가 위치한 스리나와두르가 마을은 불가촉천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지역 아이들은 차별과 극심한 빈곤 속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살아왔다. 이에 150여 명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지고 못한 채 쌀 포대를 깔고 앉아 수업을 받아왔다.

분황초교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익명의 불자 2명이 1억 4,500만 원을 기부하며 건립됐다. 익명의 후원자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출신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이 진흙 속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황’이란 교명을 지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후원자들은 이밖에도 네팔 산골학교 건립 시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23일 룸피니 지역서 분황초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 옷을 입은 분황초교는 7칸 교실을 갖춘 건물 1동과 화장실, 도서관, 식수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네팔 지진 장기복구 재건사업 일환으로 2016년 내에 신두팔촉 지역에 8개 학교를 건립할 목표를 세웠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사의 회향처는 불자 인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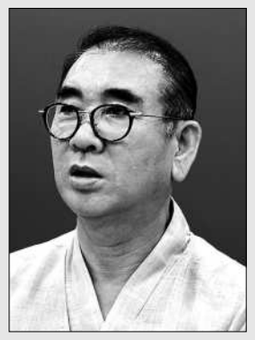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 인터뷰

“부산불교문화원 불사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회향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다.”

6월 1일 부산불교문화원 4층 고타마 카페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김광호〈사진〉 원장은 부산불교문화원 불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어린이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밝혔다.

부산불교문화원은 부산 남산동 해암빌딩에 위치해있다. 4층에는 초현대적 감각으로 꾸민 강의실과 불룸청소년힐링센터, 쉼터 고타마 카페 등이 있으며, 5층엔 법당과 사무실이 있다. 특히 옥상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김 원장은 “한국불교의 답은 어린이다. 여러 불사를 마무리 한 이 시점에 어린이 포교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며 “또한 지역민을 아우르는 문화복합공간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문화원은 현재 어린이 법회 보리수초등불교학교, 성인을 위한 보리수불교대학, 태영 장학회, 블룸청소년힐링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하성미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6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7월 1일(금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관념 깬 불교건축, 生生하여라!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불교건축의 위대한 성취'

김개천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적과 같다. 특히 과거 한국불교가 추구한 건축양식은 고정돼 있지만 시선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조화를 중시했다. 그렇기에 한국불교 건축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여여한 모습으로 대중과 호흡한다. 김개천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는 5월 30일 열린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에서 "불교는 본질적으로 믿는 것을 갖지 않기에 존재적 삶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며 "한국불교 건축은 고정된 상식이 아닌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김개천 교수는… 동국대 선학과에서 동양철학과 선사상을 전공했다. 〈명묵의 건축〉 〈미의 신화〉 〈선의 건축미학에 관한 연구〉 등 한국 미(美)의 조형사상과 현대건축 사상에 대한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근정포장, APSDA EXCELLENT AWARD, RED DOT DESIGN, IFI AWARD를 수상했다.

오늘은 한국불교 건축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불교건축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룬 건축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추구한 美

우리나라 미인도 중 가장 대표적인 신윤복의 〈미인도〉는 유가(儒家)적 그림을 설명하기 좋은 예시입니다. 사실 동아시아 주요 종교인 유, 불, 선은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발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닌 하나로 체화하는 형식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구체적 체화 방법에서 종교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미인도'를 보면 그린 것은 별로 없이 배경과 얼굴이 비어 있습니다. 유가에서는 리(理)를 무형과 무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형은 형태가 없다는 뜻이고, 무짐은 조짐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불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무형하고 무짐하긴 하지만 여인의 기품, 품위, 인품 등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린 것 없이 여백으로 이루어진 그림인데도 그 인물됨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가가 이룩하려던 지극한 아름다움의 경지였습니다.

한편 수묵화는 불교적 그림입니다. 텅 빈 산에 물이 흐르고, 꽃만 펴있다는 내용의 시가 적힌 수묵화는, 설명답게 사람도 없고 사실 꽃이나 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공적한 그림으로, 글로써 정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흔적'처럼 사물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저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받습니다. 구체적 형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불교적 아름다움의 형식입니다.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시한다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체적인 관념을 갖지 않은 상태가 더 자유롭고,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려불화들은 거의 다 비슷한 형식입니다. 공통된 특징은 옷과 피부 등을 투명하게 표현해서 아주 얇고 가늘게 대상이 존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마치 부유하는 듯해서 계속 흔들리는 것 같고, 따라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효과를 냅니다. 없는 듯 느껴져 쳐다보기만 해도 신비스런 영역을 느끼게 합니다. 왜 고려불화를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그림을 단지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엄불교의 철학이 건축에는 어떻게 투영될까요? 투명하고, 화려하고, 부유하는 듯 아주 가볍게 존재하면서 신적 경지를 불러일으키는 건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지' 하며 '생동' 한다

일단 조각을 예로 들어서 이해를 넓혀 보겠습니다. 태종무열왕릉비에 새겨진 용의 모습을 예로 들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신라를 통일한 강력한 왕으로, 당시 신라는 문화적으로도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비석에 조각된 여섯 마리의 용들은 마치 멸치처럼 빼빼하고, 서로 딱 붙어서 머리를 모두 땅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측면에 몸통을 보면, 팔이 아주 심하게 꺾여 몸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지할 수 없는 형식으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용 중에서 이보다 '정'과 '동'이 완벽히 발현한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으로 치면, 저는 불국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국사는 정면에서 쳐다보면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양도 대칭이 아닙니다. 불국사에서 유일하게 똑같은 두 개의 누각(범영루와 좌경루)조차 아래 석조기둥을 다르게 조각했습니다. 좌경루의 기둥은 팔각형으로 단순하지만 범영루는 마치 허리가 잘록한 항아리 모양처럼 조각을 쌓아 올렸습니다. 심지어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펼쳐지는 풍경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볼 땐 양 옆에 계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칭형이지만 가까이 진입하면 양 옆의 건물은 안보이고 대신 중앙 계단이 하나 있는 자하문 한 채와 양 옆에 두 개의 누각만 보입니다. 고정적이고 완전한 형식이 아니라 있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건물입니다. 불교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형식은 완전하고 영원한 형식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도 '관계맺음'이라는 측면에서 무수히 변화하는 인드라망 같은 형식으로 설명 가능하듯이, 불교에선 건축 역시 완전하고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는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형화된 형식 버리고,
본질에 충실하니 生動
무수한 변화 포용하며
주변과 조화 이뤄내

다음은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입구에 서 있는 비문에 '영축산 통도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영축산은 인도에 있는 영산회상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통도사는 일주문을 들어서고 나서도 약간 곡선으로 뻗어 있는, 전나무 빽빽한 길을 걷도록 방문객을 인도합니다. 아마도 사찰 입구에서부터 영축산 초입에 들어온 느낌을 조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통도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 문을 열면 너머로 진신사리탑이 보입니다. 혹자들은 통도사 대웅전에 부처님이 없다고 하지만, 대웅전 문을 열고 보이는 어린 연꽃잎 모양의 진신사리탑을 보면 저는 그곳에 부처님이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인도 영축산에서 범왕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바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들어보이자,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의 순간! 아마 방문객 중 가섭존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어린 연꽃탑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저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건축이 이룩한 이토록 큰 종교적 희열이 있을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신사리의 가치를 넘어 진신사리의 주인을 살아있도록 만드는 초월적 경지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움 여부를 떠나, 통도사는 부처님을 살아있게 만든 공간이 됐습니다.

우주 본연 닮고자 한 건축

한국불교 건축물을 살펴보면 '생동한다'는 점 이외에도 비정형적 형태를 통해 '우주 본연'에 충실하고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목적으로 고정시켜두고, 이외의 것들은 구분해서 배척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본질적으로 믿는 것을 갖지 않기에 존재적 삶에 충실할 수 있게 합니다. 무종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건축 중에는 고정된 상식에 입각한 것보다는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들이 엿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이 없나 생각해보니 '해인사'가 떠올랐습니다. 해인사 일주문은 들어서는 길이 U자 모양으로 살짝 위로 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형식인데, 마치 '곡불장직(曲不藏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인사의 장경각전은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팔만대장경을 모셔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돌을 깔거나 장식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햇빛이 바닥을 비추게 하려고 한 듯 바닥에는 빛만 비치고, 위로는 처마의 그늘이 어둠처럼 깔려있습니다. 내부를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검박해 보입니다. 여기서 '검박'이란 말은 단순히 검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의 본연과 일치한 정도를 이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바닥에 빛의 양탄자가 깔린 듯, 창살로 인해 빛의 그림자가 깔린 듯, 빛을 밟으면서 흙길을 걷게 하는 이렇게 무던하고 덤덤한 건축이 과연 팔만대장경 판각을 모시고 있는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감탄하게 됩니다. 부석사의 안양루도 그러합니다. 큰 지붕이 뒤에 있는 산을 다 가려 오직 하늘만을 거느린 이 건축물은 마치 초라해 보이기로 작정한 듯 빈약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는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안양루 정면에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범종각 또한 뒤쪽에서 본다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마치 화장실 건물처럼 말입니다. 건축에는 반드시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웅장한 지붕은 화엄정토를 표현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봤을 땐 건물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려는 형식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자연을 건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선(線)을 보는 듯 특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오히려 주변과 합쳐져서 빛이 납니다.

제가 건축한 '정토사'에도 이러한 정신을 담았습니다. 외관은 시멘트로 발랐고, 정교하거나 혹은 너무 투박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시공자가 마음대로 시공해도 괜찮았습니다. 내 의지를 벗어난 형식이라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축은 조금만 형식에서 벗어나도 불편해집니다. 제 건축물이 큰 포용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길 바랐습니다. 뒤에 있는 산이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선'의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창살 틈으로 산의 그림자를 허락했습니다. 촘촘한 창살 사이로 산의 그림자가 벽을 꾸며주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시야를 돌리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통 부처님 자리에는 연꽃 조각으로 장식을 하는데, 제 눈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모습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통을 계승만 해 나가기보다는 이 시대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연꽃을 조각하는 것으로 '꽃비'를 얘기했다면 저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꽃비를 형상화했습니다. 빛에 의해 계속 바뀌는 그림자를 그대로 비춰서 매시간 바뀌는 문양을 드러내는 바닥을 표현했습니다. 정토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은 특별할 것 없는 건물이지만 주변을 자신의 것으로 포괄하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것이 단지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 표현법이란 시대정신을 담아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변의 어떤 소리에도 물들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해, 저절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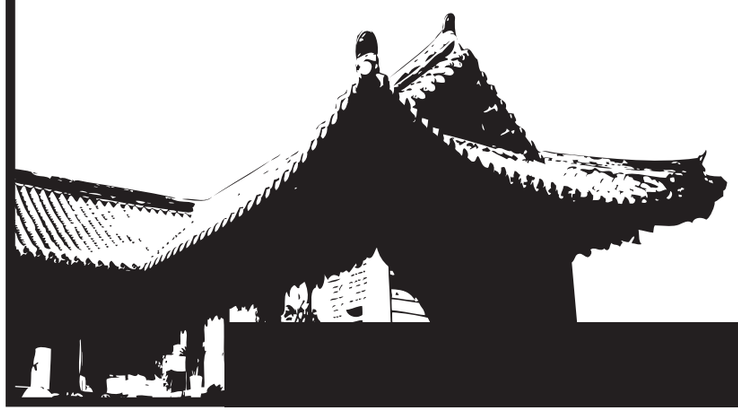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경남 고성 옥천사엔 어떤 유산이 있을까

동북아불교미술硏, 18일 학술대회

천년 고찰 고성 옥천사의 문화유산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경남 고성 옥천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선일(문화재청) · 조태건(불교문화재연구소)의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과 조각승 경옥 △김요정(충북대)의 옥천사 목조불패 연구-재질과 제작연대를 중심으로 △김희경(한국고미술감정연구소)의 옥천사 나한전 십육나한상 제작자 추론 △김정원(불교문화재연구소)의 옥천사 조선후기 석조부도 연구 등이 발표된다.

옥천사는 현재 쌍계사의 말사로, 670년에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웅전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옥천사는 중국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의 시조 지엄(智儼)에게 화엄학을 배우고 돌아온 의상이 강론한 곳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 박사 논문 번역 지원 사업 공모

지원사업회, 6월 20~25일 접수

소장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해온 (사)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2016년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공모사업은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과 불교관련 번역 지원 등 2개 분야다.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분야는 지원자 중 2명을 선발해 500만원 씩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학위 취득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번역 지원 분야 역시 2명에게 지원되는데 인도 쪽과 동아시아 쪽 서적으로 나눠 1,000만원 씩 2,000만원을 지급한다.

박사학위 논문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박사학위논문 전자 파일(아래아 한글 혹은 PDF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PDF 파일의 경우 원 논문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논문 두 가지로 접수해야 한다. 번역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는, 번역계획서 및 번역 원고 1부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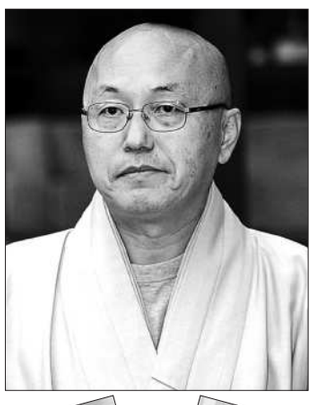
접수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간이다. 심사결과는 9월 중에 개별통지하며 불교계 언론에 공고된다. (010)8789-3083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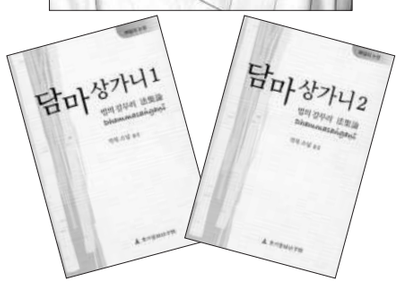
"초기 논장엔 '제법실상' 이치 담겨"

〈諸法實相〉

〈담가상가니〉 2권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빠알리 칠론 중 첫째 논장 '법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 방대한 주석 · 해제 이해도와





부처님 원음을 담아낸 초기불교 핵심 경전인 4부 니까야를 완역했던 초기불전연구원이 4년만에 빠알리 논장의 번역서를 발간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사진〉은 6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기불교 당시 교단의 법의 논의를 담은 〈담마상가니(法集論, 법의 갈무리)〉 번역서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담마상가니〉는 빠알리 논장(아비달마 비따까)의 칠론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논서로, 한국에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빠알리 삼장과 주석서 원전에 대한 한국불교의 이해를 보여준 것이며,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묵 스님이 1년 6개월의 칩거와 노력 끝에 2권에 걸쳐 완성된 〈담마상가니〉는 매우 친절한 번역서다.

2권의 한글 완역본은 논의의 주제를 뜻하는 '마띠까'와 제1편 마음의 일어남, 제2편 물질, 제3편 간결한 설명, 제4편 주석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사실 원전의 분량은 230쪽 남짓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각주가 달렸고, 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친절히 정리한 역자 서문과 각 권에는 해제가 별도로 붙었다. 실제 1권에는 840개, 2권에는 485개의 주해가 달렸으며, 전체 책 분량만 1250쪽에 달한다.

서문과 해제 역시 쉽게 풀이돼 꼼꼼히 읽어 내려간다면 〈담마상가니〉와 빠알리 논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번역은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았지만, 각주와 서문, 해제를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각묵 스님의 설명이다.

이번 번역서에 대해 각묵 스님은 "논장은 법의 전문가가 돼야할 승가를 위한 전문적인 가르침"이라며 "〈담마상가니〉에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가 담겨 있다. 법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은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말라' 고 했다"면서 "현재 한국 승가는 법이 아닌 재물의 상속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선적으로 법에 대한 연구를 승가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장 즉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직설임을 주장했다. 각묵 스님은 "흔히들 아비담마는 제자들이 정리한 체계라는 인식을 하지만, 〈담마상가니 주석서〉는 율장과 경장의 증거를 통해 아비담마가 부처님의 즉설임을 증명한다"면서 "〈담마상가니〉도 1, 2, 3편은 부처님의 직설이며, 4편 주석이 상수제자인 사리풋타 존자의 설명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인쇄 문화 상징 '고판화' 연구단체 창립

세계고판화協, 5월 30일 창립 초대회장 한선학 관장 추대 5개국 6개기관, 30명 참여



5월 28일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 세계고판화문화축제에서 동아시아 5개국 고판화 전문가 30여 명은 '세계고판화연구보존협의회'을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시아 인쇄문화의 꽃인 '고판화'의 중요성을 연구 · 보존하기 위한 협회가 발족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28일 제7회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에 참여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등 5개국 6개 기관의 관계자 30여 명의 발의로 '세계고판화연구보존협의회'가 창립됐다"고 5월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동아시아 고판화 4,2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과 한국고판화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외에서 중국 무강년화박물관과 일본의 교토 운소도와 리치메이칸대학아트리서치센터, 베트남 동호판화제작소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의 명예회장으로는 중국 고판화의 권위자인 보송년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으며, 초대회장에는 한국의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이 추대됐다.

협의회에는 강문언 중국 천진미술학원 교수, 이이쿠치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 나가이 나라대 교수 등 해외 고판화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과 참여연구자들은 앞으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학술지를 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나라별로 순회하면서 고판화 특별전도 연다.

특히, 고판화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 명주사고판화박물관과 중국 무강년화박물관은 매년 교차 전시회와 축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중국 무강년화박물관에서 한국 고판화 특별전이 열린다.

초대회장에 추대된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동아시아 고판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소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협의회를 유네스코 산하 비정부기구(NGO)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제종교장 결집 어떻게 진행될까?

고려대장경硏, 11일 교장 결집 사업 4차 보고회



중국국가도서관에서 교장을 조사중인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들.

고려 교장 결집사업을 추진 중인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가 조사 ·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는 6월 11일 오후 1시부터 경남 안의 책박물관 '고반재'에서 '고려 교장 결집과 DB구축 사업' 4차 조사보고회를 개최한다.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총람의 기초 : 전존 현황과 통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학술발표는 서대원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신편제종교장총록〉소재 장소(章疏)의 불교학적 가치와 의의(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신편제종교장목록〉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김성수 청주대 교수)가 발표된다.

이어 2부 학술발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2015년 한 · 중 · 일 소재 교장(敎藏)의 서지(書誌) 조사(남권희 경북대 교수) △ 교장의 서명(書名)에 대한 시고(試考) : 지자 대사 저술(智者 大師 著述)를 중심으로(서대원 충북대 교수) △〈신편제종교장목록〉의 대교(對校)와 교감(校勘) 연구(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대장경의 주석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목록집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일반적으로 아직도 속장경으로 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교장은 '고려제종교장'이 바른 이름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종교장을 결집하고 DB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학술조사보고회가 열리는 장소인 고반재는 "사유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지혜를 생각하고 창출해 천년을 잇고 천년을 담을 천년지장(千年之藏)의 책 박물관"으로 상반기 중에 개관될 예정이다. (02)926-814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 내 손으로 지킨다

문화재청, 국민참여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람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충남 공주 · 부여, 전북 익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8개의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미리 대응하여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다.

통합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요원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APP)에 입력하는 방식과 △일반인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문화재 관리와 관람객 불편 · 건의사항, 당해 유적의 세부적인 상태와 발생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된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은 누구나 현장에서 QR코드에 접속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자우편 주소만 기재하면 손쉽게 모니터링하며, 건의 · 제안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운용할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입력된 내용을 매일 비교 · 분석 ·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자치단체와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특강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1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꼭 필요함)
2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3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4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십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개강】 6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부산 개강】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부산역 광장 맞은편 엔제리너스 4층)

백초율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율력학당

습관이 된 판을 깨자! 지혜로운 판을 짜자!

제5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
불교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습관이된 판을 깨자! 지혜로운 판을 짜자!" 라는 주제로 제5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는 체험형 강습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에 동참하시면 다양한 교재교구 전시와 지도자 상담을 통하여 여름캠프 및 템플스테이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5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더 많은 분들께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자 2차로 나누어 개최되오니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 일시 / 장소

1차	2차
2016년 6월 18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2016년 6월 25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대구시 북구 구암로 238)

● 대 상 : 템플스테이, 계층 법회 지도법사, 지도자와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포교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프로그램 및 강사
• 명사특강 : 지혜로운 판을 짜자!
• Ice Break 및 싱어롱 /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체험활동 : 신나는 놀이와 만들기 세상
• 찬불가 율동 및 활용의 실제
• 교재교구 전시 및 단체 용품, 체험 프로그램 안내

● 참가비

사전접수 5만원	당일접수 6만원
1차 : 6월 14일(화)까지	(사전 접수 이후~강습회 당일)
2차 : 6월 21일(화)까지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접 수 : 각 회차별 선착순 100명
모바일(QR코드), 이메일, 전화,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burec [지도자 강습회 게시판 참조]
E-mail(burec@daum.net), Fax(02-738-7863)

● 문 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군포교 중심지로”… 장병과 ‘소통’ 강조

경남 함안 ‘39사단 안국사’ 낙성법회 봉행

39사단 창원서 이전하며
함안에 새롭게 문열어
군장병 600여명 참석해
지역 수호 및 호국 도량 발원
명상 및 다도 강좌 등 계획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가 5월 29일 봉행한 낙성법회서 호국불교 정신을 되살려 군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군법사 신영)는 5월 29일 법당 앞마당서 현판식을 봉행했다.

안국사는 창원에 있던 육군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며 새롭게 불사된 군법당이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법회로 첫 공식 행사를 연 후, 매월 정기법회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영 군법사는 불자들과 ‘소통’을 강조,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낙성 법회는 타종을 시작으로 현판식,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의 법문, 문병호 39사단장의 인사말 및 축사, 창원 구룡사 우담바라합창단의 축가 등 순으로 이어졌다. 군인 장병들은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현판식을 축하했다.

지안 스님은 “도량은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 수행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 업으로 잃었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오늘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도량서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고, 새로운 힘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병호 39사단장은 “안국사는 1955년 우리 대대가 창원에 자리했을 때부터 함께 해왔다”며 “함안에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이 호국도량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 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자비로운 쉼터가 되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이제환 안국사 금강회장은 발원문 낭독을 통해 장병들의 군생활을 축원했다. 이 금강회장은 “군인으로서 삶이 견디기 힘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피를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앞으로 안국사는 일요법회, 수계법회, 초하루 및 관음재일 등 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법당을 만들기 위해 제등행렬 동참 및 봉축 법요식, 신행단체 명상 강좌, 선지식 초청 법회, 다도 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신영 법사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이어 안보를 담당하고 지역 수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며 “또한 장병들이 불심을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또한 각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지안 스님, 함안 사암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 문병호 39사단장과 국방부 김갑영 법사, 39사단 장병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품에서 ‘부부의 연’ 맺다

함안 용정사, 불교식 전통 혼례로 ‘화제’


경남 함안 용정사는 5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신랑 이광환과 신부 김재은을 위한 전통 혼례를 거행했다.

사찰서 전통 혼례가 진행돼 화제다.

경남 함안 용정사(주지 동준)는 5월 29일 경내서 전통 혼례를 거행했다. 결혼식은 삼귀의로 시작해 고불문 및 헌화, 혼인서약 등 전통 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롭게 부부로 인연을 맺은 신랑 이광환과 신부 김재은 씨는 사찰 전통 혼례에 매우 만족했다며, 새 출발을 부처님 가피로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신랑 이광환 씨는 “타 종교는 이런 특별한 결혼식을 자주 시도하는데, 불교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대중화되지 못해 안타까웠다”면서 “그래서 처음 불교 전통 혼례를 제안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지 동준 스님은 “불교의 전통 혼례 의식에 현대 의식을 가미해 결혼식을 거행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의 희망을 전하는 음악회”

생명나눔 부산본부, 환자 쾌유 위한 작은 음악회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6월 20일 오후 6시 30분 좋은강안병원 1층 로비서 ‘제10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스님들이 직접 환우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1부 사랑의 다과(병실 방문), 2부 작은 음악회가 마련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힘겹게 투병생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함으로써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환자들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6월 20일 좋은강안병원 1층서 ‘제10회 작은 음악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자료사진

“자비행 실천하며 어르신 장수 기원”

대광명사, 5월 28일 ‘장수 사진’ 촬영 나눔 행사

부산 해운대 전법도량 대광명사(주지 목종)가 5월 28일 지역 어르신 30여명을 초대해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발원했다.

장수사진 촬영은 대광명사 봉사단 ‘사무량심’과 거사림회, 그리고 시민연합봉사회가 후원했다. 거사림회는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수단을 제공했으며, ‘사무량심’은 공양을 마련했다.

특히 ‘사무량심’은 매달 도시락 봉사 및 물품지원 봉사 등을 실시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만난 독거노인 및 소외 계층의 요청으로 이번 장수사진촬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주지 목종 스님은 “이곳까지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오늘 뿐 아니라 자주 찾아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종후 사무량심 회장은 “여기 와주신 모든 어르신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해운대는 겉모습은 화려하나 쪽방촌에는 여전히 소외된 이웃이 많다. 그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전법도량 대광명사가 5월 28일 대광명사 법당에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과 장수를 발원했다.

아울러 이날 목종 스님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구선애 시민연합봉사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목종 스님은 “각자의 삶도 그리 녹록치 않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대광명사 신도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언제나 쉬지 않고 나눔을 행한 그 공덕은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부처님 자비심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촬영한 장수사진은 액자에 담아 ‘사무량심’ 도시락 배달 봉사 때 각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태고종 혜인정사, 어르신 섬김 건강잔치

5월 28일 경북 고령군 우곡면서

대구 혜인정사(주지 진송)는 5월 28일 경북 고령군 우곡면을 찾아 ‘어르신 섬김 건강잔치’를 열었다. 우곡면 경로당 앞마당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혜인정사 진송 스님,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권오종 우곡면장, 박돈헌 동장, 박상옥 노인회장을 비롯한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트로트 가수 남경이, 유빈 등 초대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마이산 탑사 실상밴드의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진송 스님은 직접 색소폰 연주에 나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진송 스님은 “이웃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만발공양을 하는 것이 훌륭한 불공양이라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나누우리 국내구호이사를 맡고 있는 진송 스님은 동지팥죽 나눔, 라면나눔, 연탄나눔, 반찬나눔 교도소 교정활동, 갑룡장학회 후원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학교 식수 정수대 사업 외에 베트남 라이따이한을 위한 사업도 계획 중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5월 28일 대구 혜인정사가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개최한 ‘어르신 섬김 건강잔치’서 마이산 탑사 ‘실상밴드’가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다.





여래종 종정 인왕 대종사 다비식 엄수

6월 1일 금강대약사사서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연화당 인왕 대종사의 다비식이 엄수됐다.〈사진〉

인왕큰스님 장례위원회는 6월 1일 충북 옥천군 대약사사에서 여래종 종정 인왕 대종사의 다비식을 봉행했다. 인왕 스님은 앞서 5월 28일 세납 91세, 법랍 60세로 입적했다.

이날 다비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쇼바란타 스님, 김범열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해광 스님, 종단 및 옥천군 관계자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인왕 대종사께서는 한결같은 수행과 정진으로 여래종단뿐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받으신 어른이셨다"며 "세상이 각박하고 혼탁한 시대에 지혜와 혜안을 지닌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슬픔이 더욱 크다. 부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도 법향을 드리우시고,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원력으로 우리 곁에 나투소서"라고 말했다.

인왕 스님 초재는 금강대약사사에서 봉행됐으며, 2재부터 6재, 49재는 남한산성 약사사에서 진행된다.

인왕 스님은 1958년 관음사에서 송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1년 인왕산 약사사, 1967년 관악산 법륜사, 남한산성 약사사를 창건했다. 1971년 대한불교법화종 중앙종도회장, 1972년 대한불교법화종 원로원의원, 1974년 제2~4대 성남불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 한국불교여래종을 창종하고 초대종정으로 취임했다. 1995년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를 창건하고, 1997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은 이후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군생활을"

전북 군법당 잇달아 수계법회



전북지역 군포교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 임실의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와 익산 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에서 잇따라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5월 29일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에서 35사단 장병들과 새로 입대한 훈련병 35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도영 스님은 군장병들에게 삼귀의계와 5계를 설하고 "2년 남짓한 군 생활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군 생활동안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면서 국방의 의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군불자들의 양성은 포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35사단 불자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계법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계법회 후에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여성 댄스그룹 '다이아몬즈'가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쳐 장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편 육군 간부들을 양성하는 익산 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도 같은 날 논산 안심정사 주지 법안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남녀 부사관 후보생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수계법회에서 법안 스님은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세속오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5계를 설하고 참다운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픔 다할 길 없는 그대 넋을 기리며…"

광주불교연합회, 5.18민중항쟁 · 세월호 추모법회

'세월호, 기억과 약속' 주제
추모의식 비롯 대중과 소통
"슬픈 사고 반복되지 않길"



광주불교연합회는 5월 27일 광주 원각사에서 5.18민중항쟁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기를 맞아 희생 영령들을 추모하는 법회가 광주 원각사에서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5월 27일 원각사 법당에서 '세월호, 기억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연광 스님과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지광 김동수 열사 부모, 세월호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 부모,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5.18민중항쟁 희생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식, 연광 스님의 추모사,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이야기 나눔, 추모시 낭송(광주시민센터 김희용 목사), 추모공연(구름비나무, 오영묵)이 진행됐다.

회장 연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감히 짐작하기도 힘들다. 다시는 우리사회에 5.18 민중항쟁과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 부모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내려왔다.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살아있을 줄 믿었다. 그렇게 오늘 733일째를 맞았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 금강 스님은 세월호 참사 후 불교계의 지원활동을 담담히 풀어나가며 대중과 소통했다. 금강 스님은 진도사암연합회와 함께 초기 사건이 발행한 후부터 현재까지 유가족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행사가 열린 날은 1980년 지광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산화한 날이다.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이었던 조선대학교 김동수 법우는 부처님 오신날 전남봉축준비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18민중항쟁이 일어나자 시민군으로 참여해,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차가운 콘크리드바닥에 쓰러졌다. 이 같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광주불교계는 매년 5월 27일에 조선대 교정에 세워진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비'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국의 그리움 이역만리서 달래다

전북불교계 봉사단체,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펼쳐



전북불교계 봉사단체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 다문화가정 어울림 마당.

우리나라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국내생활을 돕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지역 불교계 봉사단체인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과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5월 28일 완주 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제11회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네팔 · 미얀마 · 태국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중국 등 10여개국 300여 명의 노동자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은 어울림 한마당은 완주 봉동주민들의 농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와 민요, 여성 댄싱그룹의 공연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속공연, 장기자랑, 우리나라 민속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잠시나마 타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랬으며 자전거, 주방기구, 난방기구, 식기, 기타 생활용품 등이 경품과 장기자랑 상품으로 제공됐다.

또 천천클럽 회원과 전주 풍남로터리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들을 수집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입을 수 있도록 기증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는 이 · 미용 봉사, 건강상담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의 재능기부가 줄을 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는 "한국 불교단체에서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그동안 매년 참가해왔다"면서 "고국에 가지 못해 느끼는 외로움을 이곳에서 달래며 명절을 맞은 것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정용기 운영위원장은 "오랜 타국 생활로 외로움에 지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우리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연 · 바람의 기도' 봉갑사 영산대재

보성 봉갑사(주지 각안)는 6월 1일 상법당 앞마당에서 '인연과 바람의 기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영산대재는 지난 2008년 6월 1일 미얀마에서 부처님 사리 150과를 모셔와 상법당인 12각 사방불 적멸보궁에 봉안한 것을 기념해 열린 행사다.

행사는 호남범음회의 작법시식에 이어 법문과 영가천도, 살풀이, 회심곡, 무용(굿거리춤, 즉흥무, 수건춤, 산조춤), 경기민요(양산도, 밀양아리랑, 경복궁 타령), 남도민요(진도아리랑, 육자배기, 성주 풀이), 사물놀이, 보성판소리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회주 도륜 스님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사암스님들과 300여 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주지 각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갑사만의 특별한 사리 봉안날에 역대조사들과 선망부모를 위한 영산대재를 여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부처님 공덕을 나누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봉갑사는 호남불교의 시초인 3갑 사찰중 하나로 최근 복원불사가 진행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군자의 덕은 바람,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㊶ 도사요괴 물리치는 손오공 일행



그림 · 최주현

진실한 종교인이라는 분들은 대체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불교계에도 수많은 감동적인 영험담이 있지요? 그러한 영험의 영역이야 말로 종교의 가장 귀중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지요.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가피를 힘입어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는 이야기,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런 영험에만 주로 의존하는 종교는 건강치 못한 모습을 보이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에 의해 큰 영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주로 의존하려고 해서는 또 안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불보살의 가피를 간절히 기원하는 신앙심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불확정성의 세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잘 해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삶,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믿음,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건강한 믿음을 넘어서서 교만한 확신을 내세우며, 신비한 현상들을 과대포장하여 내세우는 맹신과 광신의 모습을 보일 위험성을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합리성이라는 측면이 뛰어난 불교는 그런 위험성이 좀 덜하지만 위험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체험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태도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건전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겸허하게 말하라 가르치셨지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라고 겸허하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옹호하는 건전한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도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겸허함을 지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그 진리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을 통해 증명을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더더욱 이런 태도를 취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을 통해 증명되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신’의 문제지요.

앞 이야기에서 나칠계님 아버지 이야기는 저의 실제 체험을 좀 각색한 것이지요. 젊은 시절 수행한다고 무덤에 가서 지샌 날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삼쾌선생은 가끔 “무덤에서 여러날 잤는데, 귀신을 보지는 못하고 귀신으로 오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곤 하답니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삼쾌선생의 체험담이 아닙니다. 은근히 “옛날엔 나도 이렇게 한가락 했어”라고 뻐기는 티를 좀 내긴 했지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귀신과 같은 문제는 귀신을 잡아다 우리 앞에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 이상 참이다 거짓이다가 판별이 불가능한 문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적인 증거를 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나칠계님의 아버지가 그토록 확신하던 체험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었지요. 여러 사람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는 정말 내 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겸허하게 말해야 되고, 가능하면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귀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꼭 공통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것은 ‘한’입니다. 즉 한 맺힌 존재가 죽어서도 죽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어떤 간섭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한’이라는 정신적 에너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줄거리에서 그렇게 한이 맺힌 국왕의 귀신이 등장하지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의형제까지 맺었던 도사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라 빼앗기고, 부인 빼앗기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빼앗긴 오계국의 국왕이 눈물로 호소하네요. 그래도 국왕 귀신이라 그런지 물리적인 힘도 좀 쓰는 귀신….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까지 남기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하니 마음 약한 현장법사가 모르쇠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요괴와 귀신 잡는 퇴마 전문가 손오공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요. 손오공도 이런 일이라면 신바람이 나는 체질이죠. 슬며시 빼는 척 하면서도 기꺼이 나서게 되고, 그래서 국왕의 원한 풀이 굿이 한마당 열리는 거죠.

왕이 우물에 박힌 이유 나와
현장법사 일행의 지혜로 해결
도사요괴는 문수보살의 사자

그런데 우리 서유기의 줄거리에서는 굿으로 끝나지를 않는군요. 굿이란 본디 귀신의 한을 풀어줘서, 그 귀신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잘 떠나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으로 등장했던 국왕이 완전히 되살아난다는! 그래서 나라 찾고 부인 찾고 자식 찾고…. 완전한 해피엔드네요. 그렇게 만드는 손오공의 활약이 또 눈부신데, 그 백미는 역시 저팔계 욕심을 부추겨서 국왕 시체를 우물 속에서 건져내는 거죠. 저팔계, 보물 있다는 말에 속아서 우물 속에 들어가 물 줄줄 흐르는 시체 업고 나오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크크크~하는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요? 흠, 나칠계님도 슬쩍 꼬드겨서 그런 일 한번 시킬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삼쾌선생 정말 유쾌해져서 사쾌선생이 될 것도 같은데 말이죠. 하하.

그런데 말이죠, 저팔계가 당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이야기에선 저팔계의 복수가 또 빛나는 대목이죠. 시체를 건져내 돌아와 보니, 시체가 전혀 손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용왕이 잘 보관을 했다는 배경이 있죠. 현장법사 외전에서 현장법사의 아버지 시체를 용왕이 잘 보전했던 것과 같은 경우네요. 그 시체를 빌미로 저팔계의 복수가 작열하죠. 손오공이 목숨을 되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라고. 슬슬 현장법사를 부추기나 마음 착하고 또 귀얇은 현장법사가 손오공을 닦달하네요. 못한다고 하니 머리테 조여대는 긴고주까지 외워가면서 닦달을 하니 손오공 당해낼 재주가 있나요? 결국 천상세계로 올라가 태상노군에게서 구전환혼단(九轉還魂丹)을 얻어오게 되죠. 한 알 안주면 재미없다는 협박성 멘트를 슬슬 날려서 얻어낸 것이니 거의 갈취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손오공의 행패가 워낙 심했기에 태상노군도 “에잇!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하는 심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하. ‘구전환혼단’이란 이름은 아홉 번의 신비한 제약과정을 거친, 혼백을 되돌리는 단약이라는 뜻이겠네요. 그 단약 얻어다 죽은 국왕의 입에 넣었는데, 시체가 삼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손오공이 뽀뽀하면서 숨을 불어넣어 환약을 넘기지요. 이 장면은 저팔계가 물 뚝뚝 떨어지는 시체 우물 속에서 업고 나오는 장면과 쌍벽을 이루는 멋진 장면 아닐까요? 물 속에서 건진 시체 업은 저팔계, 국왕 시체에 입 맞추는 손오공…. 그림 좋죠? 아무튼 저팔계 무시해선 안되겠어요. 뒤끝이 아주 무섭군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순자(荀子)의 말이 생각나네요. 순자는 소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죠. 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리나 승냥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네요. 군자에게는 좀 잘못을 해도 군자답게 용서를 해 주지만, 소인은 절대 용서가 없대요.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소인은 두려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뭐 저팔계가 꼭 소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멍청해 보이는 저팔계가 앙심을 품으니 정말 기묘한 꾀를 내어 손오공을 골탕 먹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저두 나칠계님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마찬가지로 나칠계님이 소인이라고 생각한다던가, 멍청해 보인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강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하~

여차저차하여 국왕 살아나고, 왕노릇하는 도사요괴를 물리치는데, 이번에는 문수보살님이 등장하시네요. 도사요괴의 정체가 바로 문수보살님이 타고 다니는 사자라네요. 예전에 문수보살님이 스님으로 화현하여 이 나라에 들리셨을 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문수보살님을 물속에 처박아 둔 과보를 받느라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 사자가 그 역할을 하느라 잠시 도사분장하고 나왔던 거라네요. 우~. 문수보살님은 뒤끝작열보살님? 그게 아니라네요. 부처님께서 공정하게 인과를 집행하신 거라니…뭐 할 수 없죠. 아무튼 과보는 털끝만큼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니. 그리고 스님을 학대하고, 선지식을 괴롭힌 죄야말로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이겠지요. 그러니까 삼일 물속에 고생시킨 죄보로 삼년을 우물 속에 처박히는 것이겠고요. 너무 죄업이 뻥튀겨지는 것 아니냐고요? 삼쾌선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요. 훌륭한 인품이나 식견을 가진 사람을 푸대접한다거나 모욕한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참으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사회의 정의가 일그러진다거나, 올바른 견해가 서지 않는다거나 하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불행한 결과를 낳거든요. 반대로 그런 분들을 공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은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큰 도약을 이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옳은 말을 하는 스님을 물속에 처박았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본을 보겠지요? 훌륭한 사람을 무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겠지요? 그런 풍조가 차츰 아래로 퍼져보세요. 〈논어〉에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눕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행위는 바로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왕의 행위 하나가 바로 그 나라 전체를 우물 속에 처박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왕이 우물 속에 처박힌 것은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행이 현장법사라는 덕높은 스님을 만나 그 잘못을 고쳐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지, 그런 복된 인연이 없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더 구렁텅이에 처박혔겠어요? 덕있는 사람이 지나는 곳은 저절로 그 혜택을 받는 법이니, 현장법사 일행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는 대목! 정말 온전한 해피엔드! 복연을 누린 이들의 열렬한 환송을 뒤에 두고 다시 힘차게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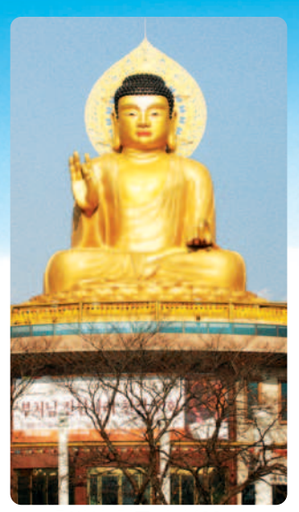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홍법사 청동대불(26m)



수종사 범종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그 절집의 빛

⑫ 순천 송광사 국사전과 16국사 진영



국사전 전경. 선원공간을 불전보다 높은 곳에 배치했다.

수행결사, 함께 법비에 젖게 함이라

송광사의 근본정신은 참선수행

불교 교단의 삼보는 불(佛), 법(法), 승(僧)이다.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가 각각의 삼보를 보장한 삼보사찰이다. 저마다의 근원을 가람의 최상위에 신성한 영역으로 경영하고 있다. 통도사의 금강계단, 해인사의 장경판전, 송광사의 국사전이 그 신성의 건축들이다.

국사전(國師殿)은 승보종찰 송광사의 뿌리이자 근본정신이다. 조선왕조의 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와 같은 위상이다. 송광사가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1200년에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정혜쌍수와 돈오점수의 기치로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중심지로 팔공산 거조사에서 옮겨오면서 부터다. 지눌스님은 정혜결사문을 통해 명리만 좇는 세태를 비판하며 고요에 들어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데 힘쓸 것을 주창했다. 즉 선정과 지혜 닦는 수행자의 본연에 전념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사자후를 토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세속화와 명리추구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천명했다. 그 결사운동의 실천이 수선사, 곧 송광사에서 펼쳐져 16국사의 배출로 이어졌으니, 송광사의 근본정신은 참선수행의 수선(修禪)이자, 결사(結社)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곧 송광사는 수행근본도량의 귀감인 한편, 청정 승가공동체 구현의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한국불교 조계종의 근본도량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수행근본도량의 핵심적 원동력은 바로 국사전에 모신 16국사 선맥의 유구한 전통에서 우러나온다. 세세생생 정법을 이어온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생명력을 지닌 까닭이다.

송광사 가람은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배치했다.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 형식의 구도에 따랐다고 알려진다. 건축 밀도가 높고 복잡하지만 상, 중, 하 높이 차등에 따른 삼단구성은 분명히 실감할 수 있다. 하단영역은 일주문과 천왕문 등 진입영역, 중단영역은 대웅보전, 승보전, 약사전 등 불전영역, 그리고 상단영역은 국사전, 하사당, 수선사 등 선원공간이다. 선원 및 참선공간이 대웅보전 등 불전건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점이 파격적이다. 일반적인 배치 규범과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수행본연의 승보사찰의 위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다. 의도된 의지의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정 승가실현을 표방한 승보종찰의 보다 분명한 자기신념을 반영한다. 그것은 불보종찰 통도사의 정점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고, 법보종찰 해인사의 최상위에 팔만대장경을 보장한 장경판전을 배치한 원리와 같다.



국사전 내부. 1세 보조국사부터 16세 고봉국사까지 16국사 진영을 봉안하고 있다.

국사전 정면 한 칸 확장 추정

국사전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정면이 4칸인 짝수칸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같은 이유는 건물 확장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정면이 홀수 3칸이 아닌 4칸인 것도 국사 영정을 추가로 봉안할 때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면서 나타난 모습으로 추정한다. 맨 왼쪽 칸의 폭이 다른 세 칸의 폭보다 짧은데서 확장의 흔적을 찾곤 한다. 신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종묘 정전의 칸 수를 계속 확장해간 사례와 같은 이치다. 국사전의 첫인상은 지붕이 낮아서인지 단정하고 단순한 느낌이다. 건축에서 꼭 필요한 요소만 간결이 갖춘 고전주의적 분위기가 흐른다. 수행공간 속에 위치해서 내밀하고 고요하다. 미술사학자 빙켈만이 말한 '고귀한 단순과 위대한 고요'의 정서가 물씬 묻어난다.

국사전은 송광사가 배출한 16국사를 모신 전각이다.

국사전, 승보종찰 송광사 근본 수행선원, 가람 최상단에 위치

국사전에 모신 16국사는 1세 보조국사부터 16세 고봉국사까지 열여섯 분인데, 15세까지는 고려시대 국사이고, 16세 고봉국사는 고려와 조선의 과도기에 걸친 분으로 국사급으로 추앙받던 화상으로 알려진다.

16국사 영정은 쾌윤, 복찬의 작품

국사전의 16국사는 족자에 그린 진영(眞影)으로 모셨다. 진영은 '참모습'이라는 뜻이다. 고승대덕의 초상화 형식을 진영이라 부른다. 한가운데에 보조국사 진영을 배치하고, 향좌측에 2세, 4세, 6세..., 16세 순으로 짝수 번을, 향우측엔 3세, 5세.7세,...,15세 순으로 홀수 번 진영을 배치해서 중앙에 시선이 모이게 했다. 가로 77cm, 세로 135cm로 동일한 규격이라든가, 표현기법, 장황(표구) 제작양식, 의도된 기획배치 등을 고려할 때 동일시기에 동일화원이 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조국사 진영에 남아있는 화기에 의하면, 건륭 45년(1780년) 4월에 금어 쾌윤과 복찬이 그려서 영당(影堂)에 안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조국사 비롯 16국사 진영 1995년 열세 분 진영 도난

화기에 나오는 쾌윤은 18세기 중엽 전남의 선암사, 태안사, 흥국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모(佛母)다. 삭발염의(削髮染衣)한 스님은 아니었지만 절에서 평생 '윤총각'으로 살면서 오직 불화만 그렸다는 기인으로 통한다. 평소에는 불화 그리는 오른손은 흰 천으로 감은 채 살았다고 한다. 불화를 그릴 때만 목욕재계하고, 오른손을 풀어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불화 그리는 화원을 일러 화사(畵師), 금어(金魚), 편수(片手) 등으로 부른다. 그 중 편수는 '한쪽 손'을 의미하는데, 쾌윤의 불심 깊은 기행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후세 사람들을 숙연케 한는 대목이다.



1세 보조국사 지눌스님 진영.

진영은 16국사 모두 의자에 앉아 계신 전신상을 그렸다. 그 중 아홉 분은 신발을 벗고 의자에 가부좌를 틀었다. 손에 든 지물을 살펴보면 보조국사만 지팡이 주장자(柱杖子)를 짚었고, 열 분은 불자(拂子)를 손에 쥐었으며, 나머지 다섯 분은 아무런 지물을 갖추지 않고 선정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보조국사는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설법을 하고 주장자를 잡은 채로 법상에 앉아서 열반에 드셨다고 전한다. 진영 속에 주장자를 짚고 계신 장면도 그를 모티프로 삼은 것인지 궁금하다. 진영의 복식은 장삼에 가사를 걸친 예복 형식으로 통일적이다. 채색에서 진영의 바탕 배경은 짙은 갈색을 풀었고, 붉은 색과 초록의 단청을 주된 색조로 입혔다. 16세 고봉국사는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표현해서 눈길을 끄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급변하는 시대정신이 설핏 스쳐 지난다. 진영의 모본은 알려진 바 없어 안타깝다. 단지 보조국사 진영만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 진영(보물 제1639호)을 모본으로 해서 그렸다고 전해지고, 그 외 진영은 모두 관념의 상상인물화로 구전한다. 보조국사 진영은 동화사본과 부분 색채만 다를 뿐 완전 판박이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1995년에 열여섯 진영 중에서 1세, 2세, 14세를 뺀 열셋 진영을 모두 도난당했다는 사실이다. 승보종찰 송광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것이니 상처와 안타까움이 어찌 깊지 않겠는가?

천정엔 옴 마니 파드 메 훔 진언

텅 빈 국사전 내부에서 진영 외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천정문양이다. 천정은 우물반자로 가설한 우물천정이다. 천정의 바탕은 검정의 현묘함이다. 파계사 기영각과 통도사 삼성각의 검은 바탕을 닮았다. 그 바탕에 육엽연화문을 금니로 베풀었다. 여섯 연잎엔 '옴 마니 파드 메 훔'의 육자진언을 새겼다. 진언은 비교적 입체감이 나오도록 두터이 금니를 입혔다. 천정에 금빛 육자진언이 일승의 원음으로 파다하다. 대들보의 머리초에도 금니를 풀었다. 대들보 계풍엔 붉은 서기가 흐르는 용들이 용틀임하고 있다. 용틀임의 곡선이 대단히 율동적이고 우아하며 기운생동하다. 국사전 내부는 비었다. 그곳에서 텅 빈 충만을 느낀다. 고전주의 건축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과 절제의 아름다움이 빛난다. 짙은 침묵과 고요가 살아있는 깊은 공간이다.

1190년 늦봄,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1만 자 가까운 장문의 〈권수정혜결사문〉을 발표하셨다. 문장의 말미에 기원을 담았다. '동승법우(同承法雨)', 함께 진리의 법비에 젖게 함이라. 국사전 옆이 수행자의 선원 수선사(修禪社)다. 지눌스님께서 기거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안거 수행승들의 면벽이 불철주야로 이어지고 있다. 달사(達士)와 진인(眞人)의 높은 수행을 따르는 하안거 스님들의 모습에 송광사 유월의 청산은 푸르고도 푸른 빛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당위적 정화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35. 식민지 유산의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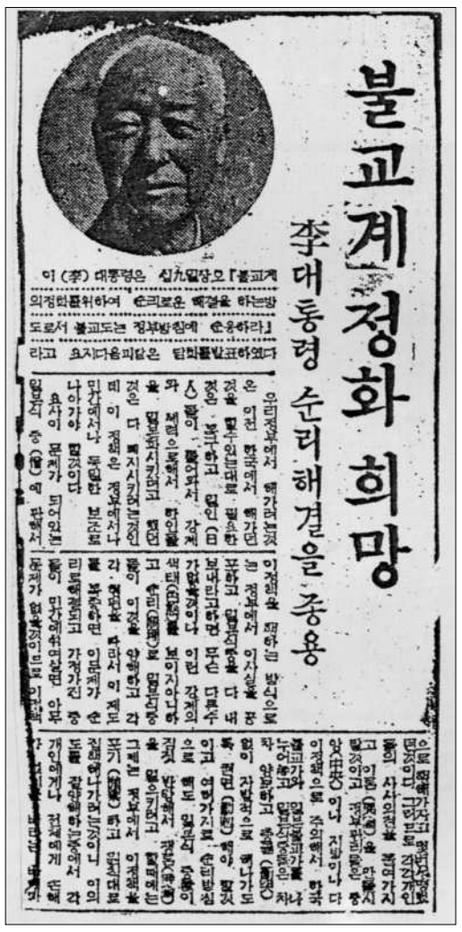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감격스러운 광복의 환희를 맞이했다. 불교계도 식민지의 잿빛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종교, 전통종교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했다.

해방과 함께 독립된 민족국가 탄생이라는 벅찬 기대에 들떠있던 1945년 9월에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고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교단의 중추적 세력이 모인 이 자리에서 불교의 장래와 개혁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찰령과 같은 식민지 유제를 혁파하고 중앙 교단기구를 설립하며 교헌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교구제와 교도제 시행, 사찰재산의 통합, 역경사업과 비구승단 보호 등 수행정신 선양이 중점 추진사항으로 의결되었다.

당시 미군정은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원칙인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 즉 기독교만을 공인하는 편파적 공인교 정책이 실시되었고, 기독교계 인사들을 대거 군정청에 뽑아 썼다. 더욱이 1945년 11월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21호에서 폐기되지 않은 구법령을 존속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본사주지 인사권과 사찰재산 처분권을 총독이 가졌던 식민지 사찰령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했다. 조선불교 중앙총무원과 교무회 측은 사찰령 폐지를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군정이 사찰령을 존치시키고 사찰재산 임시보호법을 시행한 것은 일본불교 적산 재산의 귀속 문제와 연관된 일이었다. 즉 사찰재산 처분권을 총독을 대신해 미군정 측에서 자의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한국에 있는 일본불교 사찰 및 재산이 불교계가 아닌 교회로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군정의 편향된 종교정책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박문사의 경우도 한 예이다. 박문사는 대한제국의 현충원 격이었던 장충단 공원의 일부 부지를 양도받아 1932년 건립되었고 그 앞에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을 옮겨 세웠다. 해방 후에는 불교계 혜화전문학교의 기숙사로 쓰이다가 미군정에 의해 1947년 관유지로 귀속되었으며 이후 그 자리에 신라호텔이 세워졌다. 한편 미군정은 1946년에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하였다. 기독교 문명권인 서양이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이는 종교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였다.

미군정 하에서 기독교는 여러 특혜를 얻으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갈 수 있었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을 비롯한 일부 정치가들은 미군정과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 편향 정책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이승만은 '기독교 이념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려 했고 특히 개신교와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다


불교계 정화 희망
李대통령 순리해결을 종용
이 (李) 대통령은 신가집상으로 「불교계의정화를위하여 순리로운 해결을 하는방도로서 불교도는 정부방침에 순응하라」라고 요지다음과같은 담화를발표하였다
은 이번 한국에서 행가던 것을 불수있는대로 필요한 정을 보하고 많은 (B) 를이 들어서 와 체의 으로서 한인을 을 많되시키고 된 것은 다 폐지시킨다는 정은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나 독립한 보존도 나아가야 할것이다 요사이 문제가 되어있는 통이 민간에서나 문제가 되어있는 (B) 에 관해서 각 이정책으로 주의해서 한국 결코가하 많은 (B) 은 자발적으로 종교 (B) 가 협력하고 이 정부에서 이제로 여기가로 순립한 이 정부는 각 정부에서 이제로 여기가로 순립한 이 정부는 각 정부에서 이제로 여기가로 순립한 이 정부는 각

니까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④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 (八正道)의 두 번째는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사유' 이다. 견해와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휘되는 양상 또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떤 사유를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다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사유에 내재된 양면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니까야〉의 '대념처경'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正思惟)인가? 비구들이여! '벗어나 떠남' (出離, 출리)에 대한 사유, '분노(瞋ㅌㅏ 진에)가 없음' 에 대한 사유, '해치지 않음' (無害, 무해)에 대한 사유, 이를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라고 한다."



그림 · 나은영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正思惟)를 이루기 위해 제시된 사유의 주제는 '벗어나 떠남' 이다. 이 말은 '세속에서의 삶의 방식을 떠나 해탈/열반을 추구하라' 는 출가 생활의 권장에서 그 일차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티붓따까(如是語, 여시어)〉 제72에서 '벗어나 떠남' 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문에 의거하면, '벗어나 떠남' 의 대상은 '집의 소유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 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욕망에 의존하고 있는 세상' (欲界, 욕계),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삶의 방식' (色界, 색계),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 (無色界, 무색계) 이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 떠날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벗어나 떠남' 에 대한 사유의 닦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벗어나 떠나야 할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삶의 방식을 그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출가(出家)' 의 의미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안락한 상태로부터의 떠남에 있듯, 이익과 쾌락의 추구라는 가치로써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문법에 대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 '벗어나 떠남' 이라는 주제어임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것은 종교적 사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볼 때 생기는 시선처럼,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에 대해 늘 스스로 질문하고 사색하는 태도가 바로 '벗어나 떠남' 에 대한 사유의 면모인 것이다.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를 이루기 위한 사유의 또 다른 주제어는 '분노가 없음' 과 '해치지 않음' 이다. 이 둘은 하나의 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은 흔히 적대감을 낳으며 폭력의 형태로 상대방을 해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이 공동의 유익함을 추구하며, 즐거움은 함께 누리고 괴로움은 덜어주려는 자비(慈悲)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사유' 는 그 성격상 '지혜의 갖춤을 지향하는 사유체계' (慧學, 혜학)에 속한다는 해석방식은 이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유의 주제가 '분노가 없음' 과 '해치지 않음' 에도 있음은 지혜의 칼을 다듬는 노력만큼 자비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사유의 닦음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산문 밖의 禪

소설가 백금남

다시 유마가 필요한 시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우리는 삶의 비밀을 밝혔지만 그 '아픔' 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픔' 속에서 살고 있다. 한 소설이 있다. 소설의 시작은 "나도 아프다"고 했던 '유마' 에서 비롯됐고, 유마라는 이름은 부처님 시절 속에 들어있다. 소설 〈유마〉다. 2016년 1월에 출간된 백금남(68) 작가의 작품이다. 소설 〈유마〉가 완성되기까지는 3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일까. 영화 '관상' 의 원작 소설 〈관상〉의 저자이며 오랜세월 불교적인 소설을 써온 백금남 작가의 이야기다.

박도일 수필가

32년 만에 탈고한 소설 〈유마〉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세월이 당연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백 작가는 그의 첫 소설인 〈십우도〉로 1985년 '삼성문학상' 을 받으면서 문단에 이름을 적었다. 세월의 숫자를 놓고 보니, 소설 〈유마〉는 〈십우도〉와 같은 시기에 집필을 시작한 소설이다.

소설 〈유마〉의 주인공 유마는 부처님 당시 거사의 신분으로 대승불교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로, 중생의 아픔에 마음을 둔 '보살' 이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때가 되면 부처님의 말씀마저도 끊어내야 한다고, 그것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설한 선지식이었으며, 문자와 가르침에 붙들려 일각(一覺) 앞에서 길을 잃은 승단의 불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깨웠던 헌신의 불제자였다.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실에 눈 뜨지 못하고 문자나 가르침에만 기댄 승단의 소승적 깨달음보다는 저잣거리에서 울고 있으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생의 삶 자체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했던, '생활선(生活禪)' 과 '현실불교' 의 선지자였다.

유마를 그리고 있는 소설 〈유마〉는 '깨침' 이라는 이상의 세계와 그 깨침의 주체인 대중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의 문제를 갈등의 구조로 하여 문학적으로 그려냈다.

"시작은 했지만 '유마' 에 대한 자료가 적어서 이야기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세상' 과 '불교' 를 알아야 현실불교의 선지자였던 '유마' 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마' 를 제대로 알아야 했고, 생활선과 불이(不二)사상 등 유마가 이야기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유마)가 궁극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했던 대승(大乘)과 진정한 불법(佛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소설 〈유마〉가 〈십우도〉나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아득한 시절의 유마를 제대로 알 길이 없었다. 〈유마경〉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유마를 오롯이 만날 수 없었고, 그것만으로는 소설을 짓기 어려웠다. 백 작가는 유마를 만나기 위해 여러 경전에 흩어져 있는 유마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수십, 수백 권의 경전을 읽어야 했다. 그렇게 찾아낸 유마의 이야기를 오롯이 이해하고 써내기 위해서는 좀 더 세상을 알아야 했고,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했다. 백 작가는 유마가 대중 속에서 현실과 얽혀 살며 부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아냈듯이 그런 '유마' 를 쓰기 위해선 작가 자신이 딛고 선 삶의 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살아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치열하게 생활인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없었다면 아마도 〈유마〉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 절생활로 불교 입문
고교 때 공모전 입상하며 소설가 꿈
1985년 삼성문학상 〈십우도〉 등단

결국 〈유마〉를 탈고하는 데 걸린 32년이라는 세월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당연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백금남의 소설

소설가 백금남은 등단작인 〈십우도〉를 시작으로 〈탄트라〉, 〈출가〉, 〈칼의 어록〉, 〈참 좋은 인연입니다〉, 〈탄허〉, 〈법정〉, 〈목련의 기도〉 등 지금까지 20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했다. 직접적으로 '불교' 를 내세우지 않은 작품들도 있으나 그의 작품은 대부분 불교적이거나 '불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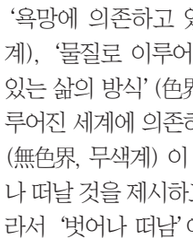
그는 고등학교 때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하면서 소설가에 대한 꿈을 키웠다. 소설가로서의 길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먹은 소설이 바로 앞서 말한 〈십우도〉이다. 십우도(十牛圖)는 심우도(尋牛圖)라고도 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를 찾아 나서는 것에 비유하며 열 단계로

소설가 백금남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신비한 상징과 목가적 서정으로 백정 집안의 기묘한 운명을 다룬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주목을 받으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됐다. 2003년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바〉로 민음사 올해의 논픽션상 수상. 2008년 일본의 화신(畵神)으로 불리는 도슈샤이 샤라쿠가 김홍도라는 사실을 추적한 소설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로 화제를 모았다. 이어 2년여 동안 신윤복과 조선 후기 회화사에 대해 집필한 〈소설 신윤복〉을 발표했다. 2013년 발표한 〈관상〉은 영화로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안색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소설로 불법 전하고 싶어”

그리고 있어 십우도라고 한다.

소설 〈십우도〉는 5대를 이어온 백정집안의 고단한 가정사를 깨달음의 상징인 십우도의 화폭 속에서 그리고 있다. 이 집안의 백정들은 소의 눈을 가리는 대신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한 순간에 소를 쓰러뜨리는 도살법을 연마한다. 살생의 업에서 번민하는 백정의 몸부림이다. 집안의 마지막 백정인 산우가 도살 중에 달아난 소를 찾아 깊은 산 속을 헤맨다. 소설은 소를 찾아 나선 산우의 산행을 ‘자신’을 찾아가는 고행(苦行)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이 잃어버린 참마음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 속의 불교가 아닌 소설 속의 불교를 통해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우리들 삶을 잠시나마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모색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십우도〉는 문단과 불교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백 작가의 불교적인 소설은 1994년에 발표한 〈칼의 어록〉에서 또 한 번 빛난다. 〈칼의 어록〉은 유년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입산한 소년 안동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구도소설로, 그 수행의 과정 속에 1990년대 한국불교의 뜨거운 논점으로 떠오른 ‘돈오돈수, 돈오점수’를 불러들였다. 이미 〈십우도〉를 통해 깨침에 대한 깊은 모색을 시도했던 백 작가는 깨침으로 가는 직접적인 방법론인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상충성과 합일을 향한 치열한 모색을 그리며 재가는 물론 학계와 승가로부터 많은 얘깃거리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도 백 작가는 꾸준히 불교에서 찾은 소재를 소설화했다. 수많은 경전을 남긴 티베트의 파드마삼바바의 생애를 그린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바〉, 일타 스님이 들려주는 출가 이야기 〈참 좋은 인연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학승이자 선승으로 추앙받는 탄허 스님의 일대기 〈소설 탄허〉, ‘무소유’ 한 마디로 한 시대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2010년 열반에 든 법정 스님의 생애 〈법정, 맑고 향기로운 사람〉, ‘우란분재’의 기원이 된 목련존자의 이야기 〈목련의 기도〉, 그리고 〈유마〉로 이어졌다.

출가 아닌 출가

〈십우도〉로 시작해서 〈유마〉에 이르기까지 백금남의 소설 중에는 불교적인 소재와 주제로 쓰인 작품이 많다. 그의 첫 작품인 〈십우도〉와 최근 작 〈유마〉는 32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왔지만 두 작품은 모두 소설가 백금남이 소설가로서 마음에 품은 첫 번째 테마였다. 곧 소설가 백금남의 테마는 ‘불교’였던 것이다. 왜 그의 첫 작품은 〈십우도〉였으며, 최근 작 〈유마〉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책상에 머물렀던 것일까.

백 작가는 불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구보다 어머니의 불심이 깊었다.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탯줄에 기대 있을 때부터 그의 영혼에는 불가의 부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불가적 음성과 불가적 사고 속에서 어린 백금남은 자랐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절로 보낸다. 정식 출가는 아니었지만 그 보다 더 깊은 의미의 ‘보냄’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교육’이 아닌 ‘채움’으로 자식을 기르고 싶었다. 소년 백금남은 학교가 끝나면 절로 가 예불을 모시고 스님의 시봉을 들었다.



유마의 현실불교, 생활선에 감화
“유마의 불이사상 필요한 시대”
〈십우도〉〈유마〉 등 20여 편 발표

향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말을 아끼고, 생각을 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소년 백금남에게 절집생활은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이자 채움이었다. 산문 밖의 문자와 음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의 수업 종소리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과 산사의 종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백금남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린 백금남의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을 절에서 보낸 백금남의 몸과 마음에는 불가의 문자와 불가의 사색이 침전되어 있었다. 그에게 불교는 아이가 태어나 부모로부터 처음 듣는 언어와 같이 그를 형성해가는 또 하나의 모국어였다. 〈십우도〉에서 〈유마〉까지 백금남의 소설을 채우고 있는 모색과 언급들은 그 침전물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불가적 정서가 그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소설가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이 불교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가 자신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었고, 자신도 불교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다. 삶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불교이기에 불가의 문자로 채워지고 길러진 백금남의 마음속에 그 물음이 없을 리 없었다. 산문을 떠난 후에도 백금남의 마음속에는 늘 불교가 있었고 그 물음이 있었다. 그것은 백금남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었다. 곧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십우도’를 소설가 백금남은 지나칠 수 없었다. 그리고 늘 ‘지금’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백 작가는 어느 날 유마를 만난다. 그렇게 만난 유마는 ‘답’이었다. ‘유마’는 인간 백금남에게 평생 읽어야 할 ‘책’이었던 것이다. 그의 첫 작품인〈십우도〉는 백금남만의 모국어가 품은 첫 번째 물음의 대답이며, 32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유마〉는 백금남이 산문 밖에서 오랜 세월 읽고 또 읽어낸 불가의 아득한 풍경 같은 것이었다.

다시 유마가 필요한 시절

“불이사상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고, 〈유마〉라는 소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백 작가는 소설을 출간할 때마다 자신의 소설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제 소설 〈유마〉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유마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마〉를 출간했다고 했다. 그는 불법에서 멀어져 가는 세상과 현실에서 멀어져 가는 불교를 걱정했다.

“종교(불교)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상만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죠. 밥을 먹어야하는 대중에게 종교는 현실에서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세계가 견고해지다보면 이상세계가 조금씩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 작가는 그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사이에 우리(대중)가 있다고 했다.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미완’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것이 유마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백 작가 역시 ‘완성’으로 가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다. 미완의 중생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2천5백 년 전, 유마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한 소설가는 다시 유마가 필요한 시절이라고 말한다. 백 작가의 말대로 유마가 필요한 시절이라면 〈유마〉가 세상의 모양을 바꾸어 주길 기대한다.









전법일기

나는 부처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도 연꽃어린이집의 하루 시작은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외쳐대는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로 시작한다. 어제 봤는데도 어쩜 저렇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해줄까? 우리 연꽃둥이들이 교실 한 편에 앉아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릇에 음식을 하나 가득 차려 놓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음식에 깃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명심 발원하옵니다”라고 두 손 모아 너무도 예쁘게 기도를 한다.

이게 내가 어린이집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근본 목적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들 삶 속에는 이렇듯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생활이 깃들어 있다. 우리 연꽃둥이들은 어린이집에 오면 오전 간식, 점심공양시간에 그리고 오후 간식시간까지 기본 하루 세 번은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음식을 먹는다.

부처님께서 모래로 부처님을 만들고 법당을 만들어 노는 아이들에게 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 주셨는지 우리 연꽃둥이들을 보면 너무도 이해된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어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재미있고 신기하다. 하루는 우리 연꽃둥이들의 소꿉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5살 남자 친구가 “여보 회사 다녀왔소” 하고 인사를 한다. 흔히 보는 모습이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후 여자 친구가 하는 말에 한참을 웃었다. 예전에 하는 소꿉놀이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다녀왔다”는 남자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기요.”

그러자 남자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응, 알았어요. 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오늘은 분리수거 안되는 날이죠”라고 말하며 봉투 하나를 들고 일어서 교실 밖에 내다 놓고 돌아왔다.

이렇게 변해버린 소꿉놀이 문화에 황당해 하고 있는데 한참 놀던 녀석 중 한 명이 슬그머니 내 옆에 와서 묻는다.

“원장 시님~ 원장 시님은 신랑 있어요?”

“아니. 왜?”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버려요?”

“원장 스님이 버리는데?”

“음, 원장 스님 불쌍하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소꿉놀이에 열중이다. 다음날 나에게 신랑의 유무를 물었던 친구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무실로 들어와 목청이 떠나가라 날 찾는다.

“원장 시님~ 원장 시님~”

“우리 초록이 오늘 기분좋구나. 왜?”

“원장 스님 이거 써요.”

그러더니 어린이집 가방을 뒤적뒤적하더니 노란 연꽃가방에서 신용카드 하나를 꺼낸다.



그림 · 박구원

“이거 우리 엄마 것인데요. 이거 쓰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우리 엄마는요, 아빠가 출장 가서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는 날은 기분이 안좋데요. 음식물쓰레기보면 토할 것 같데요. 이렇게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래요. 원장 시님은 신랑 없으니까 이거 써요. 우리 엄마는 이거 많아요.”

음, 이래서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아이가 교실로 돌아가고 아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원장 스님, 혹시 우리 아이 가방에 OO카드있는지 한 번 찾아봐주세요.”

“어머니, 그 카드 저한테 있는데요. 이 카드 쓰면 기분 좋아진다는데요.”

당황해 하는 어머님께 전후 사정 얘기를 모두 드리니 박장대소를 하신다.

아이들 인성교육은 책이나 글로 따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른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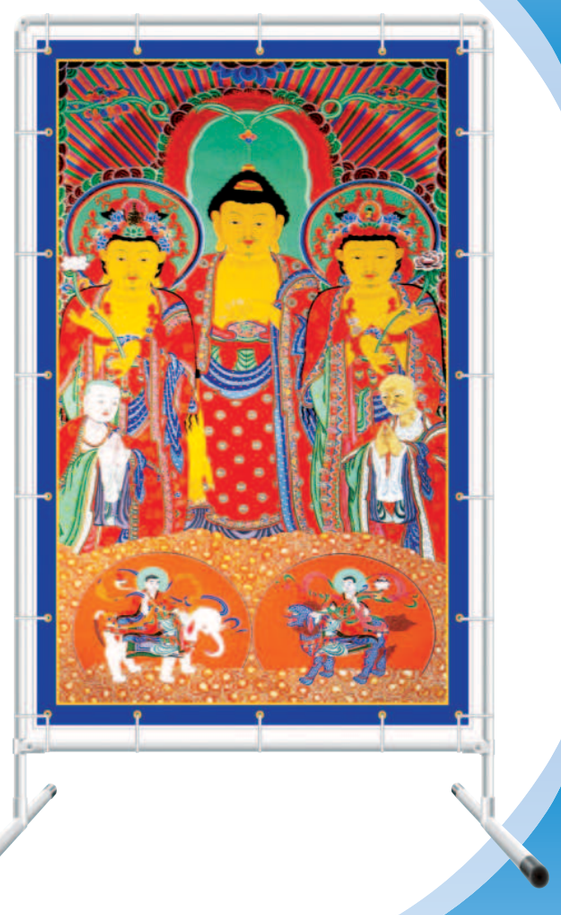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법신은 평등하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부처님들은 저절로 나타나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어디서나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중생이 있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것이다.

부처님 법신은 평등하여 어느 곳이나 빠짐없이 미치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행하는 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라 하여 자연업(自然業)이라 했다. 본문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한다.

"부처님들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누구나 다 부처님을 보거나 신통변화를 보거나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세상에서 모두 다 보지를 못하고 얻지를 못하는가?"

답은 이렇다. "부처가 나타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의 마음이란 거울과 같다. 거울에 만약 먼지가 끼면 물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에 때가 끼여 있으면 부처님의 법신은 나타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법신이 평등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편협성에 사로잡혀 인위적으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자연업이라 했고 때로는 무공용(無功用)이라 하기도 한다. 여래의 법신은 개체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대립하는 객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보고 못 보는 것은 다

법신은 끝없는 광명의 진원지
무한 공덕 함장해 불국토 장엄

만 중생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거울이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야 물체의 모습이 비춰지듯이 중생의 마음에 번뇌의 때가 있으면 부처님 법신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해동소(海東疏)에서 원효는 〈섭대승론〉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었다.

"비유하건대 깨진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다. 물이 담기지 않은 그릇에는 하늘의 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에게 사마타(奢摩他:samatha) 곧 삼매(三昧)의 부드러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간직되지 않고 나쁜 업을 짓는 허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부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선정(禪定)의 정수(定水)에 부처님이 강물에 달이 나타나듯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금강경오가해 종경(宗鏡)의 금강경제강(金剛經提綱)에 나오는 사구송(四句頌)에 "報化非眞了妄緣(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라 허망한 인연일 뿐이요) /法身淸淨廣無邊(법신이 청정하여 광대하여 끝이 없으니) /千江有水千江月(천강에 물 있으면 천강에 달이 있고) /萬里無雲萬里天(만리에 구름 없으면 만리의 하늘이라네)"라고 하였다.

중생에게 부처님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하면 법신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설명해 놓은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중생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일반적인 신앙정서에서 볼 때에는 번뇌심이나 산란심으로도 부처님을 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때에는 응신이나 화신을 보는 경우다. 발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계기가 부처님의 감응을 느끼는 데서 시작될 때도 있다. 또한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를 듣고도 발심하는 수도 있다. 발심정도에 따라 부처님의 법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장에서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의이다.

수행이란 인간성의 성숙을 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발심공덕이 탁월한 인간성을 발현하고, 본래 갖추고 있던 마음속의 완전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응용하는 경지를 법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불타수용신(報佛他受用身)'을 얻어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보불타수용신은 원효의 설명에 의하면 십지(十地)의 수행을 완성한 보살이 부처님의 법신을 체(體)로 하고, 나타나 작용하는 보신(報身) 곧 수행이 완성됨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과보(果報)를 누리는 몸을 말한다. 상주하는 몸으로 열반경에서는 금강신(金剛身)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법신(法身)을 광명으로 상징하기도 한다. 법신불 비로자나(毘盧遮那)를 광명변조(光明遍照)라 번역하는 것처럼 끝없는 광명이 나오는 진원지가 바로 법신이다.

〈화엄경〉에서는 보살들이 마음의 광명을 써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한다고 말해 놓은 경구가 있다.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의 두 장애를 떠나 무한한 공덕을 함장(含藏)하여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 법신의 본래 기능인 것이다.

보살은 보리심을 구하는 존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㉓ 보살에게 보시하는 이유

若聞其足聲則壞其愛味。菩薩觀前受施福田。頗有共我等者遂見貪愛。眾生則與我等。所以者何。彼貪心無足我施心無厭。彼貪心者愛大施主。菩薩見多乞者亦深生愛敬。貪求者常求施主。欲乞施者常求乞者所欲與之。菩薩常與世人相乞者。皆就施者而乞。菩薩就乞者而施。(약문기족성즉괴기애미。보살관전수시복전。파유공아등자수견탐애。중생즉여아등。소이자하。피탐심무족아시심무염。피탐심자아애대시주。보살견다걸자역심생애경。탐구자상구시주。욕걸시자상구걸자소욕여지。보살상여세인상걸자。개취시자이걸。보살취걸자이시。)

번역

만약, 그 만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 그 사랑의 맛이 무너지나니, 보살은 앞서 받은 보시의 복전(福田)을 살핍니다. 자못, 나와 똑같이 보는 것을 따라 탐욕과 애욕이 함께 있다면, 중생이 곧 나와 더불어 같다고 여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저가 탐심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나는 보시의 마음을 싫어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가 탐욕심으로 큰 시주자를 사랑하지만, 보살은 많은 구걸하는 이를 볼 때, 역시 마음 깊이 사랑과 존경이 생깁니다. 탐욕으로 바라는 이는 늘 시주자를 찾지만, 구걸하는 이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는 늘 구걸하는 이의 바라는 바대로 줍니다. 보살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구걸하는 사람이니, 모두 베푸는 이에게 나아가 구걸하지만,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 나아가 베풉니다.

해설

보살은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바보처럼 보인다.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에 초의 선사가 이르기를 '중생이 중생인 것은 욕심이 많아서이다. 그런데 욕심으로 치면 부처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세상에 또 없다' 고 하였다.

중생은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크게 보시하는 이를 찾고,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위하여 크게 보시할 곳을 찾는다. 그 욕심의 모양이 다를 뿐, 둘 다 욕심쟁이들이다. 보살은 중생이 욕심을 부리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다고 여긴다. '저가 탐욕을 싫어할 줄 모르듯이 나는 보시를 싫어할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할 뿐이다. 심지어 탐욕에 빠진 이를 살펴보면서 되돌려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그래서 그 탐욕에 빠진 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낸다. 그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복전(福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복전(福田)은 복을 심어 거두는 밭이다. 한 알의 씨를 심으면 열배, 백배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밭이다. 밭에 씨를 뿌리듯 보시를 베푸는 마음이 보살의 근본바탕이다. '보살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구걸하는 사람' 이라고 했다.

보살은 무엇을 구걸하는 사람일까? 자신에게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도리어 무엇을 구걸하며, 무엇을 채우는 존재일까? 바로, 보리심(菩提心)을 구걸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보리심은 주어야 비로소 얻게 되는 과보다. 사랑을 주고 또 주되, 아낌없이 주어야 얻게 되는 자기완성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무제(無題)

더러는 흔들리는 사람이요, 때로는 헐떡이는 중생이다.

젊은 시절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할 때 동료 선후배 기자들이 수군거리며 나에게 붙혀진 별명인 '불칼' 과 '일통' 을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불칼' 은 성질이 급하고 지랄같이 날카롭다는 뜻이고, '일통' 은 일방통행의 준말로 고집불통을 의미한다.

늙음은 세월의 무게에 따라 피(血)가 삭아 급행이 완행이 된다는데 타고난 큰 목소리로 냅다 소리 지르는 못된 근성을 뱀의 허물처럼 지니고 있다. 타협도 모르고 원칙만을 고집한다. 대중의 뜻은 부처님 뜻이라는데 100명이 옳다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100명이 다 떠나도 외톨이의 외진 길을 걸어왔다. 후회는 없다.

어릴 적 어머니의 회초리 같은 교육으로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노력하여 거둔 수확이 아니면 멀리하는 지혜를 익혀왔다. 총무부장이면 인사부장의 위치지만 재임 중 일원 한 장 주머니 속으로 거둬들인 일이 없다. 내장사 주지 4년에도 숨은 통장을 키우거나 노후자금이라며 어설픈 짓,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치게 철이 든다.

윤회는 '당생윤회' 요, 생각의 윤회일뿐
상호 연계로 '生·住·離·滅' 되풀이된다

커피맛, 김치맛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룬 진리를 어느만큼 말씀으로 담아낼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두뇌에 간직하는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엷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제자들의 합송으로 기록됐다는 경전에는 얼마만큼의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담겨있을 수 있는 것인가?

형이상학적인 문제지만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問論), 백론(百論)에서도 접근방법이 서툴러 무아(無我)와 윤회(輪廻)에 대한 의혹이 물음표로 그 둘레를 넓혀 갔다.

하여, 제2의 발심으로 배낭 하나 매고 인도로 날아간다. 영문으로 입국서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외국어 문맹은 의지 하나로 버텨내며 노숙자보다도 더욱 비참한 구도자의 길에 접어든다. 인도 3년, 네팔 2년, 티베트 3년, 중국에서 머문 7년까지 15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인도에 머물 때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을 이루게 된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참 앎(知), 참 봄(見)을 이루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간절심으로 이루어낸 깨달음이었다.

이후 중국에서 중국어 기본을 익혀 고어(古語)를 공부하게 된다.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에 밑줄 쳐가며 하나 되는 기쁨이 솔찬하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여태까지 한국불교의 숱한 〈천수경〉 강의집에 구업(口業)의 설명이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의 중복되는 논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천수경(千手經)〉이 의미하듯 코밑에 입만이 입이 아닌 것이다.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며, 콧구멍은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인 것이다.

좁히면 아홉 개의 입이요, 넓히면 세포 하나하나가 털구멍 하나하나가 입인 것이다. 온 몸 그대로가 입 아님이 없는 것이다.

중도(中道)의 이해에 있어서도 경전에 등장하는 거문고 줄에 집착해 느슨해서도 팽팽해서도 고른 소리가 울리지 않음을 교과서처럼 여겨 왔던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도 밝히고 있듯 중(中)은 정(正)인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운데 중(中)이 아니라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정토(淨土)이며,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중(中)임을 알아야 한다. 임제의 수처작주(隨處作主)는 누리는 중(中)인 것이다. 중국의 삼론종(三論宗) 에서도 밝히고 있듯 대(對)와 변(邊)에서 자유로운 것이 중(中)이요, 미(迷)와 사(邪)에서 얽매임이 없는 것이 정(正)인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사상인 무아(無我)에 있어서도 연기 법칙과 무아사상은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이다. 우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Brahman)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주재한 아트만(Atman)에는 기신론(起信論)의 진여(眞如)까지 끌어들이며 미련을 두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명쾌하게 밝히지만 윤회는 당생윤회(當生輪廻)요, 생각의 윤회일뿐 영혼 따위는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상호 연계작용으로 생(生)·주(住)·이(離)·멸(滅)과 성(成)·주(住)·괴(壞)·공(空)이 되풀이 될 따름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조선 후기 불교조각 明匠… 시대를 이끌다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⑩ 상정(尙淨) 스님





18세기 중반 상정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755년 경기 양주 회암사 봉안 목조여래좌상〈사진 왼쪽〉과 부천 석왕사 봉안 목조보살좌상〈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40여년 활동하며 불상 조성 · 개금
진열 · 태원 계보를 계승한 조각승
'재장' 으로 칭송… 조각사에 한획
담양 서봉사 주석하며 영호남 활동

18세기 중반에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서 활동한 상정(尙淨, 常淨, 相淨) 스님은 앞 시기를 대표하는 진열(進悅) 스님과 태원(太元, 泰元) 스님을 계승한 조각승이다. 상정 스님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불상을 제작하거나 앞 시기에 제작된 불상을 주로 개금(改金)하였다. 현재 상정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목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4건 7점이 있고, 불상을 개금한 기록은 6건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상정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사적기(寺蹟記) 등의 문헌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조각승 계보 등을 밝힐 수 있다.

상정 스님은 태원(太元) 스님과 1743년에 전북 임실 신흥사 불상, 적조암 관음삼존삼 등을 개금 · 개채한 후, 1745년에 서울 강남 봉은사 영산전 불상을 조성하고, 1747년에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과 1748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신법당 불상을 개금하였다.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시주한 기록이 남아있다.(밑줄부분)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당시 상정 스님은 10여명의 조각승 가운데 세 번째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불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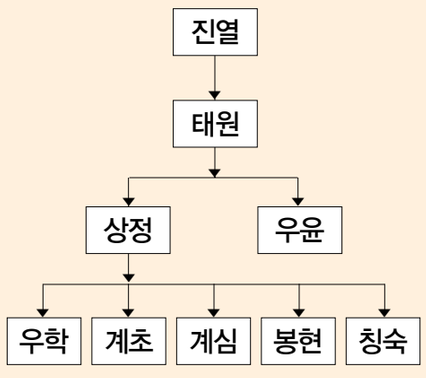
상정 스님은 수화승(首畵僧)으로 1752년에 경남 사천 다솔사 삼존불상과 지장상을 개금하고, 1755년에 전남 창평 용흥사 상선암 목조여래좌상(양주 회암사 소장)과 용화암 목조보살좌상(부천 석왕사 소장)을 조성하였으며, 1757년에 벽암각성(1575~1660) 스님이 1630년에 중건한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불을 계초(戒初) 스님과 개금하였다.

당시 화엄사 대웅전 중수, 불상 개금, 후불탱화 조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 불사(佛事)에 참여한 스님은 증명(證明)에 대선사 처관(處寬), 편수(片手)에 쾌연(快演), 불화(佛畵)에 의겸(義謙) 등으로 당대 최고의 지위에 있던 스님들이다. 따라서 불상을 개금한 상정도 이들 정도의 지위와 명성을 지녔던 승려로 볼 수 있다. 상정 스님은 의겸 스님이 제작한 불화에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상정 스님은 1761년 6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칭숙(淑) 스님, 우윤(宇允) 스님, 태영(泰英) 스님, 최신(最信) 스님, 행안(倖安) 스님, 신찬(神贊) 스님과 경남 합천 해인사 백련암 목조여래좌상(백련암과 거창 고견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현재 불상들은 원 조성사찰인 백련암과 거창 고견사에 따로 봉안되어 있지만, 7명의 조각승이 52일에 걸쳐 높이 53cm 정도의 삼존불을 만들었기에 18세기 중반 불상의 조성 기간과 참여 작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후 스님은 1762년에 대구 달성 용연사 극락전 불상을 개금하고, 1765년에 경북 포항 오어사 대웅전 불상을 제작하였다.

상정 스님의 조각승 계보



그리고 스님은 1767년에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불을 개금하고, 1769년에 경주 불국사 대웅전 삼존과 관음전 보살상을 개금하는데, 사적기에 "도금양공(塗金良工) 호남(湖南) 상정(尙淨)"으로 언급되어 있고, 1771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을 개금하였다.

또한 스님은 1774년에 지리산 대암정사에서 중간(重刊)한 〈대방광불화엄경소초(大方廣佛華嚴經疏)〉 권61과 1775년 〈대방광불화엄경소초〉 간행에 시주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상정 스님의 활동 시기는 1743년부터 1775년까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상정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속성이 장(張)씨로, 아버지 장한신(張漢臣)과 어머니 김선업 사이에서 17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730년대 보조화승으로 활약한 후, 1740년대 태원(太元) 스님과 불상 제작과 개금을 주도적으로 하고, 1750년대에는 10여명의 조각승을 이끄는 수화승(首畵僧)으로 활동하였다.

스님은 주로 암자에 봉안되는 중소형의 불상을 제작하고, 호남과 영남의 주요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중수 · 개금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명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정 스님은 1750년에 담양 서봉사에서 살다가 1770년대 순창 신광사에 머물렀음을 문헌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정의 스승인 태원(太元)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 스님과 함께 1713년에 경기 북한산 고양 노적사 불상(고양 상운사 봉안)을 제작하고, 1719년에 전남 나주 운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개금하면서 시왕상을 개채(목포 달성사 봉안)하였으며, 1728년에 수화승으로 강원 춘천 청평사 불상을 개금한 후, 1745년에 서울 봉은사 영산전 불상을 제작하여 18세기 전반과 중반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따라서 상정 스님의 계보는 자수(-1673-)→성심(-1673-1695-)→진열(-1695-1722-)→태원(-1706-1748-)→상정(-1743-1775-)→우학(-1745-1774-), 계초(-1745-1790-), 봉현(-1780-1790-), 칭숙(-1754-1780-), 계심(-1771-1787-), 진퇴(-1770-1792-)로 이어진다.

특히 1774년에 지리산 대암정사에서 중간(重刊)한 〈대방광불화엄경소초(大方廣佛華嚴經疏)〉 권61 간기에 "비구 상정(尙淨) 복위 망사(亡師) 취암(就岩) 영(靈) 망부(亡父) 장한신(張漢臣) 망모(亡母) 김씨선업(金氏善業) 양주 영가"와 권62 간기 "비구 우학(羽學) 복위 은사(恩師) 상정(尙淨) 보체"라는 내용을 통하여 스님의 법맥은 취암→상정→우학으로 이어진다.

상정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양주 회암사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이다. 이 불상은 1755년에 창평 용흥사 상선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상정(尙淨), 유순(有淳), 우학(宇學), 칭숙(稱淑)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창평 용흥사는 〈범우고(梵宇攷)〉에 "전라남도 평창 용구산(在全羅南道昌平 龍龜山)", 〈가람고(伽藍考)〉에 "현의 북쪽 15리(在縣北五十里)", 1871년에 간행된 〈호남읍지(湖南邑誌)〉 창평현 사찰조(寺刹條)에 "용흥사는 용구산에 자리하며 궁(宮)의 원당(願堂)으로 종이를 만드는 임무를 담당하였다"고 적혀 있다. 현재 이 사찰은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에 위치하고 있다.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50.2㎝로, 조선후기 제작된 중소형불상이다. 불상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얼굴과 앉은키의 비례가 알맞은 편이다. 머리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로 표현되었고, 육계 밑에는 머리 정상부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 부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뾰족하며,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과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긴 물방울 같이 U자형을 이루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늘어진 중앙의 옷자락이 S자형을 이루고, 옆으로 4~5겹으로 펼쳐져 대좌까지 길게 늘어진 옷자락 사이사이에 연봉오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하였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어 상단에 주름이 안상(眼象)같이 표현되었다. 불상 뒷면의 처리는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대좌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가운데 두 가닥의 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상정 스님이 만든 불상은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불상의 신체비율을 따르고,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대의 처리가 스승인 진열이나 태원 스님이 만든 불상과 약간 다르다. 특히, 스님은 18세기 중반 불상 제작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불상의 개금과 개채 불사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였다.

상정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8세기 중반에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경남 산청 정취사 목조보살좌상으로 전체적인 인상과 대의 처리 등이 같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계초와 봉현 등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전남 순천 선암사 불조전 목조여래좌상(1구), 경기 남양주 흥국사 극락전 목조삼존불좌상, 전라북도 고창 문수사 목조여래좌상 등이다.

도경스님의 실전 영반 靈盤구성학 부산강의

구성통변! 들을 때 뿐 통변이 안 됩니까?
점사에 말 문이 막혀 자신이 없습니까?
손님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구요?
구성학의 맹점을 해결한 영반구성학은 !!!
문점자를 보는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문 여는소리,발자국 소리만 듣고도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는순간 통변이 가능하고 잘 맞습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점사가 가능합니다.
교육 후 통변이 안 되면 재 수강이 가능 합니다.

구성점사를 단순히 숫자로만 통변 한다면
말문이막히고 전문 통변가가 되지 못합니다
각 궁에는 기가있고 영체가 있으며 들고 나는
숫자 역시 영성에 의해 움직이므로 단순히
숫자의 자리이동이라 생각한다면 점사가
막힙니다.영성의 감각 기관을 깨우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장소
부산 사하구 괴정동 194-43
(051) 206 - 3488

협회등록번호 제0189호
대한靈盤구성학협회

구성학 전문가가 만든
핸드폰용 구성학 앱 탄생!

구성학앱설명
구성학 앱은 핸드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써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 없이 구성영반이나 사주명조, 만세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프로그램 입니다. 스마트폰용 구성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구성학앱의 기능
구성 수 를 오행색상으로 구분되어 상의가 쉽게 연상되게 하였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스마트폰에 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를 색으로 표현하고 시간을 영반과 같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성포국은 년월반,월일반,일시반 등을 보기 쉽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본명반은 각 궁의팔괘 및 상의를 표시하여 통변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구성학앱 다운로드 방법
핸드폰에 있는 앱 스토어에서 구매설치 하며 앱 스토어를 실행시킨 후 구성학앱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가격은30,000원이며 한번구매 이후 추가 비용 발생없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학 앱 실행시 오류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http://cafe.daum.net/gusungapp)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무법인등록 204-82-76850
禪 대한불교조계종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만큼 작은 종단입니다.
도반이나 사형사제처럼 지낼분만 모십니다.



禪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입문,종도 모십니다.
문의:(051)206-3488



법민스님의 산사음악회 CD 발매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 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 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산불원
051-2 3 1-6455
010-9049-0016
• 후원계좌 : 국민은행 106937-04-04001891 다산불원

그리운 금강산 사진으로 만나다

조계종 민추본, 이정수 사진전
6월 8~15일 갤러리 나무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이정수 사진전 '금강산, 그리고 신계사'를 개최한다.

남북 화해를 염원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교류가 하루빨리 재개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이번 사진전은 6월 8~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서 진행된다. 개전식은 6월 8일 오후 3시 개최한다. 민추본은 8일 간 이정수 사진작가의 신계사와 금강산의 사계 및 불교유적 사진 40여 점을 대중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남과 북의 화해를 염원하며 금강산 관광과 남북간 교류가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또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신계사와 아름다운 금강산의 절경을 사진으로나마 다시 보고 남북의 화해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정수 사진작가는 2010년에도 민추본 주최 금강산 신계사 낙성 3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도 KBS 시민기자상, 서울특별시 표창, 대한매일신문 금강산 공모전 금상,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공모전 특별상, 현대 금강산관광 1주년 기념 감사패 등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문화상품 공모

8월 16~20일 접수… 대상 500만원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바탕으로 템플스테이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8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8월 16~20일 불교문화관광콘텐츠 ·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문화상품과 기념품 등의 작품을 공모한다. 판매가 10만원 미만의 상품이어야 하며, 문화사업단이 제공하는 설화 · 디자인을 활용해도 된다. 단 제공되는 템플스테이 캐릭터(아생여당) 활용작은 템플스테이 운영물품으로 공모부문을 제한한다.

참가희망자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시제품 또는 상품디자인 판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와 달리 일반 · 학생부문을 통합해 진행된다. 대상(상금 500만원) 1명을 비롯해 우수상 · 장려상 · 특선 · 입선 · 특별상 등 36명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발표는 9월 9일, 시상식은 29일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인, 韓 명품 불교프로그램 만난다

BTN, KAC와 '해외 한국어 방송 방영권' 확약 체결

BTN 불교TV 정규프로그램과 명품 다큐멘터리를 전 세계인이 시청하게 된다.

BTN 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5월 2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확약'을 맺고 해외한국어방송사에 일부 BTN프로그램의 공급을 진행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BTN의 인기 프로그램인 'TV멘토링, 소감', 'This is Hwansan sunim(디스이스 환산스님)' 과 다큐 '불복장(佛腹藏)' 등이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케냐, 베트남 7개국에서 방송된다.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 방영권 제공'은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매년 국내외 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진행해왔다.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사는 총 87개. 그 중 17개사에서 BTN콘텐츠를 공급받기 위해 사전 신청했다.

대부분의 선정 프로그램이 '무한도전', '진짜 사나이' 같은 예능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종교 채널 중 유일하게 BTN 프로그램이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종교채널 중 유일 선정 '쾌거'
미국 · 뉴질랜드 · 케냐 등 7개국
해외 방송사에 7월부터 공급

이번 BTN프로그램을 신청한 한국어방송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GBS다.

BTN측은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다룬 BTN프로그램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전파를 탄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해외 한국어방송사에서 방영될 예정인 BTN프로그램은 총 5개의 타이틀로 △다큐 △법문 △교양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2015년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작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과 2014년 최우수상 수상작인 '붓다의 식사(食思)'를 비롯해 한국 선불교와 명상에 대해 강의한 'Hello, This is Hwansan sunim' 등 48편,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멘토들의 강연을 다룬 TV멘토링 '소감' 49편, 아름다운 영상과 테마 여행 길라잡이 '여행 포엠, 소풍' 6편이 공급대상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BTN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 따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또한 다큐뿐만 아니라 50여 편의 시리즈로 구성된 정규프로그램이 2작품이나 선정됐다. 이는 불교콘텐츠제작 보급의 새로운 희망 영역이다. 앞으로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맞춤 콘텐츠 제작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년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작인 BTN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사진 위)과 2014년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작인 '붓다의 식사'(사진 아래)의 스틸사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확약'에 따라 전 세계에 방영된다.

장인이 피워낸 '紙花' 꽃놀이 하러 가볼까

국립무형유산원,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회
불교의례 지화부터 왕실 공예까지 '한눈에'

전통공예 속에 나타난 꽃을 주제로 선보이는 특별전 '장인이 피워 낸 꽃'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8월3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장인이 피워 낸 꽃'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재 등 불교의례의 재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종이꽃과 꽃을 소재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각종 공예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문화에서 꽃으로 표현된 다양한 시대적 상징과 전통 공예기술의 정수를 소개한다.

장인이 피워 낸 꽃 특별전에서는 △불교의례의 위엄을 더하는 장엄구(莊嚴具)인 종이꽃 '지화'(紙花) △인공의 꽃 '가화'(假花) 제작과 꽃무늬 장식의 전통 △소망과 염원을 담은 길상(吉祥)의 꽃 △선비의 멋과 이상을 재현한 꽃 △조선 후기 문인의 지성사가 피워 낸 꽃 공예의 전통 △건축의 단장을 위한 꽃 △꽃 공예의 밑그림인 도안(圖案) 등의 내용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과 관련 유물 등 전시품 100여점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의 영상과 사진이 종합적으로 전시된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에서 볼 수 있는 종이꽃 '지화'는 불교의례와 무속의 굿에서 지화 장엄의 전통을 잘 간직한 대표적 예로, 의례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환하고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주요 장엄구다.



영산재 보존회 해월 스님의 작품 '영산재 부채난등'

전시에서는 연출영상과 공간재현을 통해 이들 작품이 전체적인 의례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꽃을 소재로 한 조선왕실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은 한국 전통공예 기술의 진가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공예품을 종목별, 기법별로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꽃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가화 전통이 갖는 문화적인 상징 의미를 녹여내도록 연출했다"면서 "우리 삶의 전통적 소망과 이상 그리고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전 기간에는 꽃 소재 공예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인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나전 · 자수 · 화각 등 종목별 전승자들이 실제로 꽃 공예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인의 공방'이 전시실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8세 이상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특별전 전시해설과 함께 전승자가 직접 공예 제작방법을 가르쳐주는 체험교육 '내가 피워 낸 꽃'이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063)280-1400 **신성민 기자**

어르신 신인작가님들 개인전에 도전하세요

탑골미술관, 작가 공모사업 실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신진작가 지원 사업에 나선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은 '2016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으로 작가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접수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신진작가 지원사업은 사회의 선배시민인 어르신이 신인작가의 첫 개인전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공모분야는 평면, 입체, 복합, 미디어 등 모든 분야 가능하다. 40세 미만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어르신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진행이 가능한 작가는 우대한다.

참가를 원하는 작가는 공모신청서 1부, 최근 3년의 작품 이미지 10점 내외가 담긴 포트폴리오 3부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전시회는 8월 중 포트폴리오 심사에 이어 단체전 관객투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2017년 2월 4주 간 개최될 예정이다.

탑골미술관장 희유 스님은 "선배시민인 어르신이 신인작가에게 생애 첫 개인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작가는 그에 대해 창작물로써 화응하는 세대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6220-8595 **신성민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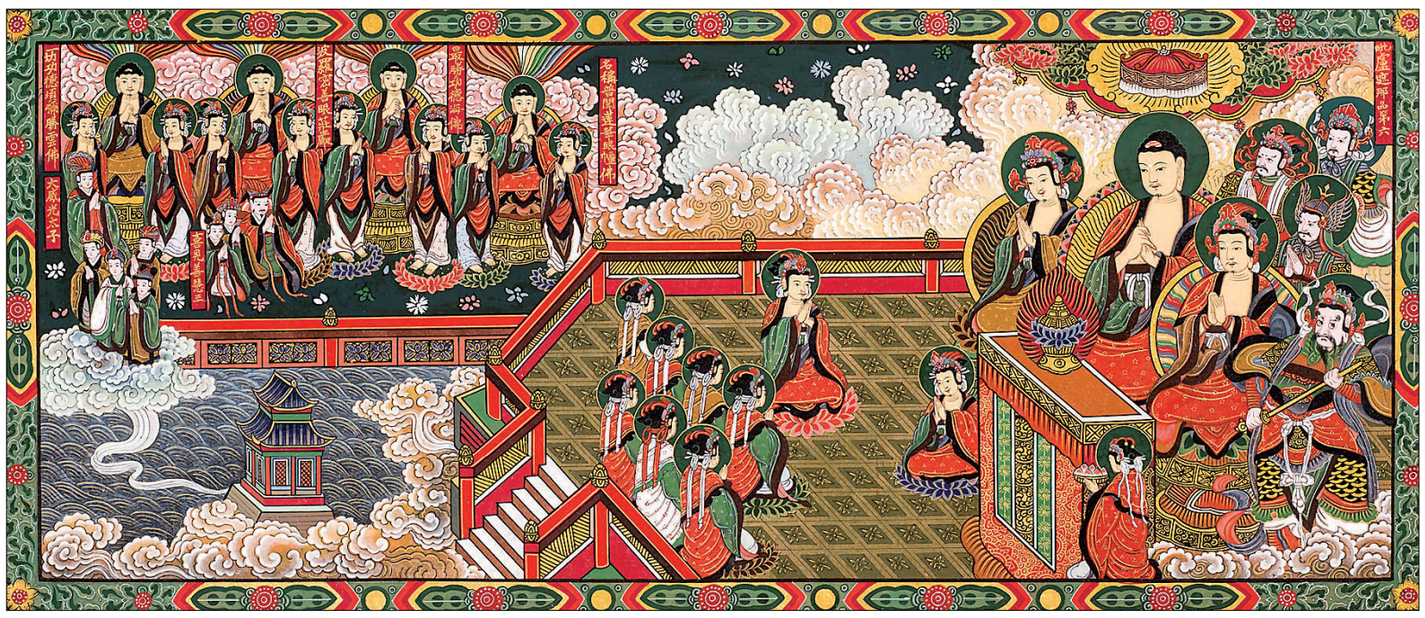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화엄경서 우리가 증득 할 것은?… 신심, 발심, 보리심



화엄경 80변상도 이야기

자훈 스님 지음 | 사유수 펴냄 | 6만 5천원



제1회 법보리장회, 6품, 서분, 신. 비로자나품을 설하는 변상도 11권에서는 본격적인 화엄 설법이 시작된다.



그림 속 명패 경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저자, "화엄경은 보살행의 극치" 극찬
변상도 불화장이 해인사판 고증해 재현
잘못 새겨진 부분 바로잡아 부록에 수록

〈화엄경〉은 부처님이 광명으로 우주법계를 보여주고 그 위신력으로 보살들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해인사 장경각 〈화엄경80변상도〉는 방대하고 심오한 화엄경 교의를 함축해 조각한 세계 유일의 목판으로 화엄경 80권의 핵심 내용을 잘 표현해 거듭 놀라고 감탄하게 된다.

조계종 경전연구회 회원으로 13년째 활동중인 자훈 스님(금강선원 주지 · 사진)이 〈화엄경80변상도〉를 해설한 책을 내놓았다. 책은 명패 순서에 따라 전개되며 명패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화엄경의 핵심을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자훈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은 수행자로서 한 순간도 나태해지지 못하도록 다잡아 주는 소중한 경전"이라며 "화엄경은 보살행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극찬했다.

저자에게 화엄경과의 인연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1990년 문경 봉암사 법당에 화엄경 80변상도 벽화를 불사하는 현장에서다. 저자는 당시 벽화 설명을 돕기 위해 변상도 원고 정리 작업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저자는 〈화엄경 80변상도 주해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처음 해인사 고려대장경 화엄경변상도 목판 인쇄본을 대했을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처음엔 금방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림이 복잡해 보이고 막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친절하게도 그림속에 내비게이션처럼 명패가 기록돼 있더군요. 경전 속에서 대조해 내용을 찾아 하나하나 확인해 갈수록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불보살의 세계가 깊고 넓고 오묘해서 마치 엄청난 역사에 동참하는 듯 환희로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힌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 불화와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저자는 화엄경 관련 서적을 모조리 찾아 읽었고, 각국의 화엄성지 순례와 답사를 하면서 박물관에 들러 자료를 모았다. 그런데 변상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자가 가장 크게 고민 한 것은 변상도 각 권의 그림이 경전 내용 순서와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변상도는 경전 앞이나 중간, 뒷부분의 중요 대목을 골라 표현했기 때문에 연결성이 떨어졌다.

저자는 "그런 점을 보완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상도 그림 속에 명패로 새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경전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는 방법을 취했다"며 "각 권마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조각으로 표현돼 있고, 화엄경의 주옥같은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어 감탄하게 됐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화엄경 80변상도〉 그림과 경전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 화엄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임을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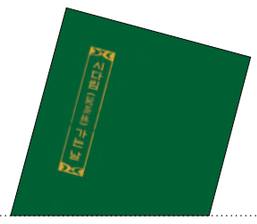
변상도서 비로자나부처님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설법하는 보살과 대중들은 부처님 가까이에 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화엄경80변상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이 해인사판을 원본으로 철저히 고증해 재현한 채색화이다. 각 권마다 중요 대목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쉽게 화엄경을 이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책의 큰 특징이다. 또한 한글 세대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려운 한문 용어를 최대한 풀어 썼으며, 해인사 장경각 목판 화엄경변상도서 잘못 새겨진 부분을 바로잡아 부록에 실었다. 따라서 부록에 실린 화엄경 도표를 보면서 책을 따라가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 비하면 화엄경은 사실 39품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다. 게다가 깊고 오묘한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다뤄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엄경을 대할 때는 첫째 환희심을 내야 합니다. 환희심이 일어나면 신심이 생기고, 그러면 발심하게 되죠. 그 속에서 반드시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화엄경 속에 일체중생들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 하는 대목이 있는데, 환희심이 없다면 결코 찬탄은 불가능합니다. 찬탄은 긍정의 마음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죠. 또한 찬탄 할 수 있어야 신심이 일어납니다. 결국 화엄경서 유도하는 것은 신심, 발심, 보리심인 것이죠.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환희심을 내면 반드시 화엄경이 좋아질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화엄경서 독특한 점은 광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인 삼매에 들기 이전에 항상 '방광(放光)'을 행하셨습니다. 일체대중이 그 광경만 보고도 찬탄을 했다고 전합니다. 발바닥, 발가락, 발목, 무릎, 가슴, 입, 미간서 빛이 나왔다고 한 것은 상징적으로 빛을 발하는 각각의 신체부위 높이에 따른 화엄의 계위를 의미하죠. 뒷부분에선 전부 미간에서만 방광을 행하십니다. 즉 마음이 형상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광명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명을 쏘면 일체 시방세계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부처님 마음을 보고, 환희심을 내고, 찬탄을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내용들이죠. 결국 불교서 말하는 마음은 '빛' 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칙칙한 마음을 가졌다면 광명을 낼 수 없을 것이고 광명을 바라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죽음은 무상을 가르치는 최고 법문"



시다림 가는 길

범철 스님 엮음 | 부다가야 펴냄 |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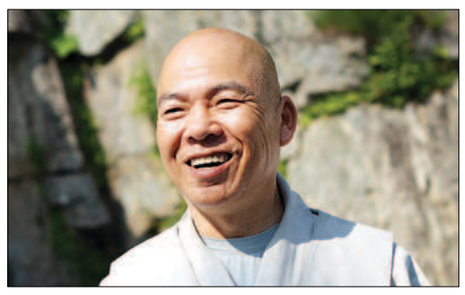
"부처님은 태어남을 창공에 한 점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죽음을 한 점 구름이 사라짐과 같다고 하셨다. 무상함을 배우고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바로 죽음이다"

불교 의식집 〈시다림 가는 길〉을 펴낸 범철 스님(원효암 주지 · 사진)은 죽음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죽음을 제대로 직면하고 알아 그 가운데 참된 무상함을 아는 것은 불교 명상법 가운데 하나이다. 큰 스님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고요히 죽음을 받아들인다. 임종의 순간을 바라보며 중생들은 마지막 법문이라 여기고 그 순간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범철 스님은 책 〈시다림 가는 길〉을 통해 불교의 성스러운 임종 의식을 되살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책을 편찬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님은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스님의 염불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법문독송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옆에서는 곡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며 현재 장례문화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범철 스님은 이어 장례 문화가 달라져야 하며 그 가운데 불교 의례가 확실히 자리 잡을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다른 불교 이웃나라를 보면 경건함과 성스러움으로 슬픔을 위로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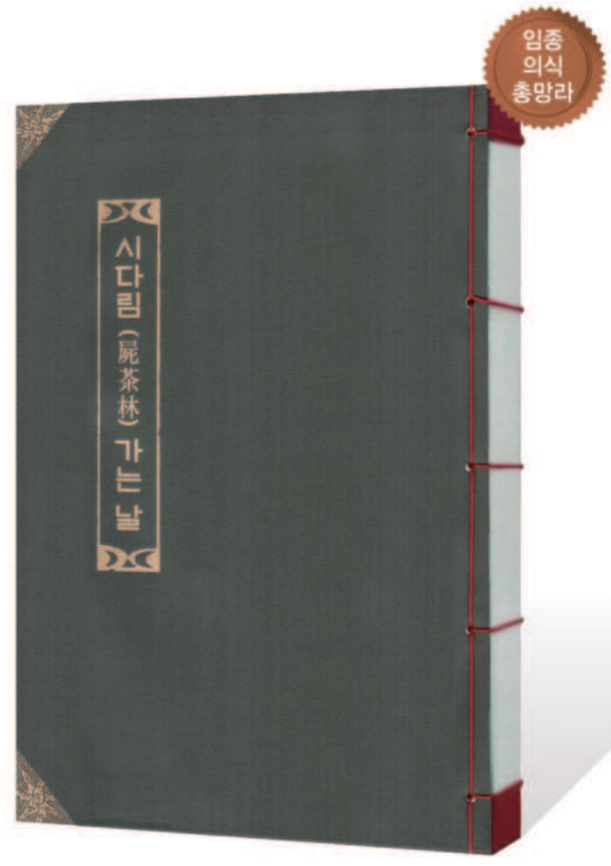


스님의 법을 청해 영가를 천도한다"며 "불교 의식집 〈시다림 가는 길〉은 전통 불교 장례 의식을 담아 간추려 정리한 책으로 우리나라 불교 장례문화를 성숙하게 되돌리기 위해 엮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 〈시다림 가는 길〉은 불교 장례의식 '시다림'을 정리했다. '시다림' (尸茶林)은 인도 시타바나(Sitavana, 寒林)서 유래됐다. 시타바타는 추운 숲으로 인도인들이 시체를 버리는 곳이며 인도 왕사성 옆에 위치한다. 시타바타는 죽은 시신을 숲에 버리면 독수리 떼들이 날아와 먹어 치우는 조장(鳥葬)의 풍습이 행해진 곳이다. 시다림에 한자 차다(茶)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시체를 숲에 두고 차를 올린 것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뜻이 바뀌어 망자를 위해 설법하는 것을 시다림이라 하고, 이를 시다림 법문이라 부른다.

이 책은 시다림에 대한 정의와 다비의 뜻을 정리했으며 시다림 첫날에 진행 할 사자단작법, 시다림 시식 및 독경을 적어두었다. 또한 산소 및 화장장, 유골 수습 및 유골 봉송, 위패봉안, 매장식까지 장례 절차에 맞는 모든 방법을 정리했다. 특히 한자와 함께 한글음 까지 엮어 두어 쉽게 접근하도록 배려했다.

범철 스님은 "책은 스님 뿐 아니라 일반 포교사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 했다. 목탁과 요령(搖鈴)을 울려야 하는 시점 까지도 표시해 한번 정독만 하면 시다림 의식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불교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30년 동안 염불 하고 통도사 노전을 하며 학인을 가르쳤는데 시다림 관련 질문이 많았다. 그래서 5년 동안 구상하고 계획해 책을 내게 됐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또한 책 말미에는 영가를 위한 〈불설아미타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을 적어두었다. 범철 스님은 "시다림의 핵심은 생과 사의 무상함을 알아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영가가 죽음 후 망망대해와 같이 갈 길 몰라 헤맬 때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하성미 기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시다림(尸茶林) 가는 날

임종 후 시다림 첫날 사자단작법부터
발인 화장 유골봉안 매장의식까지

범철스님이 오랜 집전 경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시다림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직접 집전하려는 이나 불교의 성스러운 임종의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글로 풀어 쓴 알기쉬운 임종의식 전과정 수록

- 사자단작법 (시다림-첫째날)
- 영반 및 독경(시다림 둘째날)
- 화장의식(화장장에서)
- 위패봉안(반혼재)
- 시다림 시식 및 독경
- 發靷日(산소나 화장장으로 가는 날)
- 유골 수습 및 유골 봉안
- 매장식(산에서)

범철(凡哲)스님은
천수경 반야심경 팔양경 관음시식 참선곡 광명진언 등 염불독경 CD를 다수 펴내었다.



범철 편저 | 한장본 | 298쪽 | 값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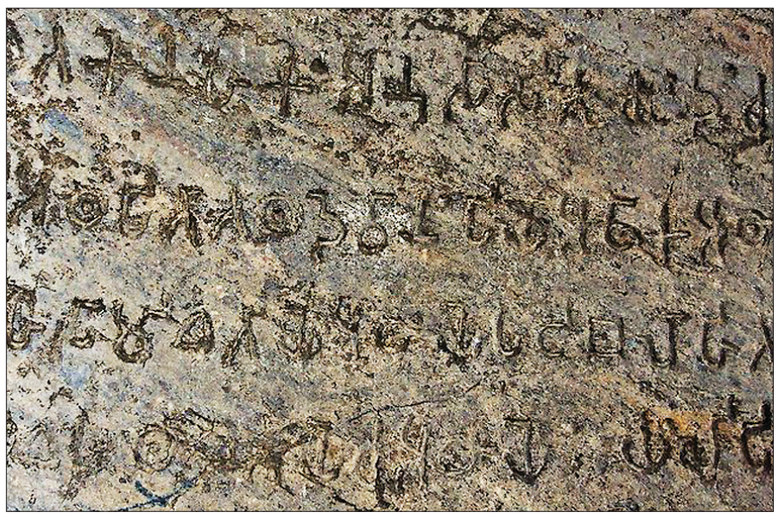
'부다가야'는 삼세의 대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지로,
'도서출판 부다가야'는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불서를 펴냅니다.

불교전문 편집회사 대한기획 | 도서출판 부다가야 | 불교서적 · 용품 부다가야 대표전화 | 051)865-4383

UCLA 연구진, 고대 불교 지역 121곳 발견

국제학술지 '커런트 사이언스' 게재

'아소카 칙령' 비문 토대로 연구
구글 어스,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아소카 시대 글 최초의 문자로 중요"



인도 대륙의 정치, 종교, 언어를 연구하던 고고학, 지리학 교수들과 그의 제자들이 기원전 3세기, 북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지역을 발견했다. 사진출처=UCLA

미국의 고고학, 지리학팀이 고대 불교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 121곳을 발견했다.

미국 UCLA대학신문은 5월 26일(현지시간) "인도 대륙의 정치, 종교, 언어를 연구하던 고고학, 지리학 교수들과 그의 제자들이 북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인 기원전 3세기경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지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고학자 모니카 스미스와 지리학자 토마스 질스피가 아소카 시대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121곳을 발견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제학술지 커런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진들은 먼저 아소카 칙령이 새겨진 비문 33개가 있는 곳 가운데 29곳을 분류했다. 29의 칙령들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분포한 자연 암반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 구글 어스 이미지검색 기능과 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리학적으로 독특한 특질을 가지며 고대 인도의 인구가 밀집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지역들을 찾았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지역들이 모두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 지역들이 정확히 검증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니카 스미스 교수는 "이러한 조사 방식이 추후 아소카 시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소카의 칙령과 기타 고고학적 발견은 지역 전체의 종합적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소카 시대에 쓰여진 글들은 인도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상용되던 문자이기에 인도에서 아소카 시대의 기념물들은 매우 중요하다"며 "아소카 시대 지역 발굴 외에 당시 인간이 만든 유물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소카의 칙령(Edicts of Ashoka)은 고대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자신의 재위 기간 중 기원전 269년부터 231년 사이에 세운, 아소카의 기둥·바위·동굴의 벽에 새겨진 33개의 비문이다.

아소카 왕은 이웃 칼링가 왕국을 침략하여 행사했던 끔찍한 폭력 때문에, 그 자신의 설명에 따르자면 10만 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고국에서 쫓겨났다. 양심의 가책에 휩쓸린 그는 불교 신자가 되었고, 전쟁을 그만두었으며, 오직 '다르마(올바른 삶의 원칙)'에 따라서만 정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선포했다. 이 비문들은 현대의 인도·네팔·파키스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이 지역들에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확실한 최초의 증거들이다.

스미스 교수는 "아소카의 칙령에는 인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들 중의 한 명의 후원 하에 불교가 최초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시기 동안 불교는 지중해 지역까지 전파되었으며 많은 불교 기념물들이 만들어졌다"며 "비문에는 아소카가 불교로 귀의한 일과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 그의 도덕적·종교적 교훈,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아소카는 병원과 휴게소를 짓고 우물을 파게 했으며, 멀리 스리랑카까지 선교단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교수의 연구는 오랫동안 인도 전역에서 진행돼왔다. 이번 연구를 위해 UCLA의 후원을 받은 그는 자연생태학과 생물학 및 지리학을 연구하는 질스피와 함께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질스피 교수는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연구 프로젝트 과정을 보고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UCLA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짜 아소카 칙령에 나오는 곳을 데이터와 이미지를 활용해 환경 분석했다"고 말했다.

질스피 교수의 연구팀은 특정 성분의 바위에 새겨진 문구, 아소카왕 시대인 서기 200~300년 시기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 칙령이 새겨진 경사진 바위 등 세 가지 요인이 발견되는 곳들을 토대로 고대 불교지역을 추려나갔다.

질스피 교수는 "이런 발굴작업 방식이 높은 정확도를 가져와 고대 불교지역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우리의 발굴 방식을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 학생들과 교수진들도 적용해 아소카 칙령의 위치들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환자 위한 '불교적 영적 치유' 美서 인기

New America Media, 영적 치유 활동하는 스님들 '주목'



세이간 스님은 금속 그릇으로 된 티베트 악기를 활용, 환자들을 위한 영적 치유 활동을 활발히 이끌고 있다. 사진출처=here&now

불교의 마음챙김명상이 서양사회에 빠르게 흡수되는 가운데, 다문화 소식지 'New America Media'가 마음챙김명상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소개해 주목된다. 특히 연명치료 또는 말기암 환자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온을 찾는 방법으로 불교명상이 각광받고 있다.

'New America Media'는 5월 27일 "약 300만 미국인들이 윤회사상을 가르치는 불교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은 명상과 마음챙김에 매력을 느낀 '베이비붐' 세대의 서양인"이라며 "이로 인해 불교의 영적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몇몇 병원에는 상담 스님들이 주둔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New America Media'는 병원서 환자를 위해 명상치유법을 실시하는 세이간(Seigan) 스님을 소개했다.

세이간 스님은 병실로 들어가 가장 먼저 환자에게 "오늘 하루 어떤가요?"라고 물은 뒤, 간단한 대화를 이어나간다. 침대에 몸을 의지한 중환자들은 대화가 매우 어렵지만 천천히, 그리고 작게 스님의 질문에 답한다. 이는 환자에게 주체의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 후 세이간 스님은 금속 그릇으로 된 티베트 악기를 나무 막대로 두드린다. 명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평화를 불러오는 의식이다. 이 영롱한 소리에 맞춰 환자와 그 가족들은 눈을 감고 점차 명상에 빠져들며,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들을 벗어던진다. 불자가 아닌 환자 및 가족들도 함께할 만큼 세이간 스님의 영적 치유 명상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마음치유명상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불교적 영적치유가 가능한 스님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New America Media'는 "영적 치유 스님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더 크다"면서 "또 영적 치유 스님들을 교육하는 곳은 미국 내 오직 1곳, 뉴욕명상치유선센터(the New York Zen Center for Contemplative Care) 뿐이다. 스님들은 이곳서 엄격한 인증교육을 거쳐 '영적 치유가'로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패달로 강 가로지를 때 가장 좋아"

日 스님, 브라질 올림픽 카약부문 국가대표 출전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일본 카약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카즈키 야자와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일본의 한 스님이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일본 카약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 맹훈련 중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5월 30일(현지시간) 일본 나가노에 위치한 1400년 전통사찰 다이칸진사(寺)에 주석 중인 카즈키 야자와(27) 스님을 소개했다.

야자와 스님의 하루는 일반 승려들과 다를 것 없다. 새벽부터 일어나 오후 3시까지 하루 5번의 경건한 예불을 올린다. 그러나 그 후의 생활은 금메달 획득을 위해 훈련하는 카약 선수다.

스님은 사원서 하루 일정이 끝나면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사이가와 강으로 간다. 오는 8월 열리는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서 카약 슬라럼 남자 싱글 부문에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카약 훈련을 한다는 야자와 스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연습 하려고 한다"며 "패달을 아래위로 움직이며 강을 가로지르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야자와 스님은 출가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카약 슬라럼 남자 싱글 부문서 9위를 차지, 일본 역사상 신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은퇴 후를 걱정했다.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 카약선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스님은 케네이 코야마 나가노 카누협회장을 만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코야마는 다이칸진사 근처 한 사찰의 대제사장을 지내면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야자와 스님은 불교에 귀의, 지난 해 4월 일본 카누 경기서 우승해 브라질 올림픽 출전권을 땄다.

야자와 스님은 "곧 있으면 브라질 리우에 간다. 꼭 우승 하고 싶다"며 "나중에 코야마 회장처럼 어려움을 겪는 선수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 기자



'불법의 온상' 태국 호랑이 사원

동물학대 및 불법 밀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온 태국 '호랑이 사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태국 깐차나부리의 호랑이 사원은 스님들이 137마리 호랑이와 함께 사는 모습이 화제가 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최근 이 사원서 죽은 호랑이새끼 40마리가 발견되며, 그간 의혹으로 남았던 호랑이 불법 번식과 밀매, 호랑이에게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국 야생생물보호청은 6월 1일 호랑이들을 전부 압수해 동물보호구역으로 이송했다. 당국은 올 초부터 호랑이 몰수를 시도했지만 사원의 반발로 실패,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 사진출처=Mail Online

박아름 기자

※ 경전사경·사경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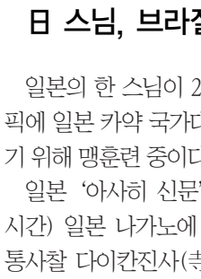
경전사경 제31호
우리말 금강경
할인가 1,800원 (100권이상)
정 가 3,000원 (1권)
• 제 본 : 좌철 무선제본
• 크 기 : 19㎝×26.2㎝



경전사경 제32호
우리말 지장경(上)
할인가 2,100원 (50권이상)
정 가 3,500원 (1권)
• 제 본 : 좌철 무선제본
• 크 기 : 19㎝×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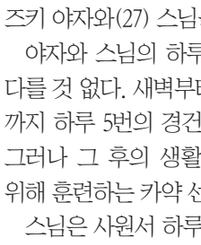


경전사경 제33호
우리말 지장경(下)
할인가 2,100원 (50권이상)
정 가 3,500원 (1권)
• 제 본 : 좌철 무선제본
• 크 기 : 19㎝×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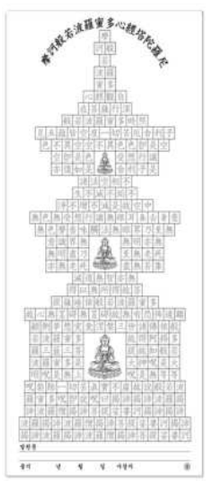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반야심경/광명진언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 한글



파라핀양초(특)
정 가 50,000원
1.8ℓ ×12병 / 한불양초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2박스이상일때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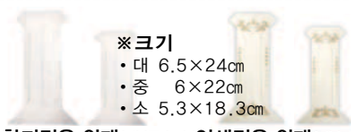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500원



제브라붓펜 3,4,5호
할인가 2,100원(50개 이상)
정 가 3,000원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크기
• 15.5×19㎝
정 가 30,000원 (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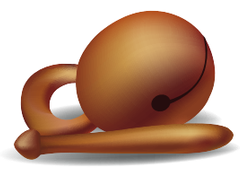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써 찬란히
빛나리라.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비구,비구니스님, 불자님께

소승은 20여년간 부항, 사혈, 지압으로 신경통, 위장병, 대장염, 혈액순환장애, 초기중풍,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완치한 경험이 많습니다. 인연되는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북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9 선향선원 신흥사 선 문 합장
054)434-2452. 010-3550-0132
e-mail : chadhyun@naver.com

문산역 파주역 10분거리
조용한산사에서 휴양,
기도하며 사실 분
승려가 되고자하는 분 (남,여).
포교사 법사님 재가단체 환영.
교양대학 운영하실 분 환영
010-2344-7304

계룡산 삼봉불기도 (매주)

입시 : 부적방생 1인 5만원
결혼풀이(산재) 1인 10만원
기도 후 스님 맞선 해드림.
2016년 6월 25일 7시 조계사 앞
온양경유 10시 계룡산 12시 도착
010-3410-0004
다르마 스님 합장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비구 부전 스님
잘 모십니다
(세수 62세이하)
예불은 기본만
010-3499-3721
010-8514-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행자승
(불교에 입문하실)
을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울산)
010-3034-2113

주지 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한
절을 도와드립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법납 40세 비구스님
010-7629-134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지역)
010-5269-9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54-0408
010-3422-3232

신통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특수한 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 월 20만원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5228-787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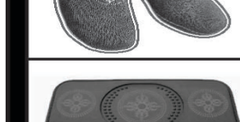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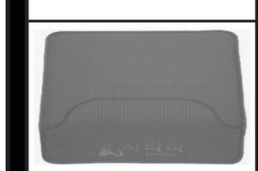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 출요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 위 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 일부 주거지
- 건 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6억 8천

연산공인중개사 051-863-6622
제 26320-2015-00027호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제천시 도심사찰 시세이하 양도함
- 토지 250㎡, 법당 48㎡, 요사채 59㎡
- 중심지역사찰, 융자가능함, 주변유동인구 많음
- 시세이하 1억 3천만원 (구입 1억 6천만원) 융자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60평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외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8천 ◎ 양도 : 8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김해시 상동면 산속의 사찰
- 총부지 : 3,795평
- 주차장 : 70대 이상 주차가능, 대형버스 진입
- 건물:법당,요사채,삼성각,용왕각,종각
- 요양원도 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 11억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예천(급)사찰

- 양도 1억 3천만원
- 토지 440㎡
- 법당, 요사채 94㎡
- 마을에 위치한 좋은 사찰
- 주차장공간 있으며 아담하고 조용함
- 접근성 좋으며 깨끗함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 찰 안 내

- 위치 : 월출산 국립공원(내)
- 법당, 요사, 와가, 목조건물 2동
- 산신각 1동, 토지, 임야포함 1천평
- 계곡있고 경관좋음
- 시내차로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26-9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3천5백만원, 월7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별장식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양산시 장터 4길 (남부시장 내)
- 5층건물중 2층 약 80평
- 삼존불 외 모든시설 완벽함
- 포교하시는 스님들께 최고의 요지
- 가액 :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정가능)

010-2585-5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 아차산역 5분거리
- 인체리어 잘되어 있음. 건강상 급 안내
- 약50평(2층,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베란다, 화장실2개
-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약사) 동불임
- 탱화는 후불탱화, 지장, 신중,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법당만도 가능. 상담 후 결정
- 불교행사 편하게 할수 있는 절
- 가액 : 2,500만원, 월 160만원

010-2333-3005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4천

010-3305-4559
010-9004-72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소답동 (구) 39사단 맞은편 위치 매우 좋은곳입니다
- 4층 중 3층 , 60평
- 가액 : 3천 월60만원 (조정가능)

010-4568-1579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농장(급) 안내

- 위치 : 보은읍 용암리 산아래
- 대지 1,570㎡ , 전 860㎡
- 축사 413㎡ 관리사 77㎡
- 방2, 거실, 욕실, 경동자동온수기(대)
- 2차선접, 한우사육, 양봉, 절 가능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074-307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총 82평 (반은 요사채, 반은 법당)
- 삼존불, 인등
- 법당에 모든것 갖추어져 있음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1,000만원 월 30만원

010-4741-3446
051-542-484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의창구 도심 사찰
- 교통, 경치, 생활 방편 양호
- 슬라브 지붕 토기와 올렸음
- 법당 601호 33,56평 단청했음 602호 요사채 26평 6층 전체사용
- 도시가스, 심야전기, 수도 직수, 지하주차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48-766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2282-888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10-3723-0777

사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전원주택지 명당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대지 : 255평, 황토방과 가건물
- 특징: 호수와 계곡이 인접한 정남향 명당, 토굴과 공방 전원주택 최적지
- 애착을 가진 땅이나 이사관계로 긴급 처분
- 가액 : 1억4천(상담후 조절 가능)

연락처 010-5598-2732
010-9943-2224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도심권 편백나무숲속(50년된 사찰)
- 특징 : 도심 산속의 뛰어난 전망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및 바다)
- 토지 : 400평(건물 66평 + 터밭)
- 건물 : 법당/요사채/종각/산신각/용왕각
- 옥외창고, 방5, 비품일체제공
- 주차 : 불가(소방도로 주차후 50m계단 위)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373-73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동래시장뒤. 위치좋음
- 5층 건물에 4층 40평 (엘리베이터 있음)
- 가액 :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051-583-5833
010-9508-4268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과 화성시 경계 명상원 2층
- 포교원, 다실, 갤러리 적합
- 실평수 40평
- 엘리베이터, 주차 10대 가능
- 가액 : 2천만원, 월 90만원

010-5237-5982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163
- 대지 약 145평
- 법당 : 아미타 삼존불 공양간1, 방 4개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9,500만원
- 임대는 천만원, 월10만원

010-3697-3521

사 찰 임 대

-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사찰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정도 됩니다.
- 전세금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사 찰 임 대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면적 : 1000평
- 법당 : 30평,산신각5평
- 요사 : 60평
- 대형차량진입
- 산속, 남향, 계곡
- 가액 : 6억8천

010-4586-4525

사 찰 임 대

- 위치 : 김해시 대동면
- 면적 : 45,800㎡
- 포장도로, 주차장 넓음
- 법당, 요사채2동(방12), 공양간
- 심야전기,지하수,산수도
- 화명대교,대동IC 10분거리 고시원 운영도 가능한 곳
- 가액 : 7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010-5346-4138.051861-223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시장부근)
- 2층 건물 2층(약 40평) 옥상사용가능
- 삼존불 신중(음향시설완비)
- 주방 거실,각방,에어컨시설
- 가액 : 300만원, 월25만원
- 스님건강상 급 양도함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2729-5122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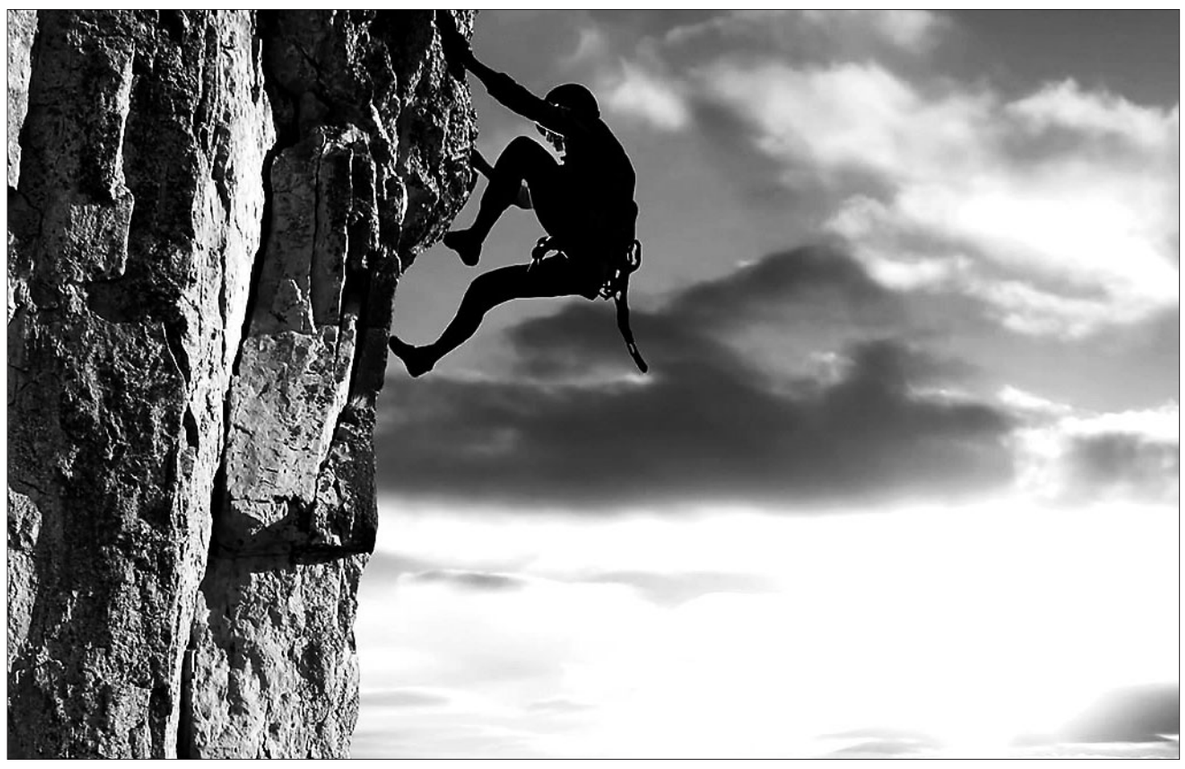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1〉 수행 여정의 시작 ㊦

두려움 해소가 '마음의 벽' 허문다



우울함, 끊임없이 괴롭게 해
'자기애' 기르면 외로움 사라져
자신 공격서 스스로 보호해야
'아집 버리기'로 비폭력 문제해결

있는 그대로 자신과의 만남

우리는 우리 삶이 가엾고 하찮다는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며 사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인생에 접근하다 보면 인생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울해집니다. 이따금 신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잠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우울한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우울함에 빠진 불쌍한 '나'는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무거운 납으로 만든 신발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고,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거나, 다른 면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가 커져야 마음을 활짝 열어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신성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은 태양과 달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신성함(sacredness)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서 생깁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생기면, 세상의 다른 이들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이제 슬프고 외롭고 비참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재치 있는 감각이 길러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슴속의 달과 머릿속의 태양이 분명해집니다.

신성함은 인생의 밝은 면만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며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도 아닙니다. 신성함은 이편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랑함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참본성이 당신 가슴에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날카로운 모퉁이가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참본성과 신성함은 무조건적인 좋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진정한 전사가 됩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려고 앉아 있을 때 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수행의 밑바탕으로서 명상 행위를 할 때와 마쳤을 때 온화함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금강의 세계이자 전사의 세계로서 즐거운 곳입니다. 절대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지나치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전사에게 있어서, 승리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무조건적인 전사의 마음을 기반으로 한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신성함이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이 저물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규율과 일관성(discipline and uniformity)은 많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꼭 무엇인가를 공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사의 세계에서의 일관성은 한마음(one mind)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한마음은 온화함입니다. 전사가 지켜야 할 규율은 공격이 아닌,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는 온화해야 하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지혜롭고, 깨어 있어야 하며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victory)는 적(enemy)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온 세상은 친구입니다. 전사의 마음은 두려움 없음과 온화함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온화합니다.

수행자의 여정

이제, 전사의 전통에 따른 수행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사의 수행법이란 우리 자신의 여정에서 겪은 경험을 반영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번데기 상태로 동면에 들어 편안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 살기가 힘들어 누에고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 이미 전사의 세계로 들어온 전사들은 이 누에고치 속 전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에고치 속에 계속 누워 있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에고치에서 자비의 요람으로 데려옵니다. 물론 그들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요. 때로 그들은 기분 나빠 울부짖으며 발로 차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진정한 전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사랑과 자비심으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요람에 잘 눕히고 나면, 이제 우유를 줍니다. 전사의 혈통을 이어받아 축복받은 이 우유는 일반 우유와 달리 심오하고 탁월합니다. 이 우유는 여성 원리라는 가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여성 원리는 샴발라국의 평화와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정말 훌륭한 우유입니다. 이 우유를 마시면, 누에고치 속 전사들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에고치 속 전사들에게 이 진하고 달콤한 우유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주저앉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단계에 이르도록 기쁨과 환희, 그리고 행복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제 유모차를 탈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탄 유모차를 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온갖 존재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는 무척 중요합니다. 누에고치 속 전사가 유모차를 나와 걷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발을 내디뎌 걷는 경험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과도기란 없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 원래부터 간직된 타고난 확신이 고무되면서, 드디어 무기를 쥐게 됩니다.

무기를 갖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활쏘기 훈련을 시키면, 이 미래의 전사들은 내면의 확신과 단단히 연결됩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참본성, 인간미, 전사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타고난 본성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깨어있음을 도와줄 이웃 동료 전사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누에고치 속 전사들이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면, 유모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걸을 수 있고, 갑옷을 갖춰 입을 수도 있겠지요? 마침내 누에고치 속 전사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전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타고난 본성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폭력의 길

앞에서, 우리는 누에고치 상태의 전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사가 되는 법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ego)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두려움과 단단한 실체인 자아의 잘못된 믿음에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를 고집하게 되면, 자아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아집은 욕망, 기대, 생각, 결정, 기억 등등이 쌓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러한 '나'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마치 이 복잡한 감정이 독립된 개체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아는 아집을 지키려고 벽을 만들고, 외부와 단절하지만 머지않아 외부와 소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 벽 가까이 가면, 자아는 안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균형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 게임의 반대 의미로서 무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힘사(ahimsa), 즉 비폭력(nonviolence)의 개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힘사는 상황을 다루는 비폭력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사의 길입니다.

비폭력적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에게 생긴 문제가 당신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이원성과 분리 의식이라는 개념에서 생깁니다. 이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 장벽을 허물고 싶은 진정한 열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과 싸워 이긴다는 생각, 우리가 전쟁터에 있단 생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들과 패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습관, 소통법, 전반적인 삶의 방식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불균형한 부분은 균형을 잡아 안정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상태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바로 무지, 증오 그리고 욕망입니다. 사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은 균형, 불균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균형과 불균형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불균형 상태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다룰 수 없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행동에 다른 행동이 겹쳐져 완전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에 완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위축되어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행동하는 현재 순간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불완전한 채로 마치 반만 씹고 삼킨 과일처럼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격입니다.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면, 당신은 절대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대안을 찾으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상황을 똑바로 보아야만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진정 효과적인 방법을 기르고 싶으면 상대를 향한 자비심(maitri), 자애(loving-kindness)를 키워야 합니다. 전사가 상황과 하나가 되고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모든 힘이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미움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상대의 힘은 무너집니다. 올바른 요가 수행에서 말하는 힘은 균형 잡힌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신적인 힘은 두려움 없음입니다. 두려움 없음은 티베트어로 지그메(jigme)라고 합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무술입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소속종단 : 대한불교통합선교종
- 법 명 : 성조(김종숙)
- 승려번호 : 2557-1104
- 주 소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은혜사
- 주 지 : 동화(박기현)
- 주 소 :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33-22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개강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후 3시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 (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 선혜스님)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6월 27일 개강 / 연락처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 남 범 음 범 패 원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북소리

오늘도 저녁 북소리는 법을 지고 날아가고, 전생에서 날아든 날벌레는 까마득한 북소리를 물고 있네. 빗방울에 치여 또 다른 전생을 치를 지도 모를 날에, 더듬이 하나로 전생을 건너온 그대여, 그 까마득한 간격이 이리도 가까운 것을 이제야 보았네. 그대 물고 있는 북소리가 이제 기억이 나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주위 사람을 환희 · 기쁨으로 사랑하라

사람지족명상

인간관계서 화(火) 많은 사람
'사람지족명상' 으로 감사 느껴야
부모에 대한 '긍정' 먼저 키워
친구 · 직장동료로 넓혀나갈 것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남 탓을 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분노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숨어있는 화의 불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화가 많은 사람은 '사람지족명상'을 하면 아주 좋다. 가족, 직장동료, 일가친척, 친구 등 매번 만나고 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훈련이다.

사람의 감정은 퍽 단순하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 당연히 행복해진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주는 것 없이 싫고, 기분이 좋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당연히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삶을 사는 거다.

인생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순 없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도 있듯,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마주치고 산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해보라.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이다.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스승인 용타 스님은 "인간이 저지르고 사는 최고의 어리석음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 그렇다. 인간의 역사는 무더기의 사람들이 무더기로 만나서 무더기로 죽이는 피의 역사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부족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을 무더기로 더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답은 하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감이 없기 때문이다. 더 기막힌 것은 내 몸뚱이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마저 원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마음치유학교를 하다보면 심지어는 대화 도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일X'이라며 욕하고 화내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어머니는 좀 낫다. 아버지를 '미운X' 취급하는 경우는 더욱 많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지족명상'은 매우 좋다. 특히 부모에 대한 (설혹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감사와 지족명상은 정말 중요하다. 부모부터 완전한 긍정감과 만족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긍정감과 감사함이 가져질 순 없다.

부모에 대한 지족명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내 생명의 뿌리가 되어준 부모에 대한 한정 없는 긍정감과 감사함이야말로 내 인격과 인품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은 당신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신 아버지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 아버지의 한계를 당신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습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야말로 당신 생명의 뿌리 아닙니까."

> "인간 저지르는 최고 어리석음
> 사람이 사람 향해 총 겨누기"

그러면서 덧붙인다.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로 미워하고 싶다면 아예 당신 존재부터 없애버리십시오.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당신 존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만 명상을 해도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90퍼센트 이상 사라진다. 거기에 더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을 거다. 또한 나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거야'라며 양파껍질 벗기듯 명상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사람지족명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님에 대한 지족명상의 공덕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족명상의 범위를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 · 친구 · 친척 · 이웃 등으로 점점 넓혀가다 보면 인간관계는 물론 사는 것 자체가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난다. 삶의 활력도 자연히 생겨나 일상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져 훌륭한 인품자가 될 수 있다.

사람지족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처음에는 우호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지족명상을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 사람을 상대로 사람지족명상을 하면 오히려 화만 더 나고 저항감만 생긴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내 뇌와 마음(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지족명상을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아내나 딸, 아들, 은사, 친구, 직장동료 등 평소 좋은 감정을 많이 나누고 사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우호감이 높은 사람은 조금만 명상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쉽게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우호감이 높은 사람부터 점점 원을 좁혀가며 우호감이 좀 덜한 사람으로 범위를 좁혀오다 보면 웬만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감사점과 긍정점을 찾게 된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지족명상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사람에 대한 큰 깨달음이 오게 된다. 모든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며 부정적인 감정이 아무리 큰 사람에게서도 감사하고 고마운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처럼 신비한 존재는 없다.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혼'이 있고, 혼을 담는 '몸'이 있고, 그 혼과 몸이 경험하고 사는 값진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다. '구름이나 소나기가 없이는 결코 무지개가 서지 않는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혼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구름과 소나기는 먼 훗날 반드시 우리 앞에 걸릴 무지개가 될 거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00호 현대불교
2016년 6월 8일 (5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사량으로 생각을 짓지 말고 지극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음식물을 섭취할 때의 마음 자세

질문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세상 만물에는 다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식은 자주 하지 않지만 식물을 섭취할 때도 '분명 이것도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들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그들을 내 몸속에 무조건 집어넣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수많은 밥과 반찬, 또 간식으로 실과들, 또 어떤 땐 육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들도 생명이 있고 피가 있고 마음이 있고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그 한 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됨을 진정으로 진실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실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먹는다, 반찬을 갖추어서 먹는다, 또 때에 따라서 몸이 좀 이상하면, 먹고 싶다 하면 육식도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 또한 생명, 피, 살,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줄 아시지만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치듯이 여러분한테 다 송두리째 바칩니다. 바친다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그것은 낮은 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스스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관계상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야, 먹었더니 배부르고 참 흐뭇하고 좋더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움이 거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남을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밟고 일어설 수도 있고, 또는 남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남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참외 하나를 깎아 먹는다 하더라도 내 몸뚱이의 내 중생들이, 바로 나를 형성시켜 놓은 나의 그 중생들이 이 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자기는 운동을 해 주는 그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먹습니다. 뭐 배가 고프면,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문제지마는, 도둑질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엄연히 생명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과 더불어 내 살이요, 내 생명이요, 내 피요, 바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동시에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이롭게 되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며 모든 게 합류화돼서, 바로 나로 인해서 그 식물도 모두 다 융합이 돼서 한 사람의, 즉 말하자면 무주상으로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식물이나 그런 것은 다 진화돼서 나와 더불어 바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이 꽃이 우리 인간의 노예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예지마는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웃으면 꽃이 핀 거와 같고 우리가 늙어서 찌부러지면 이것도 스러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업신여길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전부터 얘기해 왔지마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우리를 이날까지 형성시켜서 나온 그 주인을 자기가 업신여겨서도 아니 되지마는, 모든 식물 이 자체를 먹는 데도 둘로 보지 말고 자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을 놓거나 간식을 먹거나 할 때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감사합니다' 하는 걸 진실로써 느끼고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서 남의 살과 남의 피를 배불리, 배가 넘치도록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살과 피를 그대로…. 그냥 많이만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중도로서 마음을 항상 향기롭게 두고 겸손하게 두고, 하다못해 뭐 하나 깎더라도 이것이 바로 내 살이요, 내 마음이요, 내 피가 아닌가. 그것을 일부러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다면 전체 우리가 살림살이할 때 그것이 다 그렇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자기의 모든 이 중생들이 이 안에 들어서 자기를 크게 인간으로서 형성시킨 것처럼 그 식물도 다 거기에 융화가 돼서, 다 인연이 돼서 역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육식도 그렇습니다.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을 때는 둘이지마는 우리가 내 살과 내 피, 내 마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석에서 바로 인간으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기복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는 한 길이요, 한 진리요, 한 벗이요, 형제 아님이 없는 것이요, 사랑 도의 의리,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존엄성 있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폭이 넓고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무(無)의 세계 50%, 유(有)의 세계 50%를 맞쥐고서 내가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먹어 치우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똑같이 둘이 아니게 볼 수 있으니…. 참, 그 섬기는 마음은, 자기를 송두리째 바치면서도 그 섬기는 마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이 몸에 들어가도 스스로서 살이 되고 스스로서 좋은 피가 돼 주고 그렇게 체하는 법도 없고 그렇게 이 몸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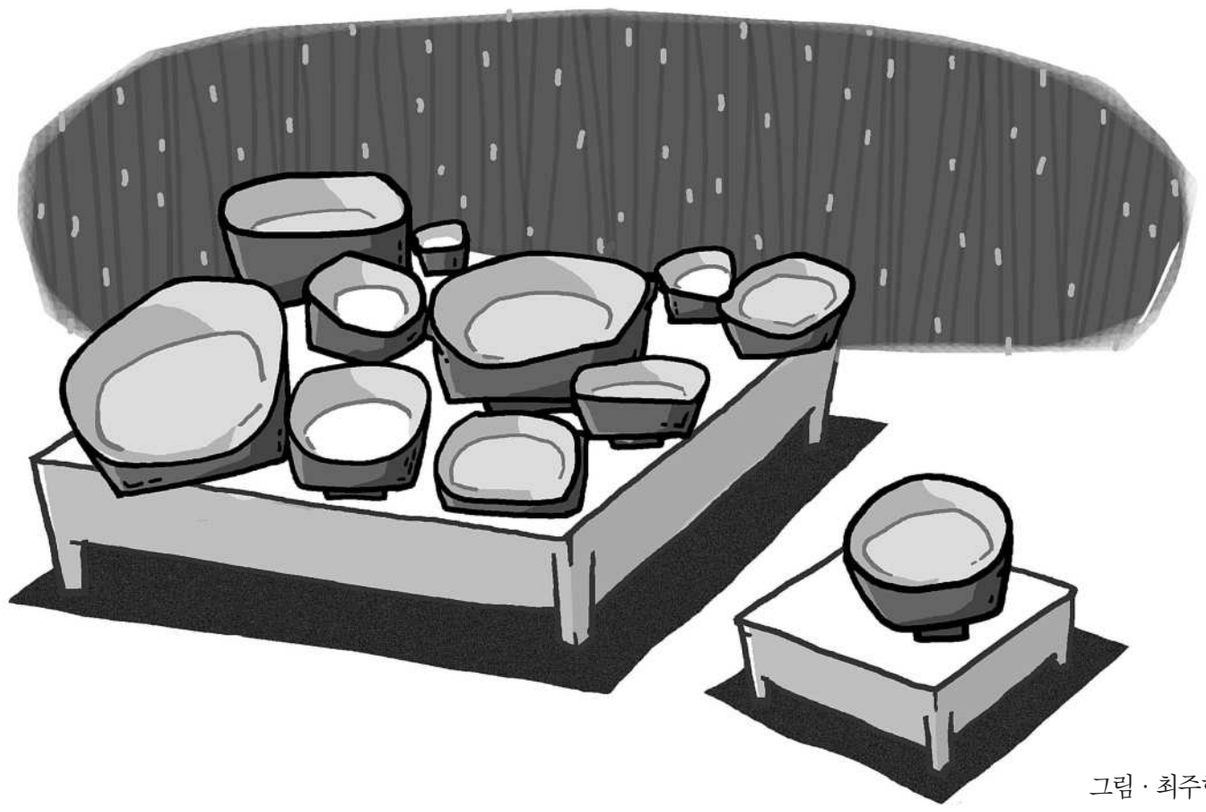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조직에 소속돼야 공부가 잘되나요?

질문 선도 수련을 하다가 선원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도회에 소속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구도자들의 모임이라도 조직에서는 좋지 않은 타성이 생긴다고들 하는데요, 생활에 쫓기다 보니 법회에도 참석하기 힘듭니다. 큰스님께서도 혼자 공부할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원의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끔 법회만 찾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그것은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로 통하려면 자기 신념이 필요한 거지, 이 공부는 누구에게 물어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느냐 물러서지 않느냐, 또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도반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하는 도반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발심을 해서 정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죠.

만물만생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승입니다. 돌 하나라도 스승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저렇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고정되게 있다는 상(相)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 25면에서 계속

게 나쁘게 해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까지도 다 스승일 수밖에요. 매사를 그렇게 해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빨리빨리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는 빚을 갚아야 할 부모도 건질 수가 없고, 아래로는 뿌려 놓은 후손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결연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하는 문제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허공에서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벗어나질 못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덩어리 자체도 자유스럽게 구르지를 못하고 매여서 삽니다. 우리도 매여서 살고 있고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왜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그대로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내 의지가 굳어지는 대로 그냥 집어삼키며 가는 거지요. 이것은 중(中)세계의 진리이기에, 삼세를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진리이니까 보고 듣는 그 속에서 삼세를 뛰어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한밤중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질문 저는 스물여덟 살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큰스님 말씀은 언제나 기쁘기 그지없는 감로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있지만, 스님 말씀대로 성실히 '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밤중에 갑자기 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저의 두려움이 흔히 느끼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욕심도 그냥 두려고 하고 있고 믿음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수레가 아니라면은 살 수가 없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축소시킨다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너는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거지로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좁고 옹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건 되는데 큰 거는 안 될 거다.' 요런 생각, 또 '요렇게는 되는데 이런 거를 힘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업을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붙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생각이 입력이 되었으면 그 입력을 지워 버리는 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거기에다가 일임하고 입력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믿고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즉 말하자면 큰 회사라고 한다면 사원이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에서 수백 명의 입자로 화(化)해서 들어가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고정되게 있다는 상(相)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부처님법도, 가톨릭 법도, 기독교 법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 이외의 어떤 것에 끄달려서, 기복으로 가서는 절대 나를 발견할 수 없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내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가볍게 뛰어 보세요.**
>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나한테 재료를 다 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다 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인간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인간까지 와서 다시 밑으로 좌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주인공을 믿고, 모든 아프고 괴로운 것, 공부하는 것,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내 주인공 안에다 맡겨 놓으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내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가볍게 뛰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뿐이지, 진실로 믿고 내 안의 근본에 모두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질문 아직은 절에 나가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불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마음요전을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본능대로 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요.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새나 구더기 같은 동물들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본다면, 자신과 타자를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인간보다는 아주 어린 영아나 유아 그리고 새나 구더기 같은 존재가 더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녹음테이프에 저장시켜서 입력된 내용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고 고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몰랐을 때 살아온 내용이 입력된 테이프에 다시 새로운 녹음을 함으로써 전자의 입력된 내용을 바꿔 나가는 공부라고 항상 말을 해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크게 본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속에 허영에 늙은 노인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늙고 젊고가 본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었죠. 어느 아이가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인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자에, 죽은 애가 찌른 애를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썰매 꼬챙이로요.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연의 과보를 모르고 죽은 아이 집에서 보상을 해라 뭘 해라 한다면 도루묵이 돼 버리죠. 또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엮어지는 거죠. 업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이 공부는 나를, 자아 완성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의 수없이 많은 의식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근본에 되놓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그냥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다가는 정말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공부는 알음알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건성으로 믿고 놓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놨다가도 되끄집어 내고, 또 맡겼다고 하면서 되끄집어 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시일이 지나서 풀릴 수도 있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하게, '어이구, 이렇게 맡겨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안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못 믿으면 이 세상의 무엇을 믿겠습니까? 태어난 자체가 증거입니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도, 자기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도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공부를 해 왔던 분들만이 진정으로 이 도리를 알게 된 고마움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량으로 생각을 짓지 말고 정말 지극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주인공에 맡기는 것과 본능대로 사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중이염에 걸립니다

질문 저는 11살 된 남자 아이입니다. 할머니께서 신앙심이 대단하시고 저도 부처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 동생은 배가 아플 때 "주인공, 안 아프게 해!" 하고 관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7살 때 귀 수술을 했는데도 자꾸만 중이염에 걸립니다. 부처님께 어떻게 관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서 밤마다 천수경을 읽으시고 석가모니불을 하십니다. 저도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리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근본을 믿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군요. 중이염이 자꾸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 이 몸은 수없이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찬 배와 같아요. 그 배의 선장이 바로 나의 주인공이고, 가득 찬 손님들은 내 몸 안의 의식들이고. 그러니 이 배가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가려면, 그 배의 선장을 믿어야 하듯이, 나는 나의 주인인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 놔야만 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이염이 또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을 아프지 않게 이끌어 갈 수 있잖아. 주인공,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 하고 항상 맡겨 놓아야 해요. 그래야 나의 근본에 통신이 돼서 아프지 않게 이끌어 줄 테니깐 말이야. 그리고 나의 근본을 항상 믿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의 선장이자, 나의 영원한 친구인 주인공에 맡겨 놓고 살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요?

줄어듦도 늘어남도 본래 없는 이유

질문 저는 주인공에 깊이 관하다고 하는데도 때때로 다가오는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 "끊임없는 생명들의 줄어듦도 늘어남도 본래 없다."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인구의 격감, 온갖 동물 희귀종 멸종 등은 무의 50% 세계로 환원하는 현상인지요.

답변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그렇고, 사람이 최초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벌레로부터 생겨나서 인간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짐승이 됐으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진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끼 그러면 토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로 태어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태어나고 권리도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모든 생김도 주어지고, 모두 그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마음 하나 이것도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마음 아닌 마음을 진짜로 써야 된다. 마음 아닌 마음을 항상 돌 아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저기 가서 저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하여튼,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두 둘로 보지 말고, 그렇게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냥 사랑 없는 그냥 사랑이 되죠,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주인공 찾으려면 주인공 어디서 찾나?' 이러지 말고, 자기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그러죠. 뿌리와 나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편리한데도 '주인공이 어디 있나?' 그러고선 찾거든요. 그러나 항상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듯 주인공이 그렇게 있으니깐 걱정하실 게 없단 얘깁니다.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5월 26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50회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수상자의 면면을 보니 탐욕과 분노로 얼룩진 각종 범죄의 아수라 같은 세태 속에서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경찰관의 박봉 속에서도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20여 년간 돌보고 보듬는 선행을 한 분, 수많은 어려운 노약자에게 무료 안과 시술과 각종 의료봉사를 국내외적으로 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의사, 생선가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 같은 분, 불우하고 외로운 학생들을 돕는 하숙집 여주인 등. 이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읽어 보면서, 아! 이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부처님이 아직 이 세상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겠다는 위안이 든다.

동시에 연기니 무아니 자비니 하면서 붓다의 사상을 읊조리면서 어려운 이웃에 소홀한 내 자신이 초라해 진다. 동시에 붓다의 자비 정신이 살갑게 다가온다.

근래에 한국 불교계에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다양한 논쟁이 제기 되었다. 이 논쟁의 긍정적인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한국불교가 가진 문제점이 거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는 깨달음 지상주의 또는 깨달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고 단언한다. 깨달음과 자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상구보리'는 잘난 형님이 되었고 '하화중생'은 못난 동생이 되어 깨달음의 그늘 속에서 자비는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붓다 사상의 근원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 즉 '정토'를 만드는 자비 정신에 있다.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자비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를 가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자비는 사랑, 배려, 겸양, 절제, 용기 등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덕목이다. 때문에 그 만큼 추상성이 높다. 이 추상성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찾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비 실천은 깨달음보다 어렵다고 본다. 또한 자비 실천의 방편은 깨달음의 방편보다 어렵다고 본다. 한국불교의 긴 흐름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은 많은데 왜 큰 보살행을 한 스님들은 왜 많지 않은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랑의 실천자를 왜 불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한국불교 신비주의에 빠져
자비 실천행이 절실할 때
종합학문적 접근도 필요하다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물을 뜰 생각은 안하고 그릇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비 실천은 결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비라는 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비 윤리학을 정립시키고 자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비에 대한 종합학문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즉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 실천에 대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자비실천은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이것이 한국 불교를 살리는 화두이다.

社說

행자 '중도 퇴사' 막을 대책 필요하다

조계종의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가 출가자 확대다. 하지만 정작 출가하더라도 중도 포기자가 많다면 별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계종 행자 교육 부재와 시대에 맞지 않는 수직적 위계 질서는 행자들의 중도 퇴사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5월 31일 출가지도법사 워크숍에서 발표한 행자 퇴사 원인 분석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76명이 행자 등록을 했고, 410명이 퇴사했다. 이는 전체 2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257명이 등록해 70명(27%)이 퇴사했다.

이렇게 높은 퇴사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학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 50기 수계교육을 받은 행자 8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81명 중 67명(82.7%)이 중도 포기를 생각했다. 대다수가 '강압적 명령 ·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았고, 행자 교육시스템 부재, 타행자와의 마찰, 과도한 운력(16건)이 중도 퇴사를 생각하게 한 이유라고 답했다. 또한 수계교육자 71%가 누구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 현재 행자 지도프로그램이 부재함도 보여줬다.

그나마 교육원이 하반기부터 교구본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실시해 본사 출가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 · 상담의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출가지도법사 워크숍에서 제안됐듯이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지부진한 중앙차원의 '상설 행자교육원'도 포함된다.

출가자 확대, 특히 양질의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20~30년 전 어려웠던 시절에도 공부하고 수행했다'는 주장은 발전적이지 못하다. 획기적인 진흥책을 고민할 때다.

달라이라마 방한 더 빨라져야 한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가시화되고 있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를 비롯한 많은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로 달라이라마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일 방한추진위가 달라이라마 방한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달라이라마, 평화와 공존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포럼은 무르익고 있는 달라이라마 방한 분위기에 맞게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이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논의 결과는 사뭇 진지하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면 한국불교계에 좌절감을 줄 것이란 경고부터, 국민적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종교행사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또 달라이라마 방한이 이뤄진 이후 한국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변화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내한이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달라이라마가 방한하면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포럼에서 주제발표한 조성택 교수의 말과 같이 가장 먼저 '주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불교계가 주인공이 되어 불교혁신과 불교사상 실천 등에 앞장서고, 달라이라마가 이에 공함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자칫 달라이라마 방한 행사에 불교는 들러리를 서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기점으로 불자의식을 변화시키는 등의 일련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발언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논란

참혹한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숨졌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다. 사고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불교계와 SNS상의 목소리를 모아보았다. 〈편집자주〉

안전 · 생명 중시 사회로 나아가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성명

서울 1~4호선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날 때 마다 안전조치 · 재발방지 · 2인 1조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 삼탕이다. 3년 사이에 똑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서울메트로는 이에 대해 똑같은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관리를 최저입찰을 통한 외부 용역들에게 주고 있었으며, 용역업체는 경비절감을 위해 외주업체 직원 1명이 10개 이상의 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안전보단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구조다. 이는 바로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 바꾼 전형적인 '세월호 복사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세상이 바뀌어 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간접고용 형태, 즉 용역 · 하청 · 재하청이 만연한 고용 구조 때문이다. 원청은 오직 기업 이윤이 우선이며, 하청이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진다. 이 형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정규직 노동자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으며 조선소와 지하철, 건설현장 등서 죽어나가는 용역들. 원청에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또 책임 지지 않는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선 비정규 노동자만 죽어갈 뿐이다.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돈에 눈이 멀어 온갖 불법이 뒤섞인 안전 불감증 사고였단 사실을,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잊었단 말인가.

서울지하철은 이번 사태에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

SNS 에서는

@jtg9762
굶다시피 하며 일한 박봉을 매달 엄마에게 건네던 착한 아들. 한 끼 식사용 컵라면, 끝내 그걸 유품으로 남긴 채 떠난 젊은 영혼. 피토하며 울부짖던 그 엄마는 시장과 서울메트로의 공식 사과가 있은 후에야 장례를 시작했다. 가여운 고인의 명복을 빈다.

@zsemju62
이 안타까운 사건을 그저 몇 마디로 무마하지 마세요. 유가족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남아계신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을 만드세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Nirvana3626
서울메트로의 문제뿐이겠는가. 어느 개인의, 행정조직만의 문제이겠는가. 젊은 노동자의 어처구니없는 희생 뒤 가려진 이 땅의 비민주적 노동현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어린 노동자의 죽음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oliveunix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cheolsoo0919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거듭 애도를 표합니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당분야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nurindale
기다림 없는 사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부친다. 우리의 한계는 가해자로 묘사되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 대중들조차도 저임금, 초과노동의 피해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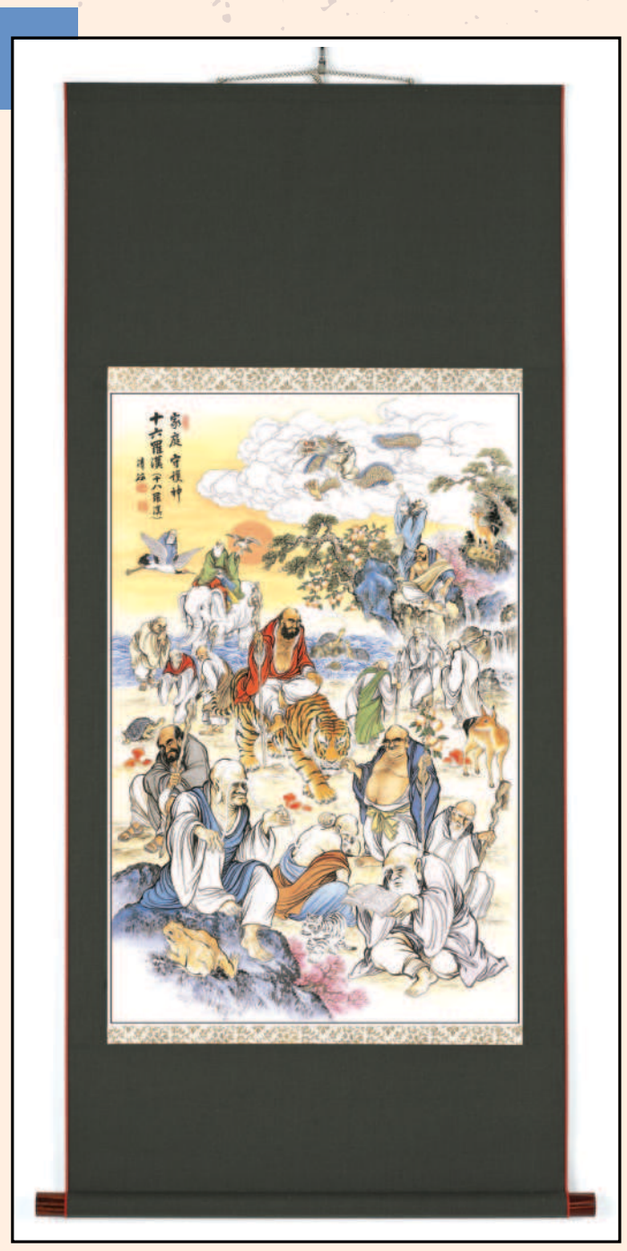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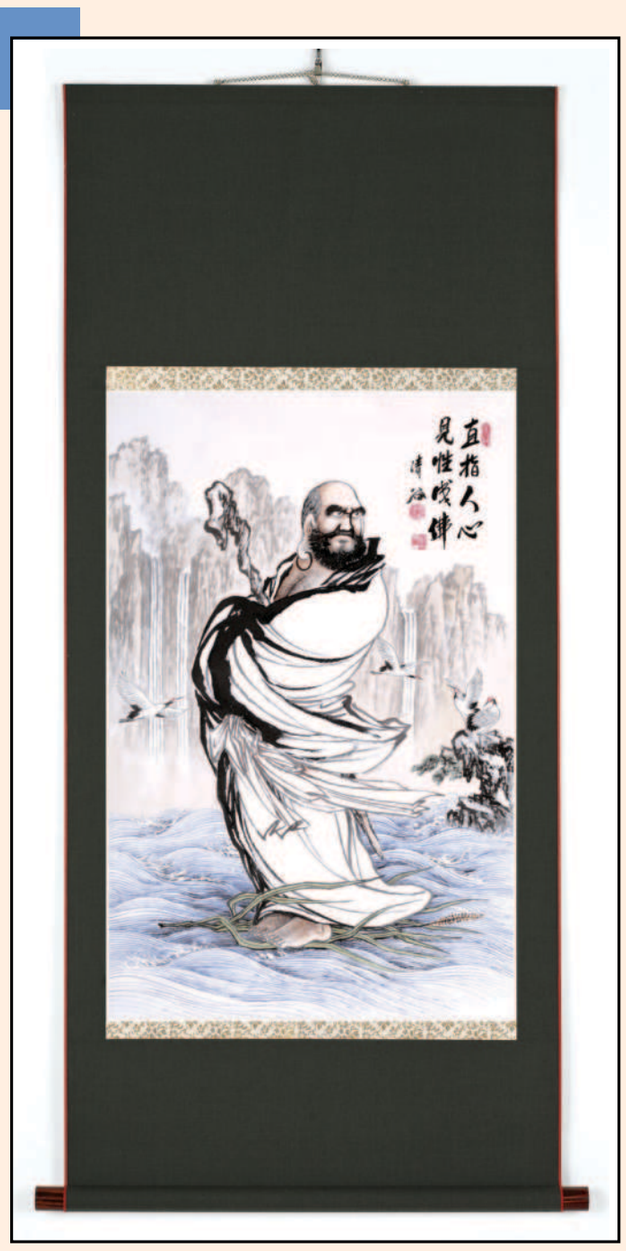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이십니다.

달마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